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過歲는 陽曆으로

一

사람은 超時間的인것을 생각할수는 잇서도 그自身이時間을 超越하여 살수는업다。그러므로 우리는 恒用日常生活에잇서서는 時間을 計算하여 秒로부터 分, 分으로부터 時, 時로부터 日月, 日月에서 다시 年에 미치는算法에 依하여 살고잇는데 秒分時나 日月의交替에 對하여는 그다지 特異한 感情을 가지지아니하지만 特히 해를새로히하는 所謂 새해마지에 對하여는 獨特한感懷을 가진다。이것은 人種과國家에 따라 그風俗과儀式에 서루 差異는 잇서도 全人類에게 共通된現象이며 送舊迎新하는날에 안저서 過去를 回想하고 압날의新計劃을 樹立하는것도 또한人類共有의 事象이다。한個人 한社會를 爲하여 年一次의『설』이란, 생각하면 實로 重大한意義를 가지는것으로서 全人類에게서 이風習이 업서지지안을것이아니라 사람으로서 年一次 이런機會를 가저서 마땅한것이다。그러므로 우리는『설』의意義를 重大視할뿐아니라 이것이 될수만잇스면 盛事스럽기를 바라는바이다。

二

설이 설답고 盛事스럽자면 첫째 그社會의 社會的諸條件의具備가 要求되는것이나 이것은 하루이틀에 解決되는問題가 아니므로 여게서는 論外로하거니와 설이 盛事스러워지는 다른한가지 重大要素는 설에對한 感情의 單一化에 잇슬것이다。우리는 事情에 잇서 설을 가지지 안햇다고하여도 過言은 아닐것이다。公으로는 陽曆설을 쇠면서 私로는 依然히 陰曆過歲를 하고잇는 사람이만타。兩者어느것이 참설인가 우리의 感情은 어느쪽으로도 集中高揚되지못한다。설을설답게 또意義잇게 쇠기爲하여 過歲는 斷然年一次라야한다。그러면 어느설을 쇄야 하느냐、어느설을쇄야하느냐하는 問題는 陰陽兩曆中 어느曆을採擇할것인가하는問題와 가러진다。그러데 陰陽兩曆中 어느것이曆으로서 學理的으로나 實生活에 잇서 더合理的이냐는것은 지금 다시說明하는것부터 陳腐한일이요 부끄러운일일것이다。全人類는 陽曆을 使用하고잇서서 陰曆의本고장 支那에서까지도 陽曆을 使用하고잇는것이다。두가지 曆書를 가지는것과 마찬가지로 두가지설을 가지는것은 羞恥이며 더욱 밝은 曆日을 두고 못한 曆日을 採擇한다는것은 自己侮辱以外의 아무것도아닐것이다。

三

그러데 習은 慣을 어떠케 고치느냐는데 잇다。陽曆이 陰曆보다나엇다는것은 누구나 아는일이다。다만 이것을 우리의 實生活에 經濟를 삼는 實行力이 不足하다는것만이 問題로 남는다 陽曆설날 老人에게 歲拜를 하면 老人들은 應答을 하지아니한다 그心情은 헤아릴수잇는일이나 그것도 暫間이오 數年間만 이것을 斷行하면 반드시 陽曆實施라고 不可能한일은 아닐것이다。오래된慣習이라고 永不變의것은 아니다 問題는 오직 斷行 與否에 걸여잇슬뿐이다。凡事 斷行이업는곳에 무슨前進이잇스며 更新이잇스랴。年末을 當하여 다시한번 웨치노니 生活更新의 意味에서 今年부터는 斷然 自進하여 陽曆으로 過歲하기를勸하는바이다。

八萬噸級戰艦建造
十二隻은太平洋、八隻은大西洋에配置
米下院軍事委員政府에要請

【華盛頓二十二日發同盟】마스下院海軍委員의 六萬五千噸乃至八萬噸級 超超弩級戰艦建造에 關한主張은 既然各方面의 關心을 끌고잇다 軍事消息通의 見解에依하면 右超超弩級戰艦의 크기를 制限하는것은 幅員百十呎에不過하는 파나마運河의 閘門이라고하나 最近파나마 運河地帶를 視察한下院海軍豫算分科會委員의 言明에依하면 通過議會에서 可決된 新第三閘門案으로된다면 파나마運河는製造할수잇는 最大艦艇의 通過를 可能케할수잇는 幅員이된다고한다 그리고 프라롤레ー共和黨議員도마스議員 海軍의擴充을 主張하엿다『米國海軍을 世界어느海軍보다도 優秀케함은 我等 海軍豫算分科委員會의 熱烈한希望이다 余는一方으로 日本에對抗하고 他方으로 英國에對抗하는 米國政府의 政策에는 실로놀래이낫다 이러한對抗戰을가진 海軍戰爭은 至今에 全然不合理한 짓이다 我等은 戰爭치안코 優勝者가 되기를希望한다』그리고 마스氏가 二十二日 新聞記者團에 對하여말한 超超弩級戰艦 建造에關한 主張은如左하다

余는 米國海軍에 超超弩級戰艦建造에 着手하기를 極力主張한다 我等은 마땅히파나마運河의 存在를이저버리고 太平大西兩艦隊를 全然別個로 所有하여야한다 余는 八萬噸級戰艦이 二十吋砲設置의 砲塔七乃至八門을 가진다면 滿足하다 米國이 如斯한 超超弩級艦十隻을所有하면 現在의 三萬五千噸級戰艦十五隻보다 훨신有力한것은 確實하다 萬若我等이 此種戰艦十二隻을 太平洋에 七乃至八隻을 大西洋에所有하게되면 米國國防은 그야말로 無敵이라고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實現困難乎

【倫敦二十二日發同盟】米國下院海軍豫算分科委員會가 米國海軍當局에 六萬五千噸乃至八萬噸級戰艦의 建設을要請하엿다는 報道에 對하여 英國海軍消息通은今次大戰의 經驗에비추어 小數의巨艦보다도 小艦多數建造가 必要하다고 批評하고잇다 왜그러냐하면 獨逸袖珍戰艦의 最大缺陷은 獨逸海軍專門家多年間 研究에도不拘하고 그噸數에 相應치안흔巨砲를 裝備케한데잇는것으로 그理論은 그라프·슈페號가 英艦으로부터의 砲彈一發이 艦中樞部에命中하여 致命傷이된 것에依하여 立證할수잇다고한다 一方如斯한 考慮와는別個로 巨艦建造費의 膨大는 거의計畫의 實現을 不可能케 하리라고한다 即現在英艦建造費는 一噸當二百十九磅인바 米國의그것은 一噸當四百磅으로解釋하고잇서 八萬噸의 巨艦建造에는 三千二百萬磅(約一億六千萬弗)이란 巨額의 費用이 必要하게된다고한다 右와如한根據에서 米國海軍이 八萬噸巨艦建造를 한다는것은 全然잇슬수업는것이라고 보는것이 一致된見解이다

新條約締結이必要
一割差別關稅撤廢背後에는 政治的術策이潛在乎
日米通商

【東京電話同盟】東京에서의野村、그루會談은 順調로進捗하여 日米國交調整의前途는 자못 明朗化하여 兩國貿易業者를爲始 財界一般의 重大關心事가 되어잇다 來年一月二十六日以降 現行日米通商航海條約失效後의 米國側의 本邦品에對한 關稅上의差別待遇에關한 念慮는 于先拂拭된感이잇다 따라서 貿易界方面에서는 東京의日米會談이 兩國國交調整의 第一步로써 兩國貿易當面의 杜絶狀態를 救한데대하여 자못歡迎의뜻을 表하고잇다 即 當初 매우憂慮되던 日米通商條約 失效後의 我國輸入品에對한 差別關稅 一割賦課도 米國財務省의 發表에依하면 實現치안키로되고 또實現必至로보든 噸稅 碇泊稅도 免除될模樣이다 이러한情勢의 好轉에따라 我財界에서는 近近 華盛頓에서 開催되는듯한 日米通商條約締結交涉에 큰希望을 부치고잇다 그러고 米國側의 本邦品에 對하여 差別待遇를 實現하지안는다는方針은 當面의 兩國貿易에가로노히엇는 不安을 一掃하려는 應急的措置에 不過한것으로 解釋된다 따라서 現行日米通商條約의 失效後에는 或은 米國側의 一方的措置에 依하여 何時에나 本邦品에對하여 差別待遇를할수잇도록 되어잇는것으로業者는이點에아직多少不安으로여기고잇다 現行條約의 延長乃至는 新條約의締結에依하여 兩國貿易의恒久的安定性을 招來하기를希求하고잇다

【紐育二十二日杉浦同盟特派員發】日米通商條約失效後도 日本品은 一割關稅를免除當하기로되어 日米通商當業者는 愁眉를열고잇는데 更히 當地專門家의解釋에 依하면 日本品에對한噸稅도從來대로될터이며 또 碇泊稅는公文에 但書가업는 關係上難點이잇스나 이것도 辦法을피하여 大體로從來대로 取扱될模樣이다 今番 措置는 一般으로는揚子江一部開放에 對한措置로解釋되고잇스나 그特色은 財務上의 이런通牒은 모두取消할수업는點에잇는바 恰似日本이 揚子江各港을軍事上 目的에應하여 隨時開閉自在라는 立場을 保留하고잇는것과가치財務省도 米國의各港을 日米交涉上必要에 應하여 隨時開閉自在라는 立場을 留保하고 잇는點에 잇다하여 當業者는 今後의 日米交涉進展에 一喜一憂를 免치 못하는터이다 지난二十日 國務省에서 石油會社에對하여 까솔린精製機械 工場設立을 日蘇兩國其他 若干國에對하여 非公式으로 禁止한것도 追後어떠한 措置가 잇슬때까지라는條件附로서 그時期는 支那에서 米國에對한 門戶開放이實現되면 米國으로부터 까솔린精製에對하여 門戶를 開放한다는 것이다 이點으로보아 對日輸出

政友各派懇談會
"合同"을主張
決議文도同時發表

【東京電話同盟】政友會各派代議士懇談會의 第二回會合은二十三日午後二時 芝三緣亭에서 開會 ◆中島派 今井健彥 志賀和多利 土倉宗明 川島正次郞等二十一名 ◆久原派 東條貞 野田俊作 河野一郞 松本弘 名川侃市 牧野良三 西岡竹次郞 深澤豊太郞 瀧澤七郞氏等 二十五名 ◆中立派 松村光三 行田角治 南堀三氏等六名 合計 六十二名出席 志賀和多利氏를 座長으로推薦하여 一、政友會合同問題 一、時局問題 中心으로 意見交換을한結果 此際政友會는 一體가되어 時局打開에 邁進하기爲하여 委員을選任 今後對策을 一任하기로決定하고 左記十五氏를 委員으로 選任하엿는바 委員은 更히協議한結果 左記決議를하고 次會委員會는 二十五日開催할것을 協議하고 午後七時半散會하엿다

◆委員 久原派 河野一郞 藤生安太郞 牧野良三 立川平 名川侃市 深澤豊太郞 石坂豊一 中島派 志賀和多利 土倉宗明 川島正次郞 倉元要一 上田孝吉 今井健彥 木村正義 中立派 松村光三

◆決議 時局이더욱重大한때 現內閣은 이미信을天下에일코 國政擔當의能力을缺하엿다 政黨은 速히强力한 陣容을 整備하여 國民의期待에 副合하지안호면 안된다 我等同志는 一致協力渾然一體가되어 時艱의克服에 當하기를期함

貴院豫算委員陣容

【東京電話同盟】貴族院에서는二十三日 午後一時半부터 硏究會事務所에서 各派交涉會를 열고 開院式翌日인 二十七日에 選擧決定하는 各常任委員 候補者의 銓衡을하엿는데 全院委員長及豫算委員의陣容은 如左하다

◆全院委員長 德川圀順公

◆豫算委員 溝口直亮伯 有馬賴寧伯 橋本實斐伯 大久保立子 井上匡四郞子 大河內輝耕子 西尾忠方子 岡部長景子 黑松友光子 伊東二郞丸子 舟橋淸賢子 高橋是賢子 八條隆正子 松平賴秀子 松井慶四郞男 前田利定子 山川端夫 今井田淸德 大塚維精 有賀光豊 下村宏 結城豊太郞 大澤德太郞 小野耕一 飯川治作 中山太一 佐佐木長治 (以上硏究會二十七名) 秋元春朝 紀俊秀男 千秋季隆男 岩倉道俱男 伊東二郞 吉男 松田正之男 大森佳一男 東久世秀雄男 飯田精太郞男 前田[illegible]男 柴山昌生男 河田烈 松村義一 (以上公正會二十二名) 島津忠重公 一條實孝公 岩倉具榮公 西鄕從德侯 細川護立侯 大隈信常侯 井上三郞侯 淺野長之侯 (以上火曜會八名) 有吉忠一 田淵勝次 赤池濃 村田省藏 田所美治 佐佐木八十八 (以上同和會六名) 水野鍊太郞 岡部七郞 內田重成 竹下豊次 水野甚次郞 多木粂次郞 (以上交友俱樂部六名) 米山梅吉 丸山鶴吉 次田大三郞 (以上同成會四名) 그리고 豫算委員會의 正副委員長인데 休會後 再開時에 互選할 豫定인데 委員長에는 井上匡四郞子 副委員長에는 千秋季隆男이 推薦되기로 內定되엿다

陸海軍將士에對한 感謝、敬弔兩決議案
廿五日衆院本會議에上程

【東京電話同盟】衆議院에서는二十三日各派 交涉會에서 事變勃發以來 赫赫한戰果를거두고 아직 聖戰을支那各地에서 進行하고잇는 皇軍將士에對하여 感謝의意를 表하는同時에 東亞新秩序建設의尊貴한 礎石이된 英靈에對하여 敬弔의뜻을 表하기爲하여 두가지決議를 하기로決定하고 來二十五日의 本會議에서 常任委員選擧後 右決議案을 上程할 터인데 右決議案은 民政黨의依賴로 政友會中島、久原兩派決議하여 說明者를決定한後 提案理由를 說明하여 滿場一致 可決할터인데 이에對하여 畑陸相、吉田海相으로부터 各各謝辭를 하기로되엇다 感謝決議及敬弔決議案全文은 如左하다

◆決議案(陸海軍에對한 感謝의件) 事變勃發以來 벌서 二年有半 我忠勇한 將兵諸士는 異域風土에서 가진困苦를 참고 그며 陸、海、空軍이 互相協力하여 善謀善戰 御稜威下에 未曾有의 戰果를거두고 國威를 中外에宣揚하여 武勳의 偉大함은 全國民이 一齊히 感激하는바이다 同時에 東亞新秩序를 建設하여 恒久的平和를 確保하는것은 諸士今後의 任務에 기다릴바가 만허 그勞苦는 實로偉大함이잇다 衆議院은 이에決議로써 感謝의 뜻을表하고 兼하여 將兵諸士의 勇健을 빈다

右決議함

◆決議案(戰死者에對한 敬弔에關한件) 衆議院은 今次聖戰에 際하여 戰場에 生命을 君國에 바친 皇軍將士의 英靈에 對하여 深甚한 敬弔의 뜻을 表한다

右決議함

衆議院各派交涉會

【東京電話同盟】衆議院에서는二十三日議會散會後午後一時부터院內議長應接室에서 各派交涉會를 열고 小山議長을 비롯하여 各派交涉委員大木書記官長出席 一、發言順位와 委員配定의 件 一、陸海軍에 對한 感謝決議와 戰死者에 對한 敬弔決議案의 件 을 議題로하여 發言順位와委員配定은 二十三日正午現在의議員數를 基本으로하여 各各決定하고 同一時散會하엿다

◆常任委員配定、

豫算委員 民政二十五、政友中島派一四、政友久原派一〇、社會大衆黨五 時局同志會四、第一三、政友中立二、計六三

◆決算請案兩委員 民政一八、政友中島派一〇、政友久原派七、社大四、時局同志會三、第一二、政友中立一、計四五

◆建議懲罰兩委員 民政十一、政友中島派六、政友久原派四、社大二、時局同志會二、第一、政友中立一、計二十七

廿四日의兩院

【東京電話同盟】

◆貴族院은休息

◆衆議院은 午前十時 本會議를 열고 議場에參集하여 먼저 田子新副議長의 就任人事、年長議員의 副議長辭任의 挨拶가 잇슨後 年長議員의 主持로 常任委員의 抽籤、各部長及理事의 互選을한後 그結果를報告、議長으로부터 衆議院의 成立을 政府及貴族院에 通告한다

衆議院各派發言順位

【東京電話同盟】衆議院에서는二十三日의各派交涉會에서 同日正午現在 議員數에對比하여 그發言順位를民、政、民、政、民、政、民、時、政으로決定하엿다 그리고 政友會의 發言順位에 잇서서는 그때마다 中島久原兩者間에서協議한後에決定하기로되엇다

蘇聯軍戰死傷
八千八百餘
芬遺棄死體二千(蘇軍發表)

【莫斯科二十三日發同盟】레닌그라드軍管區司令部는 過去三週間에亘한 蘇芬戰爭의戰果를 如左히 發表하엿다

一、芬蘭軍의 捕虜數 士官一八〇 下士官一〇五 兵二三〇二

一、武器鹵獲數 大砲三五門 機關銃三〇〇 小銃三〇〇 迫擊砲二一 手榴彈二三〇 裝甲車七

一、蘇聯軍死者 一、八七三 負傷者 七、〇〇〇

一、芬蘭軍의遺棄死體 二、二〇〇

傅作義軍潰滅
追擊戰에敵은右往左往

【包頭二十三日發同盟】包頭附近의 傅作義殲滅戰에서 하라멘(包頭西北二十三킬로)附近의 敵은我軍에게追擊되어 右往左往混亂으로 一發의射擊도하지못하고 我方의彈丸은 敵에命中되어 이를殲滅시켯다 二十三日正午까지에 判明된戰果는 如左하다 追擊戰이急하엿기때문에 遺棄兵器를收容할餘暇도업서 實數는더욱 倍加할模樣인데 遺棄死體三千 死馬一千 捕虜六十五 鹵獲品山砲一四、同彈藥三九二 迫擊砲二 同彈藥五〇 小砲二〇〇

【包頭二十三日發同盟】包頭〇〇部隊二十三日午後一時發表 目下五原平地에 籠居하고잇는 傅作義는 日本軍의 五原攻略을極度로 警戒하고잇섯는데 이를防禦하려면 日軍의 後方을 攪亂할밧게업다하여 十二月十五日 傅作義自身이 主力을 指揮하고 五原을出發하여 第三十一師長孫蘭峰 第三十二師長袁慶榮 第百一師長董其武 新編第六旅長王子修의一部 五臨警備旅長徐子珍一部等 合計約一千으로써 包頭方面에 近接하여왓스므로 我〇〇部隊는 二十日 陽及安北部隊로써 그退路를遮斷하여 北方脫出을막고 二十一日부터 主力을모아 包頭北方地區로부터 大大的攻勢에나와 二十二日에는 特히裝甲自動車를出動시키고 다시飛行機도參加하여 包頭南北方에 大殲滅戰을展開하여 敵主力을完全히 殲滅시켯다

龍雲中央軍進駐拒否

【香港二十三日發同盟】重慶政府로부터 今月二十一日附로써 新 雲南省主任으로 任命된 龍雲은 二十三日遂히 [illegible]以下中央軍의 雲南入省을 拒否하여 [illegible] 結果 龍雲의新職은 어떠한 [illegible]하다하여도 中央軍의 雲南省駐屯及雲南軍의 廣西移動은 어디까지든지 拒否하기로 決定하고 右決定에따라 龍雲은 重慶에對하여 如左히 通告하엿다

軍事는 武人이니와 本來의職責이므로 行營主任의 職責에 任하는것은 敢히 拒否하는者는아니나 雲南軍三個師團을 廣西에 派遣한다는것은 省內勢力의 搬空함에 비추어 遺憾이나마 命令을바를수업다 交戰開始以來 雲南은 이미動員十五萬에 達하여 省財政은多額의軍費支辨을負하여 危殆에 瀕하고잇서 省民은 敏銳의苦勞를맛고잇다는것을 留意하여주어야한다

그리고 龍雲은 漢[illegible]防總司令陳誠에 對하여도 目下雲南、貴州省境地方에 集結中인 中央軍은 雲南中部를 通過하여 南下시켜 西江上流古江에 따라 廣西省西部로進駐하라고電請하엿다

敵據點占領

【南昌二十三日松尾同盟特派員發】敵五十七、八兩師의 據點砂古嶺(高安東北十二키로)에 猛進中의落合、田中、長村、齊藤各部隊는 山險을利하여 頑强히抵抗하는敵에 徹底的打擊을주고 二十二日午後四時二十五分 完全히 이를占領하엿다 敵은目下我急追에어찌할바를모르고 死體八百餘를 遺棄하고 高安北方으로 潰走中이다

江西反擊敵潰走
敵遺棄死體三千餘

【南昌二十三日發同盟】江西冬季攻勢의敵은 二十二日夜來 各戰線에亘하여 [illegible]潰走中인데 二十三日 午前十時까지 判明된敵의 遺棄死體는 三千五百餘 鹵獲兵器小銃五百 機銃二百 彈藥多數에 達한다

海鷲南中北支猛爆

【上海二十三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後四時發表

北支方面戰況

一、海軍航空部隊는 지난二十一日 日來陽(山東半島中部)附近에蠢動하고잇던 敵部隊를 連續二回에亘하여猛爆 이에多大한損害를주엇다

中支方面戰況

一、지난二十一日海軍航空部隊는 南昌及高安附近殘敵掃蕩에 從事하여 上琮湖、祥符觀에서 敵集團及軍事施設에 對하여 損害를 주엇다

南支方面戰況

一、二十二日海軍航空部隊는 衡陽飛行場을 急襲하여 同周邊의附屬軍事 建物群을猛爆、그大部分을 破壞하엿는데 그中二個所를 炎燒시키고 他有力部隊는 同日午後二回에亘하여 漢水上流多寶灣(湖北省)의敵據點을 攻擊하여 爆碎하엿다

一、海軍航空部隊는 지난十七日 儋縣(海南島)東方敵據點을 急襲하여 이를占領하엿는데 敵遺棄死體一八〇、若干의兵器彈藥鹵獲 我方은戰死一

一、海軍航空部隊는 지난二十一日海南島東部六連嶺高地에 蟠居하는敵을爆擊하엿는데 兵營十數棟을潰滅시켯다

棉花綿糸最高價
商工省에서決定發表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來二十六日附官報로써 告示即日實施되는 棉花綿絲及國用綿絲의最高販賣價格을 二十三日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一、棉花

米棉 十二月渡七十二圓二十五錢 一月渡七十四圓二十五錢、二月渡七十六圓、基準綿育 三月限 大引十仙八八 五포인트變動時마다 一파운드에對하여二十五錢

二、綿絲

가、單絲

銘柄	十二月渡	一月渡	二月渡
八番手未滿	二七九、〇〇	二七九、〇〇	二七九、〇〇
九同	二八五、〇〇	二八五、〇〇	二八五、〇〇
十六同	二九四、〇〇	二九三、五〇	二九六、五〇
二十同	三〇五、〇〇	三〇七、〇〇	三〇九、〇〇
三十同	三三〇、五〇	三三七、五〇	三四四、〇〇
四十同	三五六、〇〇	三六〇、〇〇	三六五、五〇

나、撚絲

銘柄	十二月渡	一月渡	二月渡
二十同	三三三、五〇	三四〇、五〇	三四七、〇〇
二十二同	三五四、〇〇	三六一、五〇	三六八、〇〇
四十二同	三八八、五〇	三九五、〇〇	四〇一、五〇
四十四同	三九〇、五〇	四〇〇、〇〇	四〇六、五〇

十포인트變動時마다 一梱에對하여 十番手以下의큰것은一圓 其他一圓五十錢

三、國用綿絲 (重量三割以上의人纖을 混紡한것)

가、單絲

銘柄			
十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六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十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十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十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나、撚絲

銘柄			
四十二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人纖百封度 六十六圓七十五錢 米棉十포인트變動時마다 一梱에 對하여一圓

二十五變動時마다 一梱에對하여五圓

重慶에大衝擊
日米關係好轉에失望

【香港二十三日發同盟】今日重慶에는 모두第四次野村그루會談 [illegible] 日米通商 [illegible] 米國側에 [illegible] 重慶으로서는 [illegible] 米國의對支援助擴大에 [illegible] 그抗戰陣容 [illegible]

一割關稅免除模樣

【華盛頓二十二日發同盟】하리스財務省關稅局長은 二十二日記者團에對하여 一月二十六日의 日米通商條約失效後도日本品에一割의差別關稅는賦課치안는다고言明하엿는데 그理由는 如左하다 一八七二年의 그란드大統領의 布告에依하여 一月二十六日의 日米通商條約失效後도 日本品은 一割의 差別關稅를 一時 免除하게될것이다 그法律的根據는 大體如左하다 即、米國議會는一八二八年에 外國船에依한 輸入品에對하여 一割의差別關稅를賦課하는 法律을制定하엿스나 現在日本은 右法律의適用에서 除外되엿다 이리하여 來一月二十六日 日米通商條約의失效에依하여 一八二八年의法律이 日本品에適用되게될터이나 財務省에서 各種의紀錄을調査한結果 一八七二年의 그란드大統領의 布告에는 日本品에 一割의 關稅를 免除한것이 判明되엿다

米、各種新條約締結

【華盛頓二十二日發同盟】米國 [illegible] 二十二日特히日本에 [illegible] 新條約 [illegible] 一八七二年의 그란드大統 [illegible]

一洋東韻產
ニッサン洗濯石鹼
ニッサン洗剤
ニッサン化粧石鹼
日本油脂株式會社

今日朝刊八面
廣告

本社直通
廣告部 電本四〇三〇番
販賣部 電本六三八一番

ニキビ 여드름
吹出物 あぶら顏 色白に
藥草의精分을그대로살려서우리들의얼굴을 직히는美顏劑유끼와리밍입니다。
五十錢・一圓
데파ー트、藥店、化粧品店에有함
顏劑 ユキワリソ
東京 原澤合名會社

赤ちやんがマルマル肥る
애기가토실토실살찌는
ビオスメール
비오스메ー루
애기와 重湯
牛乳와가루밀크에 オスメール(粉末重湯)을 添加하야榮養을노퍼서애기들에게 주면쑥쑥元氣잇게자람니다
包裝(1/2封度)一〇〇瓦
東京 和光堂 大阪

無代進呈
實物縮寫

大特價 一圓六十錢
大景品『朝鮮日報』愛讀者라明記하야『これは便利』辭典普及大宣傳을爲하야上掲한特別大景品을一個씩無代進呈
字くづし辭典
慰問手紙文集
東京・中野・小瀧町 積文堂特賣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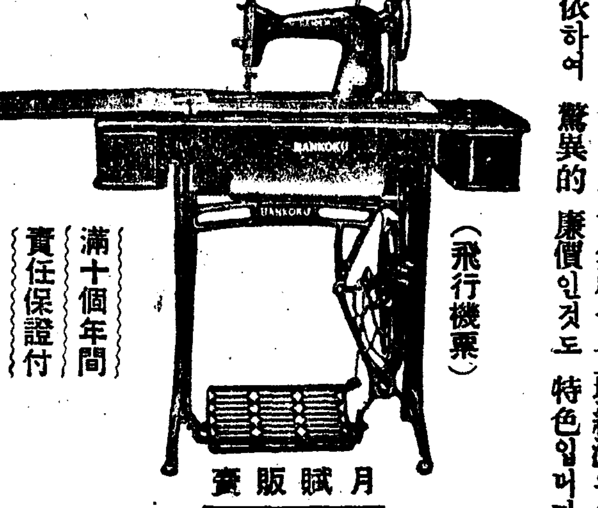
日本一完備한便紙大寶典
便紙에關한것은무어던지안다
特別景品付大特賣!!
組合한式과新案辭典式의長所를採擇한新時代에適合한新講義를한無比의名著

手紙 書時 これは便利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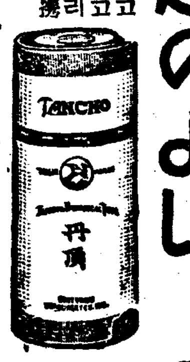
學生募集
舊名 滿洲自動車學校
改稱 滿洲自動車專門學院
每月一日新學期開始

商標 千 고추가루 都靑
金千壽商店製粉部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外國品을凌駕하는
純國產 バンコクミシン
バンコクミシン은 從來의國產品과는 判異한『科學日本』의 機械工業과 精密工學의 精華로 자랑하는 堅固無比、無音輕快等 世界的 創製 高級品으로서 特히 多量生產과 工場經濟의合理化에依하여 驚異的 廉價인것도 特色입니다

バンコクミシン時代

(飛行機票)
滿十個年間 責任保證付
月賦販賣

製造發賣元
合資會社 萬國ミシン製作所
平壤府倉田里二七
電話 四五四七番
振替平壤一七八三番
地方特約分店募集

お正月の目出たい和髪に洋髪に縁起のよい
丹頂チック
파리ー製보다나은 國產最高基準品

純植物性 專賣特許
金鶴香水株式會社製品

咸南痘瘡依然猛威
新患、爆發的으로續出
西龜總督府衛生課長과緒方防疫課長이現地에出動하여
防疫本部督勵에全力中!

【咸興支社電話】함남지방의 두창은 당국의필사적 방역진에도 불구하고 계속창궐하야 이십일 이양일모다 열여섯명씩의 새환자를내엇다 이로서 이십일일현재환자수누계는 삼백십칠명에 달하는데 이때까지 전치된사람이 구십삼명 죽은사람이팔십칠명이고 아즉도신음하고잇는사람이 일백삼십구명에달하는상태이다 경무국에서는 서구(西龜)위생과장과 서방(緒方)방역과장이 현지에출장하여 함남도경찰부를독려하고잇다 도의경찰에서는 이십삼일부터 경성(京城)출신 경성등세경거 장을중심으로 한남부지방에서오 논존생중 종두주사를 가지지 간호사람에게는 전부종두를시행하여 방역에만전을 기하고잇다

府內三個所에서 種痘施行

저간 경성부내에서발견된 세명의 천연두환자는 전부함남북에서 들어온것이판명되엇스므로 방역에 전력을다하고잇는 경기 ……

自轉車窃盜犯

【沙里院】사리원경찰서에서는 언시 도라다니든송원수(宋元洙)란자로 그는평남내무리(東里)에잇는 요리점중앙누(東萊樓)의자전차한대를 훔처가다가 경계중의 이복(伊福)부장에게체포되엇다

구중못고出家한 딸을차자주

부내 명동정(平洞町) …… 지 원정자(原田順子)라는 파부는 이십일일오전 서대문서를 차저와서 의탁「시즈」(…)를 저달라고 눈물의 호소를하엿는 데 이「시즈」는 지난십오일 어머니가 꾸중을하엿더니 나가버린것이라고한다

前稅務署長等 贈收賄事件公判開廷

…… 양주(楊州)세무서장 좌좌목전(佐佐木田)…… 판결에따라 ……

河東에火災

【河東】지난이십일오후다섯시경 하동읍 상설시장에서 발화하여 …… 소방대의 노력으로 …… 근에 연소한 ……

國防獻金萬圓 義捐金三千圓
白樂勝氏特志

이사장 …… 백락승(白樂勝)씨는 …… 국방헌금일만원 ……

故鄕가는즐거움
學生의歸省列車도運轉開始
京城驛

고향의 그리움이크면 크수록 고향의 그리운 재지의 고달픔 이세로다. …… 요즘의 경성역은 설움의 려 고향을찾는이로 매일가치 사람, 사람, 사람의물시경이다 한둘장차 이 사만명 이 이만하면 근래업는 기록이라고한다 게다가 이십 삼일부터는 학생귀성열차 가운데에 고향가는 학생 까지겹처서 경성역은 터질 듯한 혼란에 휘사혓다 삼 등대합실은 치척하고 어수 선하다 수만명여객의입김으로 시전에 공기는 흐릿하고 ……

…… 차시간은 아직멀엇것만 벌 써 개찰구압에는 시각이급 한마음에 두줄세줄씩느러섯 다한시간이 반시간으로 반시 간이 이십분으로 줄어들면 줄의기리와 봇피는 그와반 대로 불어가고 사람마다약 조업시 벼에걸린시게만보고 어난다 이리하여 고향잇는 사람의 기쁨을 가득 가득 히 실은 연말열차는 북으로 남으로 기적소리도 우렁차 게떠난다. ……

「지금부터 여덟시발 ○○ 행열차의 개찰을시작하겟습 니다」역원의 외침이 걸려잇 는 화성기나팔통에서 우러 나오는 이한마디말은 수만 흔 여객들의 지리한줄을 수월하게도 한결가치 씻처 버리고 새로운어수선함이일 어나다 이리하여 고향잇는 사람의 기쁨을 가득 가득 ……

그러면 요즘 경성역의활 기의 수송진은 어떠한가? 일원 하로도착하는 화물의 총수량을보면 삼천오백톤, 화차로 이백열차 이만 평가까운 화물계마당과 고에는 발도뎌밀틈도 업 스리만치 짐짝이드러찻다 눈에 띄느니 짐짝의 노 적가리다 그사이를 회류하 다니는 사람의 그림자는화 물에 위압되어 보잘것업는 …… 다음으로걸어내는화물은? (사진은어제저녁경성역에서)

세멘트公定價發表
各道地域別、生産者販賣價格과都賣價格等
配給統制로需給圓滑도圖謀

현재 조선의세멘트 판매가격은 고르지못하므로 세멘트공장의생산원가등을 참작하여 조선안각지의 가격규정을 도모하는동시에 한편이배급통제의 실시를기다리어 생산의 확충과함께 각종 중요기업의 기초재료인세멘트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메즈가격을 결정하고 이십사일제일류가전문위원회의 답신으로서 발표되엇는데 경기도에서의 가격은 다음과가타다

地域	生産者販賣價格	都賣價格
麟峴、土城間	一圓三六	一圓四五
開城、水色間	一、四〇	一、四九
新村、京城間	一、四四	一、五三
京城、單浦間	一、四四	一、五三
水原、平澤間	一、五一	一、六〇
龍山、唐人里間	一、四四	一、五三
南京城、梧柳洞間	一、四四	一、五三
素砂、仁川間	一、四一	一、五〇
京城、倉洞間	一、四四	一、五三
議政府、漣川間	一、四〇	一、四九
忘憂、楊平間	一、五一	一、六〇

(포르트란드세멘트는 오십킬로 종이포대한개에 일원육십팔전)

그런데 이가격은 경성부대서의 가격이고 지방에서는 그특수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히 도지사가 갈을정할수잇스며 이가격은 판매점에서 넘기는 값인동시에 현장까지 갓다가줄경우에는 운임실비를 바들수가잇는것이다

스·프公定價格
物價委員會答申대로

스테ー플·파이버ー와 인조견사는 종내지에서 공급을바다실은 종내지에서 공급을바다조선안 공장에서 쓰고잇섯스나 요사이 종연방적회사 평양공장 (鐘紡平壤工場)과대일본방적회사 청진공장(日紡淸津工場)에서 만들기시작하엿스므로 총독부에서도 그값을 일정히하여 배급을 원활하게할 필요를인정하고 이십이일 제일부가전문위원회를소집하고 내지의 공정가격에 준하여 만든최고판매가격안을 부의하여 가결되엇스므로 이십삼일의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답신안으로 정식결정되엇스므로 동일 전부다음과가치 발표하엿다

◇朝鮮産스테플·파이버最高販賣價格

原料로하는스테플 파이버의生産者工場渡價格

(一)格上品은二圓上、格落品은三圓下로함

朝鮮産人造絹絲最高販賣價格

一、人造絹絲生産者販賣價格(單位百封度)

	一等級品(1)	二等級品(2)	三等級品(3)	四等級品(格外)	五等級品(格外)
비스코(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비스코(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 테니ー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九圓二〇(單位百封度)

備考 (一)右揭價格은木……

中央、地方에組合結成
雜穀配給圓滑圖謀
明廿五日各道農務課長會議召集諸般要件協議

식량수급의 만전책을강구하고잇는 총독부에서는 지난달십일쌀값발표와동시에 오원칠십전을 시장에만히나오기를꾀한후 동이십일에는 보리, 쌀보리, 조, 콩 등 잡곡의 도매가격을 당시갑보다 훨신 싸게공정하여 잡곡이만히먹혀 쌀의소비절약이 되게하는동시에 …… 하고자 조선쌀 일백오십만석을 이출하기로되고 그대신 잡곡삼백만석을 내지와 만주에서 디려오기로 결정되엇스므로 마곡의출회를 원활하게하고 잡곡의공정가격을 엄중히 실행할것은 아프로의 식량수급책에 하겨더 필요하게 되엇스므로 농림국에서는 …… 을 준비하며 잡곡에 관하여서는 중앙과 지방에 배급조합(配給組合)을 만들어 원활한 배급을 도모하는동 가진 노력을다하고잇는 중이므로 각도에도중앙당국의 제반시책을 철저히할 필요가 이스므로 이십오일 아침부터 당지경단원 ……

곡과잡곡배급 잡곡공정가격」에 관한협의를 하기로되엇다

豐川年末警戒

【豐川】황해도풍천에서는 지난 십일부터 당지경방단원 이 총동하여 ……

養正럭비ー
昨夜、戰地向發

明春 一月二日부터 甲子園球場에서열리는 第二十二回全日本中等럭비ー大會에出場하는 養正中學럭비ー부는 昨廿三日午後十一時十分 京城驛發列車로 晉國하엿는데 全員의顔面에는 ……

多期鍛鍊體操講習
二百五十名이參加

朝鮮體育振興會主催의 冬期鍛鍊體操講習會는 二十五日午前九時부터 京師講堂에서 開催될터인데 參加者는各道에서의小、中學敎員二百五十餘名에達하는 ……

가넘전흐르고잇섯다 部長及柱씨는 다음과가튼抱負를말한다 昨年의大會에 決勝戰에서 秋田工業에게 익지못할「트라이」差로 울러서던 그때를回想하여 이번은全員이 必勝을 期하고잇습니다 第一戰에 樂德中學과 對戰할터인데 첫재임에는 無難히 勝利할것을自信합니다만은 決勝戰에는 全力을기우려 期待에 어그러짐이업도록하 호겟습니다

根本的缺陷은運營制

…… 京大聯盟……에서는東 …… 對하여 ……

偽造五圓紙幣
平北地方에盛行
新義州와博川에서發見

【平北支社】신의주조선은행지점에서 최근위조한 지폐중에오원짜리 위조지폐가 잇는것을등 행원이 발견하고 직시신의주서에보고하여 왓스므로 평북경찰부에서는 즉시경을 국비밀히 엄탐중이며 시일을가지하여 박천(博川)지산은행지점에서도 취급한 현금중에 역시가튼오원의 조지폐가 발견되어 동일인조지폐의 유통은 상당히오랜것으로 인정되고잇다 이지폐는 진짜지폐보다는 조금 자그나 대보아야알 정도로 인쇄는 극히 선명하므로 얼른보아서는아라내기가 어려울만치 정교하여 인쇄에 능한 기술자의 범행으로 단정하고 동경찰부에서는각지에 수배하고 인쇄기술자를조사중이다

專賣女工美擧
慰問煙草醵出

경성지방전매국의주공장에서 는 이제까지 전여공이 협심하 여 각급 국방헌금 흠은 장병 위문금을모앗고 금번말상여때에 …… 하게 돈들이가고잇다는것을 집작케하고잇다

飮食業者暴利로
長項邑民不平

【長項】장항은 신설도시요 출장가지의소비가 비교적 타지방보다 심한한데 금번에는 음식점의 요정은 그다지 경기가 조치못한하여 가격노동집에는 주야만원으로 복잡하다는데 요지음와서는 호경기에따라 음식점에서 바싸게밧는한편 손님 대접이 불친절하므로 일반의 불평이 …… 당국이나 조합당국의 철저한취체가잇기를 바란다고한다

朝鮮映畵令
二三日 中發布

조선영화도 문화입법(文化立法)으로서 따가벼면에서 주목되어 잇던 조선영화령(朝鮮映畵令)에 대하여서는 경무국으로부터 정수(井手)사무관이 동경에건너가 법제국과 절충중이더니 쉽이 못내고 이십이일 각의에 부의 하여 정식으로 결정되어 이삼 일중에 공포되게되었다 그런데 이법령의내용은내지에 서시행중인 영화령과 거의가튼 데 총독부로서는 이번칙시하기 로 일반적으로 영화계에 대하여 조선영화계의 특수사정을감안하 어 영화국민 …… 본질적인 선전개발 보다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오 락본위의 영화에서 조흔 영화 를 …… 엇게하리라

新醫博 柳錫夏氏

오게되엇다 소씨의주인은 현재 평양천매국병원(平壤專賣局病院)원장 유석하(柳錫夏)씨로서 소화육년에 성대(城大)의학부를 나와가지고 이래로 이대 동원에 …… 가 다시 압정(狎井)내과에서 연구한 일이 평양에부임 하여 이번에 경성대학교 수회에 제출해서 통과된 학위논 문은 「폐장(肺臟)과 식염대사(食鹽代謝)」이어서 폐병리론에대한 연구라한다 (사진은 유석하씨)

돈"벼"라"맛"는"映"畵"館"
例年보다入場者十萬名增加
흔한것이돈!眞料品、日用品商도벙글벙글

본정서경찰관에서는 그리며 이 일용영화단 네곳의는각 한관의 본정좋 세일농소매상을 통하여 자숙세말(自肅歲末)의 상황을 조사하려고 십이월일일부터 동이십일까지의 매상고를 조사하여본바 예년에비하여 영화관은 십만인의입장증가와 사만여원의 수입이 늘엇스며 식료품시장은 네군데것을합처서 이만오천원이 늘엇스며 일용품 소매상은 세군데서 약일만칠천원이 여원이 늘엇다 ……

日曜講話

◇精神 第一講座 午前十一時 ……
◇天然 …… 午前十一時 …… 氏
◇三河 …… 午前十一時 …… 氏
◇川崎 …… 午前十一時 申新視 氏
◇川大和町 午前十時 申新視 氏

今日…天氣…西風晴雲

運動界人事·集合

◇方仏斗君(基督靑年指導員) 明夜…의結婚式은 二十六日午後一時에 朝鮮聯合會館에서
◇京城府體育協會主催 府民氷上競技大會를開場式은 午前十時부터 漢江…前綜合氷場에서擧行

急慢性淋疾에
急·慢性淋疾로 苦生한 體驗者가 双手를드러推奬하는純國産으루 폰아미드劑를다시여러분께勸합니다
세파지ー부用法은 非常히簡單하야 一日三回(一一錠)식 食後물로 …… 하고 小兒에는 二分之一 …… 四分之一 ……
그리고 多角的인 適應症은 左記의病名에 對하야特効가잇습니다.
中耳炎·扁桃腺炎 産褥熱·肺炎 …… 敗血症·膀胱炎
세파지ー부는 全然副作用이업스므로安心하시고服用할수잇습니다 그리고短期間에止痛止膿의効果를내므로驚異的化學治淋劑입니다!!
定價 二〇錠 一、一〇 一〇〇錠 五、〇〇
세파지ー부錠
日本藥品株式會社 東京市芝區田村町一ノ四
朝鮮特約店 新井藥房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 新井藥房 …… / 新井藥房 ……

IKURA
弱体强化
積極的强壯劑
ビクラ 비구라
適應症 心身의過勞、神經衰弱、食慾不振、結核、肋膜炎、腺病質、重病後及手術後의恢復期、新陳代謝障碍、榮養障碍、精力減退、四肢冷感等。
ビクラ는液劑並今回新發賣의錠劑의二種有함·全身의神經系統을强化하고 食慾을旺盛케해서榮養을補給하며貧血을고치고精力을增强하여病弱을一掃함. 一般身體狀態의改善에極히有効한强壯劑이다
(シロップ狀液劑) 一五〇瓦 二圓五〇錢 / 一五〇入 七圓八〇錢
Futab Brand
岡山市紙屋町 製造發賣元 株式會社 林源十郎商店
全鮮有名藥店에販賣함
VK36

新出現 三十年絶對保證
ウラク ミシン
總發賣元 天下一品 堅固無比
送料十錢添付하시면各規定呈 進呈
有給分店大募集 有給駐在外務員募集
平壤府景昌里九二 大洋ミシン商工社 電話五〇二四番·振替平壤一五六八 工場 開城府社稷町

感冒解熱特効薬
胃腸障害其他副作用絶無
熱이다기침이다!!
感氣라고알엇거든卽時本劑를!中毒副作用업고、快速히解熱하야治療되게합니다!
定價 一回分 三錢 …… 三回五圓
感冒解熱特効藥 實効散
東京·神田明神下 本舖 師岡天然堂
振替東京一三七二一

工業都市興南의躍進譜

寒村에不過하던興南 今日엔一躍大工都

朝窒工場新設과함께漸次工都를形成 人口로도全朝鮮의第五位

興南은 元始 咸州郡雲田面의一部로서 距今 十三年前까지만해도 半農半漁로 生業을 삼는戶數略 六百五十戶 人口겨우 九百人에 지나지못하는 一個寂寞한寒村이엇든것이다。그러든것이 昭和二年五月 여기에 朝鮮窒素株式會社의肥料工場이 設置되면서부터 俄然活潑한 發展을보이어 昭和五年度에 이르러서는 벌써雲田面으로부터 十一個里를 떼여내어 새로히興南面을 設置하게되엇섯다 그러나날개 돋친듯 부쩍부쩍 늘어가는 興南은 한해가겨우 될락말락하는 동안에 벌써 面으로의體裁로는 世間에서도 俄然할수 업슬만치되어 그 이듬해인 昭和六年十一月一日엔 邑制의 實施를보게되여 그超速度的 눈부시는 發展이 世人의 耳目을끌으켯든것이다。從來 朝窒工場의擴張擴充과 同社傍系會社의 大工場建設이 서로꼬리를물고 일어나는등에 人口는 洪水가치밀리고 樣樣의工事가지 더욱完然히朝鮮의 만체스터、朝鮮有數의一大工業王國의 出現을보게 된것인데 여기에다시昭和九年長津江水電會社의 發電開始와함께 隣接地인 雲南面本宮一帶에 巨大한 朝窒系工場의新設을 보게되자 兩地의關係는 더욱緊密의度를加하게되엇든것이다。드디어 昭和十二年四月一日 行政區域을 擴張하고 雲南面의 十七個里를分離編入하엿고 다시昭和十四年四月一日엔 西湖津을 비롯하여西湖面 十六個里를여기에 合倂시키고보니 面積은 무릇七〇、二五七平方粁 人口는約 九萬餘로咸南第一은 勿論이오 全朝鮮的으로도 大邱에버금가는 第五位를 차지하게 되엇다 어떠하든大興南의 飛躍的發展狀態를 엿보기에 足하다할것이다。그리고 또西湖와의 合倂은 朝鮮第一의 工都 興南으로하여금 朝鮮第一의 漁港으로의地位까지 兼하게하엿스니 이는可謂 錦上添花라 新興都市 大興南의 偉容이 또한놀 만하지안흔가。不過 十五年間의 驚可한歷史로 今日의繁華를 이루엇다면 이는 朝鮮都市發達史上에 一大驚異的記錄일에 틀림업슬것이다 어로미루어보더라도 不遠한將來에 平壤、釜山等 古都를제치고 大京城으로더불러 雌雄을 決할時機가 오지안흐리라고 누가壯談하랴。하물며 今次事變을 契機로하여 朝鮮의 兵站基地로서의 重大性이 날로高調되어가는 今日에 잇서서랴。그러므로興南의 眞實한面目은 아직도 우히려 明日에차즘이 安當타하리로다。

商工都市興南의 將來는飛躍約束

興南商工會副會長 崔周星氏 談

相當히 豪華로운 事務室이다 두둑한 大理石交卓이 장이시언한感을준다 特號大의 金庫가泰然히 威風을 代身하는듯내게는 多少壓迫感을주어 저윽이 不平이다 室內面積이 무릇 四十餘坪 回轉椅子에 잘휘걸치고 自若히 안즌 젊은主人公을 바라보며 나는속으로 個人으로서 이러케 豪華로운 事務室을가진 이가 咸興에 또잇슬까하고 自問해보는것이다 나를 村놈이라 하지마라 이것은 分明코 한개의 豪華로운 事務室임에 틀림업다 大泰盛商店의 風貌를 여기서도 자슬수잇는것이 기쁘다 장히 늠름하게 紙幣를 헤이고잇는 女店員으로부터 視線을 물리면서 나는 興南의화살을던저보기로한다。

記者 바뿌실텐데 未安합니다마는 暫間 듯고시픈 말슴이잇서서─。

崔 내게 듯고 시픈 말슴이 게시다요 어거 장이 경기는데요 하하하

記 아니 뭘 그리 켜질問題는 아니고 저─ 商工都市로서의 興南의 現在와 및將來에對하여 崔兄의 보시는바를 좀들려줍시사하고 차저온것입니다。

崔 그런걸 우리네가튼 一個精米業者가 알턱이 잇습니까 차라리 그런건 우리네보다도 局長이 더잘 아실問題가 아니여요?

記 허─ 이거 웨 이리십니까 내가 오늘 차자온것은 一個精米業者崔周星氏가 아니고서 어도 興南商工會副會長 崔周星氏라는것을 모르시는가보군요 공연히 그리시지말고 어서 말슴해주시지요。

崔 이거 큰일낫군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記 너무 謙遜마시고 어서말슴해주서요 자 그러면 따서 하나씩 뭇겟습니다 于先 工都興南의現在를 어떠케 보십니까。

崔 安壯한 氣勢라고 말할수잇겟지요 무엇보다도 統計表가 그것을 이야기하고잇스니까요 첫째 資本金 七千萬圓의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를 비롯해서 一百萬圓의 朝鮮窒素火藥株式會社 四百二十萬圓의 日本마그네슘金屬株式會社 그리고 本社는 비록 興南에잇지안타 하더래도 作業規模에 잇서서 安壯한偉力을 보이는 資本金二億圓의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本宮工場 五十萬圓의 日窒寶石株式會社興南工場 그다음엔 一千萬圓의 朝鮮鑛業開發株式會社興南製錬所等이 天機里로부터 本宮까지 無慮十五里사히를 서로 어깨를 맛겨누고 쭉늘어서 들어박혀잇스니 즉 그威勢가 于先 壓倒的이 아니어요? 그런데다가 事變을 契機로하여 이들 會社工場에서 每年 安壯한 利益을 보는貌樣이죠 工都興南의 現在야말로 文字그대로 豪華版이겟지오。

記 그러면 將來는 어떨까요。

崔 現在도 將來에 比한다면 한 조그마한出發에 지나지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記 아 그러케 發展할 餘地가 잇다는말슴인가요。

崔 암 그러치요 이제 不遠한 將來에 興南、咸興사히는 아주工場으로 채여지고말걸요 어찌하면 咸興平野一帶가 사뭇 굴뚝으로 채여질는지도모르지오。우리들이 咸興平野에서 東洋"만체스터"의幻影을 찾는것은 아주荒唐한짓만도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記 그건 大體 어떠한 見地에서 하시는말슴인가요

崔 今番 事變을契機로해서 朝鮮의 兵站基地로서의 地位가 크게 再認識되엇다는것은 이미常識인 模樣인데 兵站基地 朝鮮의心臟部는 亦是 興南、咸興一帶임에 틀림업스리라고 보는까닭이죠 그것은 咸中線의開通을 想定하면서 地圖를 내여노코본다면 얼른짐작할수 잇는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미차호設備로만 하더래도 斷然 他地方의追隨를 許치안는다고할수잇지안허요? 何如튼 朝鮮의 本格的兵站基地化와함께 化學工場地帶興南의將來는 크게求索거리라고잇읍니다。

記 그럴듯한 觀察이신데요

崔 그러나 이건 다내空想이지요 實아제일을 알者가 누구겟읍니까

記 그러면 商業都市로서의 興南은 어떠케보십니까。

崔 比較的 劣勢하다하겟지요 그도 그럴거시 興南은 本是工業都市로서 商業은 이의副次的으로따라오게된것이니까요 朝鮮第一의 工都라하여 곳朝鮮第一의商都가 되라는法은 업슬테죠 이러케말한대서 興南의商業은 아주보잘것이 업다는듯이 아니라 工業興南의 威勢에 比한다면 商業方面은 足히자랑할바가 못된다는 이를테면 對照的意味에서 하는이야깁니다。

記 商街가 大體로 뷔여보이더군요

崔 年條가 얼스니까요 그러고 너무附屬的이어서 獨立的商業을 缺하고잇는것이 事實이지오。

記 그러면 商業興南의 前途는

崔 勿論 크게 洋洋하지오。

記 웨 그럴까요

崔 明之日 商工業이라고하지안허요 商業과工業 工業과商業은 於實 떠날수업는 關係를 가지고 잇는것이지오。그런데 나날이 커가는 工業興南의 大를 豫想하게될것도 勿論이아니겟습니까。그러데다가 또 이제 咸中線이 開通되고 商港으로의 港灣의 完成을 보는날이면 興南의商業은 只今까지의 會社에의隷屬的地位를떠나 獨自의 境地를 開拓할수도 잇슬테지오。漁港西湖津의 合倂에依하여 商業興南의面目은 벌써 새로운色調를 띠엇다고보는데 東興里로부터 西湖津에 連해서 一大都市의形成을보는날이면 또 이地方商業이 多角多彩한 要因을 가추엇스니만큼 商業興南의將來는 工業興南의 그것만은 못하다할지라도 全朝鮮的으로 가장 優秀한地位를 獲得하리라는것만은 짐작할수잇는일입니다。

記 그러면 商業興南의 將來도 大端히有望하구먼요。

崔 암 有望하다뿐이요 나는其實 大商都의出現을 조금도疑心하지안습니다 가추워스니까요 아마 條件으로본다면 朝鮮一이라고도 할만하지요。

記 그러면 崔兄은 朝鮮一의 大商業都市의 出現을 꿈꾸시겟군요。

崔 혹시 그럴는지도 모르죠。허허허──。

記 혹시興南商人에게 보낼말슴이 업습니까。

崔 「네 자리를 지켜라 힘에 비치우지안는限 積極的으로나아가라」이몃마디가잇슬뿐입니다。

記 바뿌신데 조흔말슴 만히들려주서서 大端感謝합니다。

待望의興南商事倉庫會社

興南一角에君臨

商界巨擘李鳳善氏를盟主로

全鮮一을 자랑하는 漁港興南에 잇서서 또는 商工都市로의 重要한 地位에 비치어 아직倉庫金融機關의 缺如를 보이고잇는 것은 이곳 經濟機構의한개의커다란 致命的缺陷으로 商界의健全한 發展을圖하여 자못遺憾할만한現象이엇다 그러므로 이漁港興南이 年復年擴張을 거듭할수록 倉庫金融機關의 出現을待望하는소리도 더욱노파잇든차 有能하고野心잇는 企業家로 이方面에 進出을 策謀하지안흔者 別로업섯다 그러나 原來가 너머큰事業이라 尋常凡流의미칠바아니므로 아직도處女境그대로 남어잇섯던것인데 이제 巨豪 李鳳善氏가 蹶然히일어나 移計를 내어노코 同志를무르니 咸興一帶의 一流實業家가 이에 呼應하여 民待望의倉庫金融機關은 이에出現을보게된것이다

資本金卅萬圓을 呼稱하는 興南商事倉庫株式會社는 興南實業界의 權威 李鳳善氏를 盟主로하여 一騎當千의 一流實業家로 結成되니만큼 創立은 비록 日淺하엿스나 그威力은 벌써 一般的이어서 一般의人氣는 高調될대로 高調되고잇다。

이會社의存立이야말로 消極的意味에서본다면 大興南의面目을 세워더한것이오 積極的意味에서본다면 商界特히 水産物商界는 이에依하여 一段의便益을 볼것이니 이곳우리들이 同會社의創設에 滿腔의祝意를 表하는同時에 그健全한發展을 빌어마지안는所以다。

이제暫間 그營業科目을 살펴보면 倉庫金融業을 主軸으로하고 그다음은 前日三榮商會의業務科目을 그대로 引受하엿스니 이른바 委託、運送、水産物加工 其他附隨事業이라한다。

이제또 그陣容을 살펴보면 取締役社長李鳳善 取締役金相庸 取締役朴承哲 取締役崔周星 監査役金基善 監査役車東恒 相談役崔遇鳳等堂堂한 面貌가아닌가 우리의 興南商事倉庫株式會社는 그人的資源에잇서서도 斷然大會社로의 貫錄을 遺憾업시 보엿다할것이다 一般의企待와 人氣가노픈도 또한무리나 當然한일이다 그런데 特히委託部에잇서서는 驊永金氏를 首班으로 元鳳官 金處燮等 一流活動家와技術家로 굳바 肯지어 大活躍을演하게하는것은 자못 注目에値하는事實이라하겟다。그리고 社長李鳳善氏는 日夜精勵 大小事에 無漏히腦裡하고잇다는것도 「興南商事」의 한큰자랑이아니면안될것이다。

(寫眞은 社長李鳳善氏)

漁港興南의現勢

青年漁業家魯憙煥氏 談

東海岸水産業界에 覇權가지나타나 一騎當千의慨勢로 萬丈의氣焰을吐하며 멀지안흔 앞날에 全朝鮮水産業界를向하여『여기에 한사람의 사나이가잇다』하고 웨칠 우리의 青年事業家 魯憙煥氏에게 漁港興南의 이모저모를 뭇는것은 자못 興味잇는일의하나이 아닐수업다。그리하여 興亞水産工業社로 氏를찾기는 十二月上旬어떤날 氏는 多忙한中에도 記者를 반겨마저주며 應接室로 인도한다。

『暫間 무러볼말슴이 잇서왓는데요。』하는 첫마디를 건느니『글세요、무슨말슴이신가요。』하고 선선히 待機의姿勢를 取한다

記『漁港으로본 興南의 現在와 未來에對하여 간단히 말슴해주섯스면……』

魯『그런問題야 先輩가만흔데나 가튼사람에게…』

『아니 千萬에。어서말슴해주시지요。』

漁港으로의 興南의 地位를어

「一이라는것은 다시말하면 全鮮的으로 第一이라는말도되겟습니다」

「하지 新浦나 元山도 아마이곳에 比하면 크게 떨어진다는것만은事實인데 大體무슨까닭으로 七八年前까지만해도 名도업던 이地方이 一躍東海岸第一의地位를 가지게되엇던가요」

「그야 무엇보다도 條件이조흔니까요 그들의 條件이란게 第一人이나 資本이나 또 한地方의 活動에 잇서서도 絶對의 威力을 가지고잇스니까요 가령 只今 滿洲의 大豆만 가지고보드라도 어느나라보다 有利한條件을 가지고잇는나라가업겟지요 하니까 그 好條件을 最大로利用하여 저렴한生産이 可能하고 有利한 地位를 取하고잇는게아닙니까。마찬가지로 興南(西湖津)도 원낙 여러가지條件이 조흐니까 不渉自成으로 저절로 커지게지오」

「大體 그條件이란 어떤겝니까 具體的으로말슴한다면……」

「于先 位置가 조치안허요 地理的으로보아 조금도 치우치지안코…… 그리고 興南앞바다로말하면 「오홋츠크」海를 스처오는寒流와 南支那海를거처오는暖流가 바로 마조치는곳이라고합니다 그래서 寒流에서사는明太魚가튼것도 겨울이면寒流를 따라 悠悠히 南行을하다가 興南近海에와서는 아래서 드려오는 暖流때문에 그만旅行을 中止하고 그러다고 곳 도라서기도 싫코하여 그만우물쭈물하다가 허허 저물이되는군요」하고 氏는 自己工場에서 올라온 見本品의 加工한 明太를가르키며 웃는다

「그래서 明太가 가장長期로滯留하는곳이 바로 앞바다라고합니다 마찬가지로 暖流에서사는 고기도 그러켓지오 거기에 또 風浪이比較的덜한까닭으로 놀기도조흐려고요。그러구또 海底에無數한 高價의貝類가棲息하고잇서

이야기를 독촉하엿다

「그리고 그다음은 廣大한消費地域을 끼고잇다는事實이지오 가까이로는 咸興을비롯하여 조금더려저서는 定平、洪原、新興長津이 모두우리의顧客이로구먼요。無盡藏으로나는生産을 亦是無制限으로 處分해주는곳이이땅의風俗이로군요。生産이만켓다 消費力은 그보다 더크겟다 이런好條件이 어데잇겟서요」

「元山도 消費는 조흔가보든군요 갈도大槪는 이곳과伯仲한가보는데요」

「그러나 勿論 消費力도 이곳에는 못따르지오마는 特히 元山은 出漁條件에잇서서 大端히 不利합니다。가령明太만하드래도 興南앞바다에서야 잡어가게되니까 여기서는 二、三時間이면 足히 出漁할수잇는데 元山서는 五、六時間이걸려야하니 이런체며가어데잇겟습니까 國策上으로본다면重油의節約도問題입니다」

「興南에 해마다 發動機船의入港數가 불는건 그때문이겟군요」

「그럿습니다。亦是 便利하니까요。今年은昨年보다도 더만하젓습니다。自然의 現象이겟지요」

「그러면 漁港興南의 將來를어떠케보십니까」

「現在의條件을 그대로가지고잇는限 將來는말할것도 업겟지오 再昨年이 다르고 昨年이 다르고또 今年이 다르지안허요? 이步調로 나간다면 將來는 宏壯할겝니다 더욱이 問題의 咸中線까지 開通이되는날이면 漁港興南의地位는 一層重要하게되겟지오」

「水産業者나 水産物商에게 或是要望하고시픈것이업습니까」

「글세요 나亦 水産業者의한사람이오、또水産物商의 한사람이니만큼 自過不知라고、뭐 別말할것이잇겟습니까마는、어쨋든 늘느껴지는것은 우리들의 企業行爲는 너무原始的이오、너무非科學的이 아니냐하는點입니다。現在까지는 그러한方面으로도 견디어왓습니다마는、아마 將來는 어려울겝지오。科學的方法을 無視한 企業이란 事實에잇슬수업스니까요。」

「좀더 具體的으로말슴한다면」

「가령 明太란놈을 가지고보드래도 只今까지의 處理方法은 기근해야 배를갈라서 橫에 걸어말려서 파는것인데 이리되고 보니 品質의 好不好는 技術에잇지아니하고 天氣에 잇게쯤되니 이러듯 製品過程에서 벌써投機的性質을 띈다는것도 우스운소리가 아니겟습니까 그리고 또 商品으로의 國際的性質은 조금도 못가지고보니 三南地方에災變만조금생겨도 적지안흔 打擊을입게되는판인데 이래가지고야 사뭇 소꿉질노름이지 무엇입니까 그리고또近年에 好成績을보이는 赤貝만하드래도 생걸로 궤짝에너허 東京까지보내는貌樣인데이건 도모지理解하기어려운 拙劣한方法입니다 좀더 버젓한商品을맨드러 내놋는다면 運賃에도 크게 利가될것이오 商品으로의 利潤도 나홀터인데 웨何必姑息的으로만 끌고나가는지 모르겟단말씀입니다」

「어쨋든 水産物의加工이로구먼요」

「그럿습니다 科學的技術의힘으로 商品價値를 도꾸자는 所謂 水産物의 加工인데 이게야말로 벌써常識的인 企業家의 着眼한지오래나 그러나 우리들에겐새로워진 領野라하겟습니다 이만한見識도업시 그저 덤벙거린다면 그야말로집신을신고 풋볼을 차겟다는 醜態이나 다름업지오 時代는벌써집신을신고 運動場에 나설때가아니니까요」

「至極히오른말슴이군요그래서댁에서는水産物加工場을두엇군요」

「네 그럿습니다 그건 내信念이니까요 販路의 國際的擴張을爲하면 亦是 現在와가튼 商品의 原始的狀態로서는 全然不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방 電話가오고 來客이찻고 하는통에 더오래붓들고 안젓슬수가업서 머리를숙여 謝意를表하고 事務室에도라오니 黑板에는『安東丸濃船』이라는 白墨價臉이 새로왓다

祝辭

長野副邑長

興南은 아마 世上사람이 가장 알고시퍼하는都市의 하나일것입니다。工都興南의 이름이 全東洋的이니까요。그런데 이都市의 面貌를 詳細히 그려 세상사람들의 궁금症을 풀어주는 것은 大端히 意味잇는일이라고 生覺합니다。이제 貴報에서 이多分히 文化的意義를 띄는貴重한 事業에 着手하여 훌륭히 成功하엿다는것은 크게慶賀할일입니다。『面貌』를가지고 여러사람앞에 나타나게 되엿지오 그리고 우리도 그如實한 興南의面貌를 客觀하게되는 反省과 參考의 材料가 되리라고 밋습니다。스사로 기뻐하고 貴報의 努力을 致賀하는同時에 祝辭를 代身합니다。

柳署長

貴報의 남다른 活躍에對해서는 일즉부터 敬意를 表하고잇는 즈음인데 이제또 興南地方紹介版을 刊行하여 그特殊한面貌를 세상에 알린다하시니 여기에서더 興南發展에 貢獻하는바 크다고 生覺합니다。重大한 時局에際會하여 言論報道機關의 任務는 더욱 重大하여진것은 勿論이니 最大의任務를 遂行하여 本地方發展에 貢獻하는바 크시기를 바라며 以上으로 簡單히 祝辭를表코저합니다。

興南商業界의花形

前途多望한青年實業家 "마루비루"帽子店主劉在根氏

興南의明朗한 現象의하나로꼽는 것은 青年實業家의 擡頭이다。

獨往千里의 氣勢로 他의追隨를 許치안는이가잇스니『マルビル』帽子店의劉在根氏가 그이다。

年紀이제겨우 二十五歲의 氏가興南商業界一角의雄으로 大興南의 實業舞臺를 活步하고잇는것은 이니 過히 唐突한 그러나넘어나慢快한진이 아닐수업다。氏의 年紀를보고 氏今日의 꼬지金을 生覺하면 모르는이들은 그의家庭的條件이 大端有利하엿슬것을 豫想할는지도 모른다。허나 事實은이와正히反對임을어찌하랴。氏는 原來咸興郡古寧面出生으로 三歲時에 家親을여이고 片母膝下에서 겨우 小學校를 卒業한後 向學의 불타는情熱도貧寒아메서는 꺼버리는수밧게 업서 講義錄으로 겨우 自習을삼엇을뿐이라한다。來興하기는 이제부터 九年前、처음四年間의苦鬪와 艱難이란 듯는이로하여금 眉를 저리게하는바잇스나、그야말로 忍苦持久 十轉八起의 억세인精神으로 一路邁進한 結果、드되어 艱難의 神도 이勇敢한 鬪士의精神에는 투구를 벗는수밧게 업섯든지 새로운 曙光이 氏의 앞에를 비추게되엇스니、때는 昭和九年 即『マルビル』帽子店을開始하게되든해부터라한다。開業以來 順風好調로 商勢는日進하고 好機도한 자저저 드되어 今日의 隆平한地盤을 構築함에 이르럿다하니、氏야말로立志傳中의人物이라고도할만하다。그런데 그보담더 前途에 興味와企待를 느끼게하는 것은 實業家에게 그러한 意味에서인것이 아닐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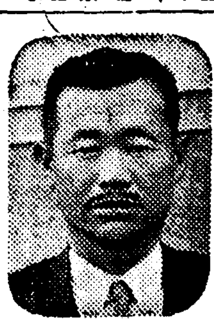
「將次 어떠한 計劃과 抱負를 가지고계십니까」하고 뭇엇더니、「別 抱負랄것 업습니다마는 수만잇다면 學校를하나 經營해보고십습니다。여기 對한 野心은 아니게아니라 相當하옵니다」文化、敎育方面에 남달리 興味와理解를가진 氏의말이라、이야말로 意味하는것으로 興味잇는 입에 틀림업다。

「이러케 돈을 모으셔서는 將次 어떠케 하시렵니까。」하니 言下에 氏는 거침업시 對答한다。

「하렵니다。敎育事業方面에……」故鄕에잇는 氏의母校를爲하여 이미數三百圓의寄附를 비롯하여 年前興南朝日小學校에도 莫大한 敎具費를 自進寄附한事實을 想起할때 그가룩한 마음씨에 저절로 머리가 숙어진다。氏의存在는實로 興南이 가진 最大의企待의 하나가 아니면 안될것이다。

精米業界의新銳

泰潾精米所 李泰潾氏



泰潾精米所라면 그歷史는 어제겨우 十個月을 넘지못하는이를테면 精米業界의 幼年兵이다。그럼에도不拘하고 同業界의諸家를 손쉽게 얻흐르고 斷然新興精米所로의 旺盛한意氣를 보임은어찌된탓일까 그러나 氏의人物과 經歷과 그리고 그卓越한手腕을 아는이는 조금도異常히 생각지안흐리라。

氏는 原來咸州郡上岐陽面上保里出生으로 興南에오기는 昭和四年 赤手에 다름업섯스니 生疎한異鄕사리가 多少 氏를괴롭혀줫슬것도 짐작하기에 어렵지안타 그러나 昭和六年 泰興精米所에 드러서면서부터 氏의 天分은 遺憾업시 發揮되기始作하엿스니 見機에 빠르고 商略에長하고 經理에多才한 氏는 泰興精米所今日의 基礎를 닥는데重要한役割을하게되엇든것이다。爾來近十年間 厚德한 崔鳳岐翁을 도아 泰興을지키다가 今年三月 報酬의配當金이 入手되는것을機會로 精米業界에 獨立進出을꾀하게되엇다。이리하여 생긴것이 泰潾精米所다。

主人公이 主人公이니만큼 經理에 무리가 잇슬리업고 泰潾精米所의 압날이 빗날것을 約束하는것으로一般의 企待가크다。

(寫眞은 李泰潾氏)

呼吸器病이만흔것은 工都興南의痼疾

保健에對하여 李寅穆氏 談

保健上으로본 興南의 實情말입니까 그야言語道斷이죠 勿論 重大問題지오 허나이것은 興南이란 原來工場을 中心으로하고 생겨난 都市니만큼 어都市가나면서부터 바더가지고온 한개의 宿命이라고도할수 잇겟지오 저 製錬所굴뚝을 現在보다 몃十倍 더노피고 工場에서 나오는 有毒까쓰를 바다속으로빼어버릴수잇대면 모르되 그러케까지는 不得할수업는것이 事實이라면 不得不우리는 이것을 興南이 타고난宿命이라고생각할수밧게업겟지오 아니그러케 解釋하실건 아니고 다만 이興南이란 發生的으로보아非保健地帶로의 條件을가지고잇다는 事實을 우리들은 正直하게 是認해두는것이 紳士的態度가 아니겟느냐말슴이죠 亦是呼吸器病입니다 死亡率이가장만키로는─그야 그럴박게 興南特有의 그異常한臭氣말입니다 그것은 마치香料가치 興南空氣를 물드리고잇스니까요 처음맛은 사람들이모두 질색을하는것 無理가아니지오 事故死亡率에 만키로도 아마 全朝鮮首位라는 名譽롭지못한記錄을가지고 잇지안흘까 生覺됩니다 어떤건 統計表를 손에너키가困難하니까 正確한건 모르지만 그리고도 원악空氣가나쁘니까自然 副次的으로 여러가지疾病이 생길수도 잇는일이겟지오 何如間 葬儀社가 相當한活躍을보이는것만은 事實인가보드군요 허허허……

약 무시무시한 곳이죠 허나 여기에 興南의 興南다운 魅力이 잇는지도 모르죠 探偵小說을 조하하는나말슴이오 허 어건도 웬만치아시우

그럿치요 興南들이 만히모여드는것도 事實은 어떤關係일는지도 모르지오 患者가만흐니까 마치 죽는사람이 만흐니까 葬儀社가 興旺해가는것처럼─ 그리구말이요 保健興南의 暗黑面은 더다른데서 資料를 求해올必要도업지오

對策말슴입니까 그야 저煤煙과 毒까쓰가 空氣에 석기지안는 바람이 불스니 不得已消極的으로 應急對策을 쓰는수밧게업는데 말하자면 若干의 施設이 必要하겟지오

네 올습니다 사람으로할수잇는 最大限의施設어…… 허나 若干程度의 施設도 誠意를 안보이니까 于先「若干」으로부터시작해보자는 말입니다

암 그렇죠 無責任하다뿐이겟습니까 人道問題라고도 할수잇지오 허나 돈어 큰소리를치는데서는 人道問題는 언제나 오동가가 아니냐 사뭇 아모것도아닌가보던데요

모두들習慣하는것은 當然한일이지요 에잇 그런이야긴 그만둡시다 突然히 憂鬱해지는걸

道路라든지 下水道라든지 汚物處理에 特別히 留意해야할것은 都市衛生上 常識에屬하는問題인데 어떠케까지말씀의材料를 提供하고잇다면 그것은 可謂더부러말할程度가못되겟지요 工場이좃키는 恩惠만해도 좋겟을할지경이라는데 여기에다가 똥내까지 견디려는것스니 可謂生地獄이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저避病舍의꼴은그게무엇입니까 누구를 그런避病舍에 가기조라하겟서요。隔離病舍를 그무어라말할수업는 孤獨하고悲壯한心境을 同情해서라도 좀더 그들이 安心하고 病을보질만한 무슨 施設이나 努力이 잇서야 할게아니야요 아주 가난한邑이라면 모르되 萬一그러라면 一마는 興南邑이 그러케까지 가난한邑이아니라는것은 世上이 다 아는일인데 글세 저避病舍의 그게 무슨꼴이야요 實費診療所가튼걸 두어가지고 患者群의 便利를 圖謀해주는것도 當然히 考慮되어야할 問題라고 生覺합니다。醫療關係로본 興南的現實은 이것을 切實히要求한다할수잇지오。그리고 興南自體 宿命的으로 가지고잇는 反保健性에對한 한개의 自己贖罪의 意味로라도 어만施設에對한實任은 覺悟하는것이 인사가아닐는지오。

말하자면 이런게 다 對策일수잇겟죠 가령 淸潔한 市街地를 맨든다거나 避病舍가튼걸 完全히 맨든다거나 實費診療所를 두는것따위도 그對策의 하나일수잇겟지오 그리고 이저서 아니될것은 邑民各自의 自覺이라고 生覺합니다 卽우리들은 保健上 危險地帶에잇다는것、이不利한 條件은 우리들 스사로가 克服해나가지안흐면 안되겟다는 覺悟가잇서야한다고生覺합니다。

千萬에─。더만흔 患者를 當하여 나는只今 이야기를하고잇는 것인데 그분들에게 좀 기다리게한다기로 그리 未安할것도 업겟죠 어거 時間이 너무늦어젓군요 좀더 하고시픈말도 잇섯는데 突然히 內容도업는 이야기를 가지고 時間만 浪費해주어서 未安합니다

祝 興南紹介版發行

興南警察署

興南商工會

興南邑九龍里 新興商店 尹能孝

興南驛前 自轉車直移入卸商 興南商會 朴永喆 電話四四〇番

興南邑內湖 櫻印酢の素製造 酒類醬油問屋 李漢烈商店 電話三五五番

和洋製菓問屋 南鮮製菓所 興南邑內湖

興南驛前 清津酒一手販賣 咸一商會 全禹鉉

興南邑內湖 銀河理髮館 金冕威

興南邑內湖 東華洋服店 裵垣鳳

興南邑九龍里 雜貨商 廣明商會 韓裕赫

興南內湖通 雜貨商 咸成商店 林鏞述

興南邑內湖 食堂 みどり 李連雨

興南邑內湖 料理業 東洋館 電話一三四番

興南邑內湖 共信洋服店 崔基春

興南邑內湖 燒酒醬油都散賣商 青梅商會 主 全柱高

東光寫眞館 興南天　里

工業都市興

寒心한興南의敎育 緊急動議四條目

特히私學機關을保護助長하라

興南의中堅靑年 朱鍾玉氏談

工業都市로서의 興南은 可謂 朝鮮의 자랑이오 商業都市로도 新興 繁榮할수없는 地位를 차지하고 잇는것이 事實이지마는 한번 敎育方面을 살펴본다면 그 너무도 劣等인데 우리는 寒心하지 안흘수 없다. 人口八萬餘를 자랑하는것은 最近의 일이므로 敎育施設이 不備하다손치더래도 邑制의 實施를 보던 昭和十一年度만해도 人口四萬五千이라는 적지안흔 數字를 보였음에도 不拘하고 一般文化施設에 이르러서는 寒心 그대로엿다는것은 邑當局者에게 매한 口實이 잇는지는 모르되 一般邑民은 이奇怪한 現象에 자못 慨然하엿슬것이다. 昭和十三年度 咸州郡內의 小學兒童의 就學率을 본다면 勿論 本邑은 거우 一九、二二퍼센트라는 最低率을 보이고잇스니 野口의天下 工業王國 新興都市 大興南의 面目이 어데잇느냐말이다. 우리는 가끔 汽動車안에서 八九歲의 어린이들이 등가방을 메고 나리니 안즌것을 만나게되는데 이들은 무를것도업시 通學生들이다. 遠距離를 通學하는 이들을 겨울아침에 만나는것은 分明히 우리들의 慙愧의 하나가 아닐수업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것은 大興南의 暗黑面의 하나이라고나 할까. 興南이 잘낫노라고 氣勢를 올릴때마다 그낫바닥에 침을 배아타주고시푼 衝動을 느끼는것은 何必 나만도 아니리라. 그러나 이제 그責任의 所在를 追窮한댓자 別神通한 數가 업슬것이며 [illegible]

放置하는 興南邑有志諸君! 諸君은 이 問題를 緊急上程하여 審議해보고시픈 誠意는 업는가. 諸君은 誠實한 邑民의 代辯者이니만치 正히 邑民의 總意요 熱望인것을 잘 아러야한다. 興南商工專校設置期成運動에 興南邑有志諸君! 諸君은 [illegible] 마지안는바이다.

◇第二緊急動議

水産專門學校誘致運動乃至水産學校設置運動

興南은 工都로 朝鮮第一인同時에 漁港으로도 朝鮮第一의 地位를 獲得하면서 잇는中이다. 또하나의 다른날개라는것을 記憶할것이다. 咸中線의 開通과 아울러 우리의 新附國土로 飛翔興南의 앞날은 應當 東海岸의 女王 西湖津이 興南漁港을 볼는날이면 漁港 西湖津이 아니 興南의 門戶라는 [illegible] 거기에 相當한 施設을 要望하여 지는것이 가장 當然한 일이다. 내가 水産專門學校誘致運動을 勸告하는 것은 이때문에 必要하다. 近者에 總督府에서는 水産專門學校의 設置計劃을 세우고 位置問題도 一二三地方을 內査中이라하지마는 興南(西湖津)이야말로 그 最適任地가 아니고는 어델것이라. 이機會에 邑民이 蹶起하여 同校의 一大誘致運動을 開始하는것은 가장 意義잇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萬一 이것이 不能일 境遇에는 水産學校쯤은 아모러케 해서라도 設置하는것이 百年의 大計이리라고 생각된다.

◇第三緊急動議

小學校에高等科制緊急實施

小學校를 卒業하고 上級學校에 나아가는 兒童에게는 勿論 別問題지마는 그것은 卒業兒童數의 一二割이 될까말까하는 程度요 그나머지는 大槪 實社會에 나가게되는데 겨우 小學校六年을 치른 이兒童에게 片紙한장 제대로 쓰기를 要求하는것은 도리어 無理일런지도 모른는일이다. 그러고보면 다만 二年間이라도 좀더 배울 機會를 지어준다면 그러케 엉터지업지는 안흘는지도 모른다. 事實 卒業後의 二年間이란 깨닷는 힘으로 보나 學問의 分量으로보나 六年間 그것과 비길바가 아니다. 우리들의 高等科制의 實施에 對한 要望은 거의 必死的이라해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다만 이때ㅅ동안이라도 더 배울 機會를 주어달라. 이것이 學父兄의 切實한 念願이다.

이다. 當局者는 모름지기 이러한 實情에 비추어 保護獎勵함이 잇서야할것이다. 더욱이 不平인것은 北靑, 永興等 小都邑에도 벌써 오래前부터 高等科制의 實施를 보이고잇서서 [illegible] 興南에는 아직 이의 實施를 보이지 안코 잇다는것은 [illegible] 明十五年度부터는 이의 實施를 約束해주기를 要望하여 마지안는다.

◇第四緊急動議

私立學院을積極的으로獎勵保護하라

私立學院이 隆盛하기로는 아마 全朝鮮的으로 有名할것이다. 이것은 勿論 當局의 敎育的施設의 貧弱을 反證하는 一例이기도 하지마는 一般邑民의 兒童敎育에 對한 非常한 關心을 보이는 事實로서 크게 注目을 끄으는것이다. 먼저 統計를 들어보면

所在地	學院名	生徒數
九龍里	興振學院	七七三人
興中里	永昌學院	三八九
天機里	新興學院	三〇六
內湖里	海星學院	二九九
〃	東振學院	八一九
西湖里	三成學院	三六六
雲城里	光明學院	五〇五
興德里	東光學院	一九七
福興里	雲東學院	一五〇
外	二	一九〇

以上數字를 加算하여보면 [illegible] 아는 地方人士의 가슴을 [illegible] 이러한 私立學院의 經營이 [illegible] 勿論 當地私立學院이 今日의 盛況을 보아 敎育의 普及에 [illegible] 將來의 私立學院은 [illegible] 以上으로서 비록 粗雜하나마 나의 緊急動議를 끗맷고저한다. (完)

精米業界의巨豪

泰興精米所 崔鳳岐氏

興南에 잇서서 近年精米業界가 隆盛하고잇는 現狀은 實로 우리들의 注目을 끌고잇다. 가까이는 三平, 州岐 조금떠러저 [illegible] 거니와 그보다도 泰興精米所의 자랑은 처음이 大量 取하지안코 그저 한결가치 안쪽잇고信用잇고 規模잇고 압잘하게그리 하려는것이다. 氏는 本是興南出生으로 少時에는 水産業에 從事하엿스나 其後 商業으로 옴겨젓슬때에는 多少의 波瀾과 困厄도 업지안핫다한다. 爾來 米穀中商으로 無成無敗의 平坦한길을밟다가 近來에이르러선 導하 精米業界로 進하게되엿스니 泰興精米所를 일으키기는 昭和七年度의일이라한다. 그러나 精米業界에 興味를 느끼기는 昭和三年頃부터로 그때에벌서 規모는 비록小規模로나마 精米業을 開始하엿다 하니 氏은 興南 이 地方精米業界에 大先進이오 大

教育界第一人者

東振學院長 徐斗淵氏

興南에잇서서 代表格의 人物을 찾는다면 徐斗淵氏를 첫손꼽아야 할것이니 興南에 第一인(朝鮮人側)實業家라는點에서 氏를 物質的勢力의代表者라하면 興南第一의 敎育事業家라는點으로 氏의努力 [illegible] 南에 잇서서의 氏의 社會地位가 他의追隨를 許지안는다는것을 진작할것이다. 特히 敎育事業家로서의 氏의 地位는 非但 興南에서뿐아니라 道內에서도 斷然 異彩를 보일것이다. 東振學院設立者로 最初에 氏가 비로소 敎育界에 마치 어린아이를 기르는 慈母와 도 가치 모든 것을 떠나서 오로지 學院을 기르기에 全力을 다하여 한다 할만 草創期 [illegible] 럴 元興商店 主로 東海酒를 開始한것이 好景氣의 恩澤을 입어 年間에 日進月就의 快成績을 거두어 今日의 基礎를 쌋흐니 年賣上高가 八、九萬圓에 達한다는 事實로 보더 燒酒 釀造業界의 無雙한 元興商店의 무게를 짐작할수잇는것이다.

刀毛界의元勳

[illegible]

運搬業界의覇者

三和海運商會 文朝冕氏

海運商會—조금도 奇異한 [illegible] 업는 이名稱이 其實 一個의奇 異한感을 우리에게 주는 어찌한까닭일까. 朝鮮사람으로 方面에 着眼한 이가 아직 한사람도 엇더한까닭이리라. 헌데 이 꼿간데모를 處女林에 선뜻 先陣을하고 突入한이가 우리三和海運商會의 主人 文朝冕氏이다. 이 非凡한 着想과 秦腹한 性格은 由此로도 可知다. 明快한頭腦가 가저온 緻密한 設計는 드디어 前人未發의 巨頭으로하여금 命中의 偉力을 遺憾업시 發揮시켜 三和海運의 獨舞臺를 現出시키고야 말것이다. 三和商會는 富田組의 專屬으로 北으로는 淸津雄基 南으로는 釜山木浦등地까지 運搬路를 開拓하여 大活躍을 展開하는中인데 날로 달로 快業績을 記錄하고잇다. 氏는 또 昨夏부터 運送部도 開始하엿스니 여기에

西湖水產合資會社

興南漁港의자랑

五人組實業家로陣容整備

西湖水產合資會社의 出現! 이것은 正히 漁港興南의 躍進相을 말하는 最大의 事實인同時에 昭和十四年度의 漁港興南이 가진 最大記錄의 하나이다. 創立은 저 興南商事會社株式會社와 더부러 날을 가치하엿스나 아직 닭을 가새지 못하엿스나 新進氣銳한 一群의 靑年企業家의 情熱과 抱負의 産物이니만큼 그異常한 魄力은 堂壯한 覇氣는 벌서 漁港興南을 制壓하는 듯한 感이 업지안다. 同業界 制覇의 意氣를 품기고 所期의 目的을 向하여 着着 步調를 내드디는 둥이 벌서 嶄新 그대로요. 健實 그대로다. 華麗한 明日의 約束된다 하는 이러한 中三勇士 이름이리라. 그러면 今日이 挑戰을 어떤 西湖水產合資會社의 結成分子는 大槪 어떤 人物의 無點 우리 人物이든가. 이제 暫間 그 陣容을 살펴보면

代表社員 文會彪

無限責任社員(支配人)李壯均

〃 金鳳善

〃 朴龍善

有限責任社員 高弼鉉

社長格의 文會彪氏

이제겨우 三十一歲의 靑年實業家로 千萬의 印象이 조타. 無限히 부드럽고 圓滑하야 人間으로의 好印象을 준다. 이 實業家의 一大無形의 資産이 아닐까.

氏는 多年間 咸興咸鏡漁業組合의 [illegible] 하여 [illegible] 한다

支配人李壯均氏

會社의 中堅格으로 活躍하고 잇는 支配人 李壯均氏는 今般의 指揮者格의 氏의 今後活躍이 企待된다. 이르키어 西湖水產合資會社를 同志李壯均氏와 손을잡고 이에 赴然이 다로가라」 웨치고 이에 毅然이 어느 모름직이 山으로 가든 바 [illegible]

咸鏡道漁業組合聯合會를 비롯하여 水産物關係業務에 從事한지 前後七年間 이제겨우 二十九歲의 靑年이나 鄭重하고 慇懃한품이 大人의 風格을 이루어 그人品의 非凡함을 엿보게 한다. 이제 氏가 七年間 얻어낸 [illegible]

氏의 [illegible] 商會內에 出張所를 두고 興南咸興間 荷物運搬에 大馬力을 내고 [illegible]

이 박지 아니 거든 [illegible] 어찌 [illegible] 朴龍善氏 [illegible] 氏의 活動家로 「水產合名」를 兩肩에 메고 一路制霸의 길을 달리는 勇士임에 틀림없다. 그르면 이會社의 營業科目을 들어보면 水產物加工, 水產物仲買及委託業, 古漁具賣買, 漁業用品賣買, 運送, 其他水產物附帶事業 이라한다. (寫眞은 文會彪氏와 李壯均氏)

잇는 統制力은 目覺할을 보이지 안어 그成果는 날로커가고잇다. 이 委託部에 金鳳善氏 [illegible]

興南實業界驍將

興南酒造合資會社 朴登三氏

우리興南이 가진 最大의 實業家의 한사람으로 그리고 또最 有望한 實業家의 한사람으로 우리는 저 興南酒造合資會社의 主宰者 朴登三氏를 이저서는 안될것이다. [illegible] 手腕으로는 第一流實業家의 班列에서도 한異彩일것이다. 그 明快한 決斷力과 敏活한 생각은 氏로하여금 人間으로의 한品格과 魅力조차 를 느끼게한다. 어떤지 모르게 미덥직하다 하는 印象을 깁게하는 것도 이까닭이리라 아모리 大實業家라도 그가 돈만 따를때에는 어데던 野卑한 一面을 갖추이지 못하는 法인데 氏의게서는 그러한 不快한 一面을 차즐수업다는 것은 얼마나 多幸하고 愉快한 일이냐. 氏에게는 分明 業한 一面이 잇다. 돈을 모아 어떠케 할테요? 하니, 氏는 서슴지 안코 「써야죠」 社交的으로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아니다. 胸裡에서 울어나오는 말이다. 이 간단한 對答에서나는 氏의 人格의 그리고 그빗나는 봉을 보앗기때문이다.

『興南에 거지가 만흔군요. 그래 거지들이 몰려지라도 할만한 데 집이나 몃개지어 줄까하고 어데 뒤뎌 論議해 보앗드니 그래서는 못쓴다나요 各地 거지들이 모여들 테니—뭇고보니 올흔말이지오 그래 그만두엇습니다」한다. 大膽 [illegible]

이 地方에서 [illegible]

(寫眞은 文近炯氏)

漁港興南의새面目

興亞水產社의偉容

青年漁業家魯憙煥氏의巨砲

興南!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뒤흔들게하는 이말도 近年에 이르러서는 應用者의 理由로 因하여 한개의 凡俗流行語로 轉落하려는 傾向까지 업지안호듯 하다. 그러나 「興亞」의 精神이 것이야말로 東洋精神의 本質的 意欲이요 東洋人 全體의 理想이아닌가. 그러므로 오늘의 政治, 産業, 經濟의 文化的 建設도 이 興亞의 大精神에 依하여 遂行되고 잇다는것은 東洋精神의 發露를 意味하는 것으로 [illegible]

의 第二回砲! 稱號도 미루어 그抱負와 理想의 遠大한 面貌를 足히 짐작할수잇다.

春秋戰國時代의 가치 群雄이 割據하여 虎視耽耽, 覇權爭奪의 興南一角에 氏는 興亞水產을 걸고 毅然히 나타나 可謂 衆星이 無光으로 無敵의 境地를 보이고잇스니 이는 또한 어쩌한까닭인가? 興亞의 精神으로 오직 한 노니 그 成功을 約束하는 [illegible] 力 等이다 [illegible] 漁業勞力의 [illegible]

地를 마음대로할것도 然하지안흔가. 이제暫間 그營業科目을 들어보면 漁業明太, 鹽明太, 鹽鯖, 明太子 等 [illegible] 海產物의 加工製造와 海藻類販賣 銷販賣에 鰯油까지를 兼하엿고 此外 鮮品은 內鮮各地는 勿論 遠히 滿洲及北支에까지 販路를 擴張하여 朝鮮水產物의 大陸進出에 積極的으로 하자는것이 興亞水產工業社의 結論이 하나이라하니 可히써 그 企圖의 壯함을 집작할만하다.

當然이 登場한 靑年實業家 魯憙煥氏의 素描를 그려 驚嘆을 마지 안흘것이다. 氏는 이제 三十六歲의 靑年으로 數十萬金의 巨財를 自手成家한 稀例의 幸運兒다. 偉壯한 體軀와 質素한 風格은 北國男兒의 氣魄을 象徵하는 一種의 獨特한 「스타일」을 이루어 자못 力強한 印象을 준다. 氏는 일즉이 咸南運送業界의 權威者로 高原◎運送店을 經營하기多年에 巨萬의 富를 이루었다하니 [illegible]

(사진은 興南醫院全景과 職員一同)

興南醫療界의新銳

興南醫院長 韓俊錫氏

「興南에 오서서 二年이 넘엇소? 그게 [illegible]」하 고 우스며 「글세요 于先 興南엔 醫療機關이 非常히 만타고 보여지는데도 이런데 아직도 醫師會가 업다 는것은 퍽 異常合니다. 先輩들이 親睦도 도모하고 또各其施設上參考될만한 무슨조흔 硏究가잇스면 그것도發表하고 民衆保健에 對해서도 協助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조켓습니까. 그러니 이일은 先輩들에게 맛기고 [illegible]」

興南醫院 主人韓俊錫氏는 朝鮮一流의 才士 醫師로 至今 우리는 크게 期待하는 바 있으니 今年七月에 興南에 來住하엿스나 아직은 一般의 交涉이 그다지 잇는것도 아니고 또 그 親睦의 機會가 [illegible] 氏는 原來 京城出生으로 昭和四年에 京城 [illegible] 中學을 修業하고 醫業을 [illegible] 昭和十年 (二十五歲)에 朝鮮醫師試驗에 合格하엿다 한다. 그後 江原道高城 [illegible]

是氏를 여기에 紹介할수 있는 것은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

이다. 다만 [illegible] 우리들이 氏에게 期待하고 [illegible] 것은 마치 [illegible] 그 醫業 그 手腕 그 人格 그 明朗한 性格 [illegible] 以上이다.

興南社會의重鎭

文近炯氏

氏는 두말할것업시 興南社會의 重鎭으로 그 지도적 地位를 確保하고 잇는 이로 一般의 信望이 두텁다. 溫厚寬大하고 謹嚴剛直한 長者의 風格을 가추우를 爲하얏 敎育의 振興과 社會의 啓導에 努力 [illegible] 보이고 잇스니 氏의 存在는 分明히 興南의 빗이오 밋그힘이 다. 氏는 前邑會議員으로 邑社會의 諸般事業에 [illegible] 그리고 氏는 실로 名實이 함께 地方의 重鎭이오 地方 社會의 棟樑임에 틀림업다. 氏는 또 子女敎育에도 남달리 致意하여 一般에게 조흔 指標가 되고잇다. 長男은 東京慶應大學에 次男은 京都中學에 留學中이라한다. 氏의

布木商界의權威

崔炯烈商店 崔炯烈氏

氏는 興南布木商界에 잇서서 斷然 第一人者다. 年少이나 經驗으로나 實力으로나 布木商界에서의 氏의 地位는 確乎하다. 布木商하면 依例히 崔炯烈商店을 聯想하리만큼 氏의 이름은 거이 布木商과 同意語인 感조차 업지 안타. 이이는 바 地盤이오 努力이라, 氏가 大興南布木商界에 制覇하기까지의 過程엔 許多한 눈물겨운 이야기가 잇다. 貧寒한 家庭에 태여난 氏는 雪上加霜으로 十六歲時에 慈堂을 여이고 二十三歲時엔 嚴親을 여이엿다. 氏의 人生行路가 多難하엿다는 것을 말함이다. 엄처한 삼칠부터 일곱 까지 某布木商店에 일을보다가 열일곱살때에 비로서 單獨으로 布木商을 經營하게되엇다 하니 무릇 十八年前의 일이다. 其後 昭和二年에 朝鮮會社工事가 이러나자 好景氣를 만나 一躍巨萬의 富를 이루어 六布木商崔炯烈商店의 出現을 보게되엇든것이다. 好事多魔로 昨年度에 火災를 만나 店舖와 商品을 燒失하엿스나 二十四日만에 다시開店을 하엿 고 그리하여 不過一年에 原狀을 回復하엿다는것은 崔炯烈氏아니면 하는생각을 가지게하는同時에 氏의무서운 魄力을 보이는것이라하겟다.

氏는또 敎育事業에도 多大한 關心을 보이고 잇스니 東振學院을 爲하여 前後數次 與小한 寄附를 하엿고 또現在에는 同校理事로 活躍中이라한다. (寫眞은 崔炯烈氏)

古物商界의寵兒

仁興商店成祥鶴氏

當年三十五歲의 靑年活動家成祥鶴氏는 本是平南陽德出生으로 來興하기는 八年前처음에는 米穀商을 經營하엿스나 見機에 빠른 氏는 곳古物商으로 業을 轉하여 爾來六年間에 巨萬의 富를이루엇는데 그年收引高가 무릇 千餘萬圓을 넘는다 하니 商店의 隆運을 可히 짐작할수잇다. 또 氏는 水飴特約販賣業도 兼하여 여기에서도 四五千圓의 取引高를 꼬인다하니 實業家로의 氏의 活動은 크게 注目을 끄으는바가 잇다. 한데 氏의 敎會成祥鶴氏은 興南天機里敎會의 長老로 信仰이 篤實하고 天品이 仁厚하여 一般敎徒의 尊敬이 두터운데 年前敎會堂建築時에는 一千五百圓의 巨金을 義捐하여 一般의 稱頌이 藉藉하드니 同敎會堂幼稚園 設立時에는 基金으로 三百圓을 되진이어 것이 조흔 그루가 되어 天機里幼稚園의 今日의 成果를 보게되엿다하니 그信心 그德行이 야 可히 讚揚할만하지안흔가. (寫眞은 成祥鶴氏)

表具商界에獨步

松竹堂丁業佑氏

年紀 이제 四十七이라하니 무엇보다도 活躍하는 이의 明朗 興南의 表具商界 [illegible] 氏의 社會的 活動이 보다 [illegible] 하기를 一般邑民은 待望하여 마지 안는다 하다. (寫眞은 文近炯氏)

一見才士型의 人士로 天性이 誠實하고 社交에 能한이가 우리 松竹堂表具店主人 丁業佑氏다. 興南表具商界에 第一人者라면 氏는 오히려 不滿일것이다. 웨나하면 表具商으로서의 氏의 地位를 찾는다면 氏의 存在는 分然히 全朝鮮的일수도 있는 까닭이다. 朝鮮新聞社와 및 그傍系會社의 金千可(?)가 모다 氏의 獨占 舞臺이고보니 表具商으로서의 이렇듯 有利한 活動舞臺를 가진이가 朝鮮的으로 몃사람이나되랴. 그러기에 來興十年에 저렇듯 大成功을 거두엇고 氏는 또 今春에 咸北阿吾地에 支店을 내고 令弟丁業明君으로 하여금 駐在活動케한것도 이미六年前일이라한다. 氏의 事業의 長足進步를 짐작할만하다. 氏는 또 市民의 中堅으로 一般의 信任이 두터운바 前全北高敞郡이라한다.

印刷業界의霸王

山本印刷所 文廷業氏

山本印刷所가 興南印刷業界를 獨步하고잇다는것은 너무明白한 事實이다. 朝興會社를 中心으로하여 興南一帶의 重要會社 學校 官廳關係의 印刷物은 大槪여기에서 바어낸다. 그리하여 年收引 [illegible]

處 昭和六年에 京城세브란스醫專을 卒業하고 그길로 來興하여 慶親毛利醫院先生의 指導下에서 刀圭界에 첫거름을 내여드딘것이 지난여름에 毛利醫院의 創給다 하고 熱誠도 眞金을 드리어 增築하니 이는 모다 毛利醫院의 異常的 躍進을 보이는것이다.

薪炭

興南[illegible] 氏는 現在 興南新炭商組合理事로 新炭商業界를 리드하기 [illegible]

祝 興南紹介版發行

興南邑

三井酒一手販賣特約店
元山商會
吳允範
電話 一六八番

鹽田組
鹽田芳太郎

松本組配下
柳生重太郎

李鍾春
興南邑雲城里

南의躍進譜

木材商界의巨頭
李松商店主 李松氏

氏는興南天之格의一人으로 또 木材商界의 權威로그 高雅莊重한人品은 一見長者의 風度를生覺케한다. 그러므로 氏는商路에서보다도 敎職에 處해잇섯서야 品位에맞고 趣味에 어울릴것이엇만 運命의神은 드디어氏로 하여금 그高雅한風采를 商圈에 무더버리게 하엿스니 氏를爲하여 자못아까운일이라할까.

氏는本籍 京畿道利川出生으로 일즉이 京城에서 木材와 米穀商을 經營하엿스나 大正八年頃에時運不利로 失敗를 當하게되엇는데 其時에 損害가約 六萬餘圓이엇다한다. 其後咸北方面의 巨大商業을 遊歷하다가 歸鄕하는길에 偶然히 興南에머물게된것이 이내永住의因緣을 맷게되엇다는데 그때는바로 昭和二年, 興南에建設工事가 한창인 때엿다. 이에氏는 先驗이 잇는지라 木材와 薪炭을 購入하여 窒素工事場에 供給하기를 시작하여 今日에 이르럿는데 저窒素會社의 저彫大한 工場街를 둘러한 地盤을 자랑하는 李松木材店의 基礎는 이리하여 이루어진것이라한다. 그리고 또 氏도 數年前부터 旅館業도 開始하엿스니 이름하여 京城旅館이라한다. 位置가 位置(驛前)니만큼 昨秋 氏가 廢業하엿슬때에 親族會議를 開催하고 無產親族子弟의 敎育資金으로 一二三萬圓程度의 基金造成을 提議하여 決定을 보앗다하니 氏의 敎育에 對한 關心이 얼마나 기픈지를 엿보기에 足한 美談이다. (寫眞은 李松氏)

氏는原籍京畿道江華出生으로 昭和三年頃에 故鄕을 作別하고 元山에 이르러 信號旅館을經營한지三年만에 또다시北靑等地에서 商業에從事하다가昭和十一年에 來興하엿스니 그間에移徙가잣고 職業의變換이 無常하엿다는것은 氏의 人生旅路가 順坦치 안햇다는것을 實際하는것일게다. 來興하면서부터는 氏사이에 評判이 노흔도 偶然이 아니다.

言 人格的精神努力의 代表者인 地位를 獲得케하엿다할것이다. 우리들은 代表者의 唯一한位置를 許하기에 조금도 꺼림이업다. 氏는 現在內外鮮滿洲의 農民을爲하여 明日小學校後援會長으로 興南의 公共事業을 把握하고잇스니 이것은 다만氏의 代表的業績이다 이로써도 可히엿볼것이다.

은 드디어 헛되지안어 우리興南院長으로 하여 興南의 最大의 誠意를 다하게한것이다. 現在도 氏는 同院의 院長으로 經營에 盡瘁를 다하고잇는中이다. 氏는 可히 興南社會事業界의 巨人이라고도 할만하다. 一般府民이 氏를 스승가치 崇敬하고 慈父가치 信賴함도 또한 當然한 일이다 (寫眞은 徐晋松氏)

精米業界의王座인 大泰盛商店의偉觀
年取引高만도四百餘萬圓

興南邑 海岸通埋立地에 다다르면 敷地一千五百坪 여기에工場 倉庫 本事務所等 集團的大建物이 雲波를 등에지고 朝鮮의 저彫大한 工場街를 흘리고보니 자랑하는 李松木材보다 나도 예잇노라는듯이버젓이 뽐내고 섯스니 이것이곳 우리의 자랑 北朝鮮精米界의獨步 大泰盛商店의 本據인데 이것은 두말업시 興南의雄兒 靑年實業家 崔周星氏가 昭和十年 六萬餘圓의 工費를드려 築設한것인데 創業以來로 每年二萬餘圓程度의 設備增加를 繼續해왓다하니 只今에 이르러 거의二十萬圓設備를 肉迫하고 잇는셈이니 이로써 可히 그規模의大와 設備의 完美를 窺知하기에 넉넉하다할것이다. 생각컨대 全朝鮮的으로도 個人系統에 屬하는 精米事業으로 여기에 匹敵할만한 彫大한 施設을 가진데는 아다도 드무리라.

하로의 精米量이 一千二百叭 이러고보니 벼알지는 삽시간에 丘陵을이루고 드러차인 벼섬은 山떼미를 疑心케할 程度인데여기에 또製油를 兼하고 鐵鋼도 大規模로 取扱하고보주 四十餘名의 從業員이 눈코뜰새업시서두는것도 無理는아니리라.

이리하여 西湖 天機里 九龍里 興南方面에 大規模의販賣所를내어 大興南의 糧米市場을 獨占하는一方 朝鮮會社 四萬餘從業員에 一手供給을비롯하여 全朝鮮南北各地는 勿論이오 멀리日本內地에까지 販路網을 느리고잇스니 年取引高 四百萬圓을넘는다는 엄청난數字도 이러고보니 神奇할것이 업는것이다.

그런데 泰盛商店은 創業來五年間에 戰必勝功必取의 빗나는業을 거두엇다하여 이에晏然自足하느냐하면 決코그러치아니한다 언제나 새로운發展을 겨울라 하지안코 乾坤一擲 大雄飛를 計畫하기에 餘念이업는듯이보이니 그압날이 아말로 더욱우리의 期待를 高調케한다할것이다. 咸南의 泰盛으로부터 朝鮮의 泰盛에 이것이우리 實業界의鬼才崔周星氏의 胸中에품라는 念願일는지도 모른다. 그러타면氏의例의 超人的手腕이 未久에이念願을實物로 바꾸어우리에게 멀지안햇스리라. 大泰盛의 明日을爲하여 崔周星氏의 健闘를빌기로하자 (사진은泰盛商店全景과崔周星氏)

社會事業界의巨人
篤志의人 徐晋松氏

興南醫療界의 開拓者 興南醫院長 文錫禧氏

興南醫療界의 開拓者 興南醫院長 文錫禧氏 大大的인要望에 따라서 興南醫療界의 開拓者로 나서게되엇스니 一「興南醫院」이「興南」으로 되엿다 그名稱이出現으로興南에게 「興南」에서 開業하면 依例히 文先生 診院하면依例히 附屬病院과 位置를 가르킨는때 가잇엇다 이것으로써 興南에서도 氏의先覺者의地位 첫자리를 알고잇는 興南醫療界도 우리는 氏의先覺者의努力에 힘입은바만흠을 感謝하여야할것이다.

우리들의 大先輩 文先生에게 敬禮이나 人物을 論하는것은 오히려 人事가 아닐게다 차라리 그情熱的인 인情을 더 讚하는바이다. 우리는 氏의 謙讓함이 그의 治療에 對하야 敬意를 表하고싶다. 代身할수 업지안흘까.

氏는 일즉이 咸南中學을거치고 大正七年에 京城醫專을 卒業하고 同年에 忠北道立醫院에奉職을 始하여 江原道立醫院 全北全州道立醫院 咸南咸興道立醫院等을 轉하여 經驗을 쌓은 뒤에 昭和七年까지 奉職하다가 大興南醫療界의 先覺으로 나서 興南에 開業하엿스니 大興南醫療界의 先覺者 이만하면足하지안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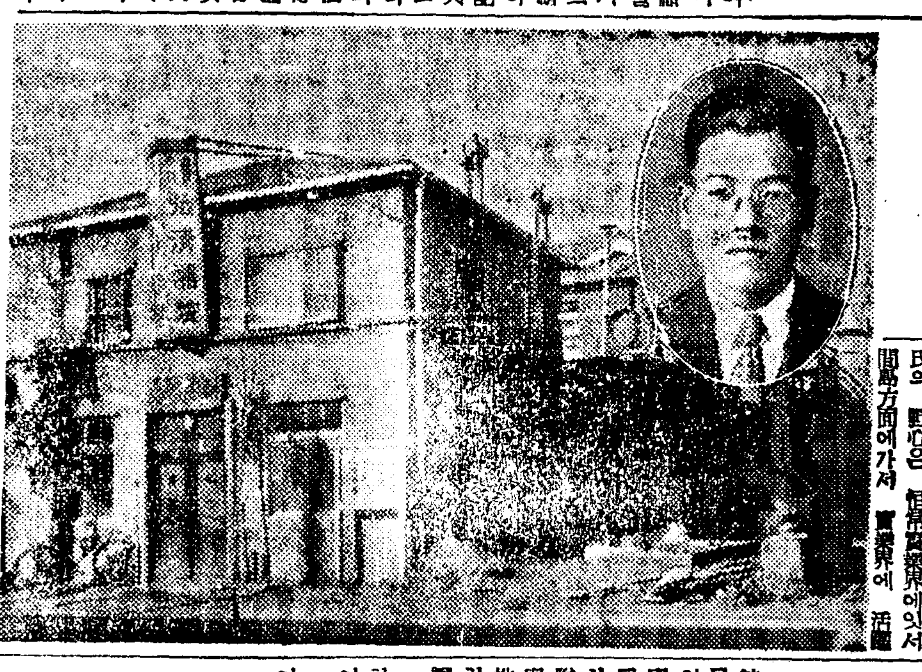
氏는 本籍咸州郡三平出生으로 來興하기는 昭和六年 卽九年前 이다 出生이 農村이니만큼 農業은 예나이제나 農業을 大本으로 하고 賢明的으로 이러한제언한 에 순응하지는 안엇는데 年前九龍里에 海水浴場이 新設되자 氏는 그經營을 爲하여 率先浴場을 設하여 多大한努力을드려 만흔成果를 거두엇이 잇는데 곳속에 이르러서는 浴場의繁昌無比한 로 말미아마 閑散을 極하게되고보니 九龍里住民의繁榮을 爲하야 몹씨 애쓰고잇다하니 그리고 氏는또昭和十三年度早春에 咸南의 大規模의 水産業을 創立하야 新興水産 咸鏡南北에 크게信用을 바다 근來에 도 九龍里三平에서의 일 이와 하여 勤勞하는 氏의 氣魄이 이곳 興南의 社會를 爲하야 한갓 애우 一段이 된다. 다가 三興精米所의 主人으로 一大活躍을 하고잇으니 氏의 氏의 努力의 ...

이 정말이 興南地方 大繁榮의 주인 그러나 氏를 사랑하는 이는 氏의 事業熱보다도 오히려 社會事業에 對한 功績을 들어 말하니 그 어찌 우리의 代表者의 한사람이 아니랴.

한 業績을 가지고잇다는것은 이미 周知의 事實로 어는 氏의 人情이 얼마나 크기를 말할수 있다. 그리고 人物으로보다 力量으로보다 氏가 奉仕하는 그精神 그熱情에 우리들이 가장 두터운 信賴를 갓게된다는 것이다. 現在氏는 이방面의 氏의 그 努力이 얼마나 크냐는것을 미루어 알수 있는것이다. (寫眞은 文錫禧氏)

나 이제 ... 氏가 그힘을 다하여 千百의 騷擾를 鎭靜케한 것 그것은 氏의 大人的 抱負이다. 이것은 氏가 天下의 衆人에 對하여 보여준 偉大한 德行이다. 그리하여 大興南을 爲하여 水泳事業에 數多한 業績을 남기고 ... (寫眞은 徐晋松氏)

興南實業界의明星
大同運搬組 安容哲氏



興南의 少壯實業家 實業家一라고하면 누구나 躊躇함이업시氏를 지명할것이다. 氏는 前項紹介의 安英煥氏의 次男으로 今年三十二歲의 少壯實業家이다. 昭和四年에 咸興商業學校를 卒業한後 家事에從事하다가 東亞日報 興南支局을經營하여 興味를가저 新聞文化에도 功이 잇섯다. 父親의 事業을 援助하여 東興運輸를 設立하엿고 昭和八年에 大同運搬組를 創立하여 今日에 이르렀다는데 氏의 野心은 이제 實業界에 活躍하는 方面에가서 期待되는바이다.

타가 興南 運搬業의 先驅로서 運搬組를 主任으로 大活躍한지 六年間 그러는一方 運搬業으로 天野商事와 天野洋服店과 大同工業社를 經營하여 내려오는데 前者는 五年 後者는 二年의 歷史를 갓고잇스며 어느것이나 本業이고 어느것이 副業인지 알수업스리만큼 各業이 興盛의一路에 잇다.

勿論이오 昭和十年에는 先考의 葬禮를 盛大히 치르고 同校를 擴張하여 小學校 新設에 힘쓰고 또 明日小學校 後援會에 寄附하여 그地盤을 굳게하엿다 또 그밖에도 邑內各敎育機關에 多大한 物質的 援助를 아끼지 아니하엿다. 이러한 功勞를 볼때 氏는 實로 興南의 자랑이다.

氏는 그의 天才的 實業家의 手腕과 한번目標를 세우면 해내고야 마는 굳센 意志力과 또한 사람을 抱擁하는 그 人格의 所有者로서 장래가 囑望되는 實業家이다. 앞날이 오로지 氏의 手腕에 잇다. (사진은大同組全景과安容哲氏)

商界의重鎭
德盛商店 安容夏氏

氏는 實로 商界에잇서서도 山戰水戰을다격근 百戰老將이다 그러므로 話題가 一旦商道에이르고보면 氏의議論은 어느새懇切을다하여 그所說無非哲理요 金言이어서 斯界의達人이나 感을 깁게한다. 그多彩한過去는 多難한 商路가 氏로하여금 多大의實際經驗을 싸케하여 오늘날 商路哲學의 一家를 이루게한듯하다. 이러한지라 興南商界가 氏에게 元老로의 地位를 許與함도 當然한 일이다.

氏는 原來 咸興出生으로 少時부터 商界에 從事하여 敏腕을 떨치어왓슴은 勿論 西湖에移住하자 商業從事 布木 十二年에 繁盛을 보앗다.

萬의富를 이루엇다가 잘못하여 어떠한 投機事業에 손을대엇던것이 빌미되어 巨萬을 날리고 彷彿十年의 歲月을 허비하고 바로九年前의일 興南에 와서 一敗塗地 다시 再起할 方策을 回復할 수 업섯 스런 어려움 속에서도 氏는 이만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듯이 새로운 企業의人인 德盛商店을 세워 古巢 西湖를 떠나 興南을 찾아온것은 가르쳐 주는 南를차저 오기는 亦是 가르치는 消息인 것이다. 그것은 元來 布木商이어 여기서 始作한것이 全然 趣向을 달리한 醬油 原料이미노산 製造라는 一見奇異한 職業에손을대는一方 各種 酒類都賣業을 始作한것이 저有名한 德盛商店의 發祥이엇든것이다. 將來數年間活動에서 前失을 回復하고도 남음이 잇다하니 商路의 天才란 實로 氏와 같은이를 두고 이름일 것이다. 아미노산製造高가 年九百石이라 하니 規模의 相當함을 짐작할수 잇다.

(사진은 德盛商店全景과安容夏氏)

實業界의將星
元興商店李宛濟氏

仁厚하고 寬大하고 禮節에밝은 氏는 一見하여 선배다운 印象을준다 이러한氏에게 남달리 信用이두텁고 經理가强하고 理解가빠를것은 想像하기에 어렵지안흔일이다 이러한 人士에게도 幾多의 風霜과 波瀾曲折이 잇섯는가 生覺하면 世道의 無心함을 한갓 嘆息하게할뿐이다 그러한 온갖 難關을 치르고난 今日에잇서서도 오히려 高雅端麗한 風貌를 일치안는다는것은 氏의 人格을말하는것이다.

興南醫療界巨頭
弘濟醫院長 方亨鍊氏

大興南醫療界에 麒麟兒로 花北青都寺城面出生으로 일즉이 咸南中學을거처 昭和十年에 平壤醫學專門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고 그대로 本校에서 約一年間研究를 하고 昭和十一年春에 興南에 와서 우리의 귀여운 弘濟醫院을 開業하엿스니 그것이 不過四年에 大興南醫療界의 金城鐵壁을 쌓아 大興南에 나서서 不敗의 地盤을 이르킨 것이다. 그의 手腕에 成功하여 이루엇다. 方亨鍊氏의 代名詞는 누구나 알 만큼 이러한 德望이 잇서 興南邑民을 相對로 九萬의 民衆을 안고 一年間 醫業을 닦아 그 醫術과 人格을 兼備한 이가 氏 以外에 또 누가 잇스랴. 一方 이러한 院長 方氏는 人物이 훌륭하고 醫術이 精巧하고 獨自의 確乎한 地盤을 獲得하여 弘濟醫院의 存在를 널리 알리엇스니 氏가 興南醫療界의 巨頭인 所以가 여기에 잇다. 이 氏의 非凡한 手腕은 興南醫療界의 面目이 躍如하다하겟다. 그런데 氏가 政治方面에도 興味를 가지고 地方行政에 多大한 關心과 興味를 보이고잇다 것은 자못特筆할만한 事實이다 人間으로의 氏의 振幅을 엿보기에 足하지안흘가 (사진은弘濟醫院全景과方亨鍊氏)

請負界의麒麟兒
楊箕德氏

今年 三十八歲의氏는 元來農業을 業으로하엿스나 昭和二年에 雄志를품고 天機里에 와서 獨力으로 請負業을 始作한것이 現今 그發展이 놀라울만큼 되어 今日에 이르러서는 確乎한 地盤을 세우고 興南 楊箕德組로 屈指의 土建業者가 되엿다. 三尺童子라도 모르는이업스리만큼 有名하다. 現在員 十六名을 거느리고잇스며 그勤勞과 誠實함이 一年五萬圓의 工事를 맡아 그明朗한 經營은 實로 驚歎할만하다. 그뿐 아니라 今後 大大的 飛躍을 期待하여 地方에 잇서 公共事業 中心으로 咸興, 西湖, 本宮 一帶의 工事를 맡아 大活躍하고 잇다 人間으로의 氏의 振幅을 엿볼수 잇는 데가 아닌가 한다.

氏와가치 有能한人士가 (활수잇다면) 請負業界에서 例의 메신 行政의 飛躍을 갈구한다면 그얼마나 愉快한일이랴. 다시거듭하여 氏의 趣味는 자못 드문 趣味를 가지고 잇스며 將來에 興南에 큰 일을 할 人物이다. (사진은弘濟醫院全景과方亨鍊氏)

醫療界의巨星
至誠醫院 李建承氏

溫厚沈重한氏는 一見紳士다운 風度를 갖춘 이로 紳士風이 濃厚하다 千兵萬馬가 휘몰아와도 눈하나깜짝하지안흘 氏의 泰然自若한 態度는 果然 醫療界의 百勝老將이오 그 마음은 完全히 民衆의 마음이다 新進氣鋭한 少壯醫師들 사이에서도 人氣 드세여 大興南醫療界에 중요한 地位를 確保하엿스니 十年을 하로같이 特殊한 地位에 잇는이가 우리 至誠醫院長 李建承氏이다. 大興南의 公醫를 겸한 氏가 자랑하는 至誠醫院의 지도자 이만하면 그 名聲을 말하는 이야기도 알수잇다.

氏는 原來 京城出生으로 일즉이 京城中學을 거처 大正八年 京城醫專을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하고 全州道立醫院에서 內科를 專攻하여 三年間 勤務하고 京城에서 開業하엿스며 그後 在學時代부터 特히 留意하든 內科治療에 專心하여 名을 날리게되엇다 咸南 咸興道立醫院 內科醫長으로 昭和七年 其後 咸興 道山公醫를 거처 興南 公醫로 赴任하기는 昭和七年 來七個年間 功勞는 興南醫療史上에 燦然하게 빗날것이다. 現在는 一般의 活躍을 보이고잇스니 이것은 實로 氏의 事業慾을 보이는 것이다 (사진은大同組全景과安容哲氏)

興南醫療界巨匠
中央醫院長 李俊喆氏

多士濟濟 鄕氣勃勃한 大興南醫療界에 잇서서도 斷然 不敗의 地盤을 차지하고 獨步의 地位를 자랑하기로는 中央醫院에 우뚝한 院長 李俊喆氏가 잇다. 이로써 날이갈수록 高潮되는 人氣 날로 더하여 떨치는 威勢는 드디어 中央醫院의 獨擅場을 이루어노코야 말듯하다.

人格으로다. 任務하고 親切하고 慇懃한 것이 그대로 患者의게 豫期 以上의 效果를 나타내나니 그는 實로 醫師다운 醫師이다. 昭和六年에 世醫專을 卒業하고 中央醫院을 經營하기 前後 四年에 지나지 안는다. 氏는 一般의 信望이 두터워 中央醫院을 빛나게 하엿스니 中央醫院의 輝煌한 今日이 잇는것이다.

咸興濟惠病院興南分院長으로 就任하여 前後四年間 可謂犧牲的으로 모든것을 내여노코 興南醫療界에 活躍하여 醫師로의 模範을 보여주엇든 것은 크게 記錄할만한 事實이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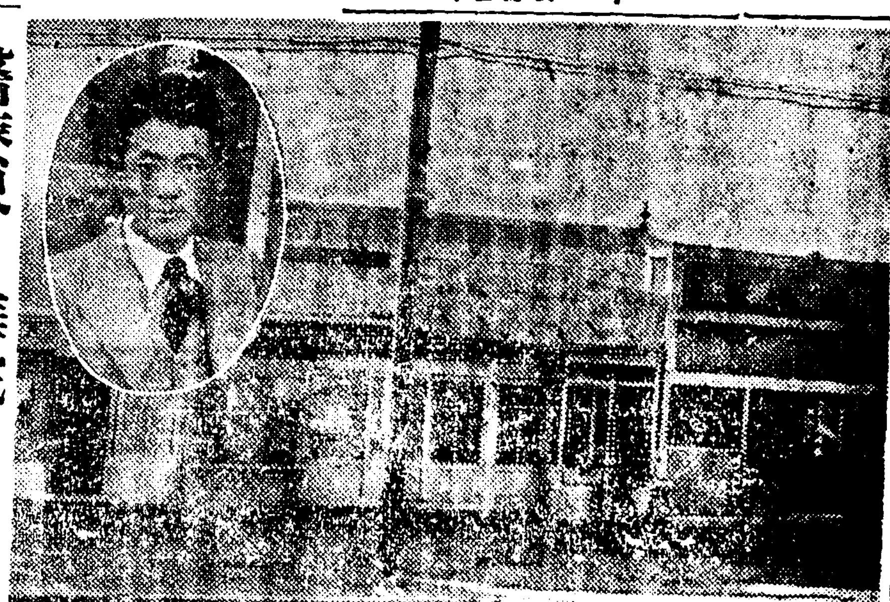
그리고 또한가지 中央醫院의 强味는 昨年 봄에 世醫專을 나와 令弟 俊泰氏가 令兄을도와 進中央醫院의 一翼이 되어잇다는 事實이니 氏도한 令兄에 못지안케 沈着溫厚한 氣質우에 尖端醫學의 技能을 가지고 活躍하고 잇스니 可謂錦上添花라 中央醫院의 前途는 더욱 빛나게되엿다. (寫眞上은李俊喆氏下는李俊泰氏)

食料品界의權威
洪屋商店 洪容善氏

洪屋商店 昭和二年 原籍地洪原으로부터 來興하여 爾來十三年間 十五萬以上의 巨額을 運轉하는 大商店主人 洪容善氏이다. 그는 저 九龍里 洪屋商店에 오기 前에 미천이 잇섯든것이나 그것은 단돈 몇푼이 안된 多年間 大阪等地에서 大食料品店員으로 근사한 實務를 닦아 이 方面에는 徹底하게 精通하고 努力으로 今日의 地位를 가지게된것이다. 如此히 大食料品店을 經營하게된것은 그에게 더 큰 信望을 엇게한것이다.

이리하여 시작한것이 食料品店 처음에는 資本關係로 可謂伐齊爲名이엇스나 原來 勤勉하고 眞實하여 한番交遊에 반드시信任을 밧게되엇다 또한非凡한斯道의 精通이라 幸運의 氏를 도와 오늘날의 大成功을 이루게된 것이다. 勿論 氏의 實力이 이 興南에서의 成功을 가져온 것이겟지마는 氏의 未來는 더욱 크리라.

醫療界의華陀
毛利醫院長 毛麒聖氏



咸興醫院外 最大의 權威者로도 한先驅者로도 그醫院綜授에依하여 이미 令名을 世上에 떨치지오래된 匠毛利醫院의 院長 毛麒聖氏는 바로 氏의 嚴親이시다. 여기에 우리 毛利醫院長 毛麒聖氏가 남다른 好條件이 잇고 獨特한 强味가 잇는것이다. 多士濟濟로 比較的 角逐이 甚한 興南醫療界에 잇서서 少壯部隊의 先陣을 차고 乘乘長驅의 氣勢를 모라 古强豪의 堅壘에 肉迫하고 잇는 氏의 英雄的 姿勢는 그대로 昔日 毛麒聖先生의 少壯時代의 面貌를 彷彿케함이 잇다. 어찌 痛快하지 안흘까보냐.

明快한 頭腦에 纖細한 情味를 加한 人間으로의 品이나 任務 親切하고 正確 緻密한 技術家로의 모습이나 어느것하나 嚴親을 닮지안흔것이 업다. 實로 嚴父의 子를 닮은 氏가 이제 곳 咸興에서의 嚴親의 地位를 그대로 興南에서 獨得하리라는 것은 想像하기에 어렵지안흔 事實이다.

氏는 일즉이 咸興永生中學을 거처

布木商界의獨步
朴泰均商店 朴泰均氏

大興南布木商界에 壓倒的 勢力을 扶植하고 無往不可의 境地를 밟아는이는 무를것도업시 저 朴泰均商店의 主人公 朴泰均氏 그 는바로 興南商業界에 花形的 地位를 確保하고 잇는 것은 正히 한개의 驚異가 아닐수업다 말하자면 氏의 非凡한 手腕과 卓越한 才能을 짐작할만하다. 허나 氏의 今日의 成功도 決코 波瀾이 업든것은 아니다.

氏가 京城서 協和商會를 經營하던 昭和五年의일 原來 手腕가 卓越하여 順風에 돛단 듯 나오다가 그만 家事에 關係로 奔走하는 바람에 萬事 休矣로 歸鄕하는수밧게 업시되엇스니 때는 昭和九年 本來 밝은 眼識이 布木商이라 시작하게되엇스니 이때 大阪某大商店을 비롯하여 京城地方某商店으로부터 後援을 엇게되니 商勢는 日振하여 드디어 今日의 大成功을 거두게된것이라한다. 現在는 本店을 內湖에 두고 西湖와 興南里에 支店을 두어 同生을 도모하여금 직히게하니 布木商界에잇서서 氏의 活躍은 實로 大興南의 商界를 風靡할 만하다.

商界에잇서서 氏의 活躍은 實로 놀랄만하다. 近者에는 纖物統制의 「스푸」에 興南 一手販賣權까지 獲得하여 더욱 旺盛한 意氣를 보이고 잇는것은 그다음 大興南의 商業界에 氏의 存在는 날로무게를 더하고잇다.

薪炭商界의雄
大林薪炭商會 宋應燮氏

氏는 事實上 唯一한 雄이 興南薪炭商界에서도 雄辯이업는 勢力을 가지고잇는 그러면서도 큰소리 한마디업시 조용하게 다소곳이 꾸준히 해나가는 大林薪炭商會의 主人 宋應燮氏다. 그러므로 氏의 實業界에서 차지하는 地位는 벌써 이만저만이 아니다. 特히 넘지못한 가운데서도 오직 勤勉과 誠實을 미천으로 日夜奮鬪하여 今日의 成功을 이루엇다는 點에서 氏는 더욱 빛난다.

氏는 原來洪原出生으로 來興하기는 昭和七年 商勢와 物情에 明하여 丸太까지를 兼하여 朝鮮會社 相對로 大活躍을 開始한結果 不過 六七年사이에 저러한 大成功을 거둔 것이다. 淳厚하고 篤實한 氏는 압날이 더욱 企待된다하겟다.

龍興의指導者
韓哲容氏

氏의 故鄕은 雲南面中水里 現住는 興南邑龍興里인 바 今年三十一歲의 靑年紳士로서 일즉 咸興永生中學을 卒業한 後 雲南面會計員을 歷任 現今에는 雲南面議員 本宮小學校學務委員 (開設以後四個年今日까지) 同校後援會總務等의 公職을 가지고잇스며 龍興中心의 社會事業에 잇서서 許多한 功績을 남기엇는데 特筆할것은 本宮小學校創立에 必死的努力을 한 것이엿스니 同校의 創立과 勝致는 오로지 氏의 功勞라할수 잇다. 卽氏가 二十七歲에 學校의 位置를 現在의 곳으로 勝致하기爲하여 最善의 努力을 다한結果 이에 成功하엿으며 또한勝致에 所用되는 敷地五百餘圓도 私財로 써 이를 負擔하엿고 本宮工場基地八十萬坪買收에 盡力하여 여기에서 一萬圓의 寄附를 어더 同小學校를 設置하게 되엇다한다. 이와 가치 氏의 社會事業家로서의 手腕과 熱情은 讚頌하고 도남음이 잇는데 그리함으로서 氏는 新興中心七個里在民의 尊敬의 的이 되어잇슴은 勿論 萬事에 업서서는 아니될 中心人物로 되여잇다.

昭和五年에 來興하자 新設賣所一手를 經營하여 昭和九年에 興南精米所에 拜任하여 만드러서부터 國勢는 日進하여 도드어 同業界 今日의 興隆을 이루엇다. 一般의 信任이 두터운데 市民的 行事에 널리 無償으로 出動하여 社會事業에 對하여 留意하여 將來 餘力이 잇는대로 아방面에 一助가 되고십다하니 고마운生覺이다. 氏는 實로 興南中堅部隊의 一人으로 그將來는 더욱 企待된다. (寫眞은劉竹烈氏)

商界의重鎭
劉竹烈商店劉竹烈氏

氏는 原來 咸興出生으로 明治時代에 西鮮 來興하다 咸興道의 名望을 보여준 그 四國의 名物이 된 活動家다 最初를 經驗하고 任用한 事務에 正直과 信用 을 모토로 倒 外에 非凡한 활약하여 全 日의 成功을 이 둔 것이나 可

商界
(一面續) ... 그리고 ... 興南의 大實業家로 ... 이 四五十萬의 資本을 가지고 ... 他의 追從을 不許하는 威勢를 가지고 잇다 한다 ...

企業界의 鬼才 金正淑氏나 漁業物取扱業者에 咸南第一을 자랑하는 수산業界의 雄 尹氏의 얼굴을 興南에서 볼수 잇다는 것은 主宰者의 賢明과 野心을 말하는 것으로 자못 愉快한 바이다. 金氏를 創刊에 協力하여 出版하는 「興南」에게 우리들은 賞讚을 보내자.

當面 四個의 勤力에 ... 이 그리고 高貴한 業績이다 또 이제 겨우 二十八歲의 靑年企業家가 大興南의 印刷界를 獨占하고잇는 山本印刷所의 主人 文錫禧氏의 令息이다. 그런데 이印刷所의 經營主가 하로아침에 된것이 아니라 六年前에 一百圓의 資金으로 設立하여 온갖 苦難을 겪어 오늘에 이르럿다 이러한 企業家로서의 手腕은 正히 한 賞讚할 바이다. 氏와 가치 優秀하고 多能한 靑年實業家를 우리 興南이 가지고 잇는 것은 크게 기쁜일이다. (寫眞은 文鍾禧氏)

第一緊急動議

지말라는法이업슴에 往事는往事로하여두고 이제로부터나 翻然悔悟하여 明朗興南의 礎石이되는 敎育機關의 擴充을爲하여官民은 一致協力 最大限의 誠意를 보여주기를 要請하만 갓지 못할소하다. 우리들은 바로잡고말하노니 敎育으로본 興南의 過去와 및 現在는 恥辱이라는一語으로 다할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이恥辱을씻서버리기爲하여 한거름더 나가서는 罪를 贖하기爲하여 猛然히 反省하는同時에 우리들에게 또한 諸君에게 提示된 贖罪의길을 向하여 斷然 勇敢하게 邁進하여야할것이다. 나는 只今여기에서 몃가지 緊急動議를 提出하여 諸君의 誠意잇는 吟味를要請코저한다. 小學校舍의 增設計劃은 이미 成案을보아 着着實行에 옴길터이라하니 當面觀望의 態度를 가짐이 宜當할줄하나 다만 한가지 所願을말한다면 增設計劃에 잇서서 어데까지 姑息的方針을 버리고積極的이기를 要望하여 마지안는것이다. 무슨말인고하면 今後新設校에잇서서 적어도 十六學級을 單位로하여 開設準備를 할것이라는것이다. 그리치안흐면 그것은 언제던지 紅爐點雪을 免치못할것이다. 바라건대 當局者諸君은 敎育興南의 秦鏡을拒미는데 가장 野心的이기를 忠諫하여 마지안는다

◇第一緊急動議 商工學校設置

朝鮮第一의 商工都市 興南에 商工學校하나쯤 잇는것은 面目維持上으로도 當然히 問題되어야할일이지마는 그까짓 面目쯤따위는 可謂 閑人閑事에 屬한 군소리인지라 不問에부치지마는 實地로 興南의實現에 비치여본다면 이것은 져편으로 緊急以上의 問題가아니면 안될것이다. 人口八萬을 擁하는 大商工都市의 明日의 飛躍에 각추기爲하여 人的資源의 充實에 鋭意注力하는것은 賢明한當政者의 當然한 責務이오 信念일것이다. 이의 具體的方法으로서의 商工學校類의 設置가 問題되는것은 그의 必然한 歸趨이다

(六面續)

朝鮮總督府出版教科用圖書販賣所

書籍運動具 文房具紙類 教育勸化物 理科學標本 楽器寫眞機 具類其他

內地朝鮮各種雜誌取扱

東文堂書店
李漢喆
興南驛前　電話四四〇番

李淵濟

李淵觀

興南邑雲城里
李翊魯

興南邑內湖
朝鮮料理 琴松閣
電話一一八番

興南魚菜市場株式會社
社長 上野百合一

總督府指定 吉田商會御指定
海陸運送業 三興商會
興南驛前
內地朝鮮滿洲各地間一般貨物運送取扱
興南咸興西湖津浦其他各地間馬車運搬

興南實業界의至寶

泰盛商店主 崔周星氏

興南에잇어서 氏의存在는 벌서 너무有名하다 大泰盛商店의 經營主로 實業界에빼치고잇는氏의 威勢는 그야말로旭日昇天의 勢를保持하고잇다고할만하다 所向無敵! 興南의商業界를는마치氏를爲하여 꾸며진듯한感조차 업지안타 라氏의出發은너무希望하고 氏의足跡은너무 燦然하다 眞人의 驚異이어야한것도 無理는 아니리라

昨年度에는 興南商工會議所會議員의 選擧를無競爭으로 통과하여 眞實의 實業家로 許하더니 今番邑會議員選擧에 出馬하자 亦是絶對多數로 當選되어 一般邑民의 支持와 信任이 굉장히 두터움을보여준 氏가이제겨우 三十歲의靑年이라면 아마 누구나 다놀날것이다.

이로써 따진다면 氏가 數萬의 巨金을던저 泰盛精米所를일으킨것은 바로 二十六歲때일이니 그草創, 그創業, 그經營, 그經營이 얼마나 非凡한가를엿보기에 足하다

快刀로亂麻를 버히는듯한 決斷力과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悲壯한 覺悟로 언제나 積極的攻勢를 取해오는것이 氏의事業에對한態度요 方法이엇나니 이러한事業家的氣質우에 商略마저 超人的才能을 가추엇스니 氏의 今日의成功이 또한偶然이아닌것을 알수잇슬것이다

壯年의人, 氏의經歷에對하여多少궁금해할이가 업지안흘듯하매 아래에 簡單히 적어보면 氏는 本是 咸興出生으로 昭和二年度에 咸興商業學校를나와서 곳 朝窒會社에 就職하엿섯다. 그러나元來 非凡한才能과 不屈의精神이强한 氏에게 多分히機械的인 事務員生活은 氏의脾胃에 거슬엿슬것은 勿論이다. 그래서 就職한지 한해가 조금지난 昭和三年度에 斷然 辭表를버리고 興南나와 그길로곳 西湖에서 泰盛商店을經營하게되엇는데 只今은 大泰盛商店으로 니 고하지마는 其實 자조그마한 店房이야말로 後日 大泰盛商店의母體요 興南實業界의麒麟兒 우리崔周星氏의搖籃이엇든것이다。爾來 七年間 氏는 實로商道를 닥고 理財를배우고 攻防의秘訣을깨닷고 그리하여 昭和十年을 마지하자 泰盛商店을 擴張하여 大精米所를 이르키게된것이니 泰盛商店의 第二期的出發은 實로이리하여 始作되엇던것이다

氏는 또한 人品이 高雅淸潔하고 手腕이 非凡絶倫하여 明朗興南建設의 主役이될것을 約束하는바이매 우리는 아프로더욱 氏의健康과 自重을빌어마지안는다

에 그리고 孫女學生은 京城中學에 各各在學中이라하니 어떤 人的資源의 育成에 成功한 氏야말로 千萬長者以上으로 眞人傑然의 標的이되지안흘수업다 全朝鮮都市對抗에 出戰할人物을뽑는다면 우리興南으로서는 누구보다도 亦是氏의出馬를 懇請하는것이 가장 妥當하리라生覺함은 子女敎育에잇서서의 氏의 超人的熱意만은 實로全朝鮮的의 野心을許하기에 足한까닭이다。(寫眞은 都暐洙氏)

興南社會의元老

人格의人 安興奎氏

興南社會의元勳이며 愿人으로서 眞人이요 的이되어잇는분이氏다 氏는 今年五十八歲의 溫厚淸廉한人格의 所有者로서距今卄一年前에 咸興으로부터 來興하여 數年間 釀酒業에投身하여 實業家로서의 敏腕을發揮, 當時技術的으로 微微한斯界에잇서 새로운機械를 購入하며 새로운釀造法을 試驗하는等 道內斯業發展에 貢獻한바큰것은勿論 斷然優秀業者로서의 地盤을構築하여 累巨萬의財産을모아 興南實業界의王者로君臨하엿섯는데其後생각한바잇서 實業界에서洗足하고오로지社會事業에 몸을바처

지금까지興南社會의各般施設에잇서氏의손이 가지아니한것이업는中特히敎育事業에는獻身的이여서 昭和四年에는 無産兒童의育英機關인 東振學院長으로就任,在任七年間에 莫大한 私財를기우려 新校舍建築等, 其功勞는 자못多大한바잇다. 其後昭和十二年에는 三成學院長의 重任을마터 亦是 在任二年間에 工費一千五百圓의 院舍改築을하는一方 院內의 設備充實에 努力하여 同學院으로하여곰 初等學校로 遜色업는機關을 만들게한功勞 氏는 可謂『敎育興南의아버지』이다.

氏는 이方面에만 努力할뿐아니라 前邑會議員, 學校評議員等의公職도 가지고잇서 邑民의總意를 代表하고 邑民의 利益을 힘잇게 主張하는데잇서도 亦是 功獻한바 적지안타.

잇서서도 元勳的地位를 確保하고잇스니 八百餘의兒童을 擁하여 數로보아 咸南第一을 자랑하는 東拓學院의 理事長으로의 要職에잇서서 多難한學院經理에 能熟한手腕을發揮하고잇는 點으로보아도 넉넉히 氏의興南敎育界에서의 位置를차지하기에足하다

하나 以上事實보다도 氏의特徵的인 그리고 社會的價値를要求하는一面은 子女敎育에 對한 超人的誠意라하겟다。이點에잇서서의地位는 두말업시 全朝鮮的인同時에 萬人의垂範이 되기에 足하다。百萬長者라면 모르되한낫 微微한 醫生의 몸으로 저러틋 宏壯히 子女敎育의 實績을보인다는것은 可謂 驚異에値할만하다。

일즉이 東京帝大理學科를 卒業하고 物理學에잇서서는 全朝鮮的權威인 맛子弟 相祿氏를비롯하여 次女相福氏는 京城女醫를나왓고 次子 相旭君은 平壤神學校에 三子相福君은 城大醫學部에 四子相眞君은 於中五年

宗敎界第一人者

謹嚴剛直한 都暐洙氏

興南宗敎界에잇서서의 氏의存在는 實로文字그대로 獨步的이다 特히內湖敎會設立以來 同敎會에對한氏의貢獻은 物心兩面으로 可謂全的이어서 敎徒의 氏에對한信賴와信望은 말할것도업고 一般社會人도 氏의功勞에對하여는 크게敬意를表하고잇다 元來가先覺者이라 氏의存在가 宗敎界에서만이 아니라 敎育界에

興南의緊急問題

敎育機關擴充과 漁港施設의完備

咸州郡學校評議員 曹錫禧氏 談

國家나 社會가 그發展의基礎를敎育에 둔다는것은 贅言을要치안습니다

그러므로 한國家의 興隆을꾀하는者나 社會를 근심하는者반드시 敎育에 손을내미는것은古今이업고 東西가업습니다 가까이로는 우리維新史가 그것을 證明하고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大興南의 建設을 云云한다면 그것은 먼저敎育問題로부터 出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興南의 敎育現實을 살펴본다면寒心하기그지업습니다. 私設學院이만코 또 忠實하기론 全朝鮮을通하야 第一位에 處하리라는것은 一面반가운現像이기도하면서 도한감지안흔現象이기도 합니다. 웨냐하면 敎育機關의 貧困을意味하는것이니까요 이러가지곤 新興都市興南의面目을 維持하기가 困難할것입니다. 將次 爲政者의注意를 바라고십습니다.

그리고 工都로만 알려저잇는興南에 西湖津과의 合倂에依해서 漁港興南이라는 새名稱이 덧붓게되엇다는것은 누구나아는事實입니다. 그런데 所謂 全朝鮮에서 第一가리라는 漁港으로 그施設을 살펴보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漁港興南이 一般邑民의 經濟生活에 어떠한關係를 가지고잇느냐 하는것을 생각할때 우리는 그施設이라든지 其他모든關係에對한 當局의態度를 注意하지안흘수 업습니다 좀더規模를 넓히고 施設을 가추어 産業興南의 百年大計를 꾀하는것이 大興南建設의 基礎工事의 하나이라고 밋습니다 그밧겟것은 다른분들도 이야기할려니 于先 喫緊한것두가지만 올엇습니다

市街地計畫과 築港問題促進

興南邑會議員 朴德容氏 談

當세요. 大興南을建設하는데는 여러가지 重要한問題가 만켓지오마는 나는 그 基本問題로해서 于先 市街地計畫의促進과築港問題를 들고십습니다. 바로말이지 興南처럼지저분하고 째이지못한都市가 어데잇겟서요. 그가 날地境이지오. 좀더整頓해서 사람들이 愛着을 느끼고살만한 都市를 맨들어야지안켓습니까 여기서 所謂市街地計畫促進이라는 根本的要求가생겨나게되는것입니다. 勿論 市街地計畫은 當局에서도 着着準備를 進行시키고잇는것이事實입니다. 허나 豫算關係니 머니해가지고 우리의 希望대론 되지안는듯합니다. 여기서 所謂 促進의必要를느끼게됩니다. 其間이 一致協力해가지고 이의 促進을 圖謀하는것은 大興南建設이라는 大目標를 아

면은 우리들의 이저서는 안될 任務겟지오.

그리고 築港問題입니다. 邑民의 多年間要望임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實現을못보고 잇다는것은 至極히 遺憾스러운일입니다 어느 築港問題가 興南의 經濟的地位를 向上시키는데 어떠한關係를 가지고잇느냐하는것을 아는사람이라면 이問題가 大興南建設에 基礎的條件이 된다는事實을 것사리 首肯하리라고 밋습니다.

漁港興南飛躍

興南西湖津公醫 興南邑會議員 李仁煥氏談

工都興南이라면 이것은 벌서 全日本的으로 通用되는말이지마는 漁港興南이라면 大端히 귀에 서투르게 들립니다. 하나 興南이 漁港이라는 생각다가끼를가지게 되엇다는 事實입니다. 그것은 勿論 西湖를 삼켜버린뒤에 事實입니다. 西湖가 獨立的地位로부터떠나 興南의 한行政區域으로의 末席을 차지하게된것이 事實이以上 如前히『漁港西湖津』이라하여 獨立的으로行動을 하려든다면 그것은 分明히 宗家興南에對한 不遜이오,도저히 容認될수업는일입니다. 그러므로 至今까지의 工都興南은 이제 또 漁港興南으로도 불리게되엇습니다.

어 하나 더붓는것이라고할는지요 어쨋든 이것이 興南의大를 意味하게 되는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한가지 生覺할問題는 工都興南과漁港興南의 어느便쪽이 더우리(朝鮮人側)生活에 直接的인 關係를 가젓느냐 하는것입니다 이런比較論은 그만두고 어째든 漁港으로의地位가 相當히 重要한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러면 이重要한 地位에對한 興南自體로의 自認識이 要求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果然 얼마나한 自認識을 가지고잇는지 나는 모름니다. 그自認識의 表現은 勿論 漁港그것의 有形的 形態를 通하여 나타나야할것입니다. 다시말하면 施設에잇서야하고 擴張에잇서야하겟다는말입니다. 漁港興南을 最大限으로 發展식히는것이 大興南建設에잇서서 基本要件의하나이라는것은 아모리 머리가 나뿐사람이라도 首肯하기를 주저하지안흘것입니다.

一方主義를 全體主義로

本社興南 金奉鶴氏 談

西湖津이 興南에合倂되기는지난해二月이엿고 記憶됩니다 그때에나는 反對運動조차 合倂되도 前途이스러웟고 그야 興南이發展

판의 合倂을끄리는개나 마찬가지心理겟지요. 多小 벼슴드래도 재접을소고사는것이 남의집첫방사리하는것보다는 나흐니까요허나이것은 다욕심이고 已往興南百姓이된以上에는 나로서 希望이 업지도안을테지오.

于先 내自身이 아니 우리들自身이 興南百姓이다하는 自意識을 가지고살수잇도록 行政當局에서는 行政의方針을 세워달라는것입니다. 무슨말이고 하면 文化施設이나 其他모든點에잇서서 西湖를 殖民地取扱을 하지마러달라는것입니다.

어건西湖만이아니겟지오 모든 新附地帶의 한결가튼 要求라고 생각되는데 어러한 모든 要求가 適正한 結果를 보게될때비로소 大興南은 이루어질것이라고밋습니다.

刊行辭

本社興南支局長 徐順熙

따는 地方文化의實現이라는 分에넘치는意欲을가지고 着手한것이 이조그마한計畫이엇습니다。原來가 微力이라 어마한 事業에도 萬能敵略의實을 奏하기는 어렵다는觀點이엇덧가를 니다。드디어 無力은 如實이暴露되고말앗습니다。스사로 慚愧를 주체하지못하는 所以입니다 못 이일의 趣旨에 찬동하여주시고 여러가지로 援助와 支援을 부여주신 有志諸氏에게는 마음으로의 敬意와 感謝를 드리는바입니다 삼가 몃마디로 인사의말슴을 삼습니다

興南社會의重寶

元老格의 金龍洙氏

興南은 大體로보아 다섯區域에 나눌수잇스니 龍興里, 九龍里, 天機里, 內湖里, 西湖里이러케된다. 그런데 製鍊所와 朝窒會社 社宅街를 除하여 年復年 發展을 繼續하는新興市街 九龍里에잇서서 市民의尊敬과 信任이 남달리 두터운이를찾는다면 翁이分明 세손가락이 꼽아지기前에 꼽아저야할분이다。비록五十八歲의老境을 마지하엿스나 오히려 旺盛한事業熱이나 敎育事業에對한熱意는 一般의師表가되기에 넉넉하다. 翁이잇슴으로하여 九龍里는더욱빗난다

翁은 本始咸興出生으로 이곳에 移住하기는 무릇四十二年前이라하니 翁의半生이야말로 九龍里의 開發史를 意味한다고도 할만하다。少時엔 商業에 從事하엿스나 九龍里에移住하면서부터 農業에着手하여 二十餘年間을從事하엿다하니 翁이야말로興南水産界의元老이다 하여 그분한늠의 手綱하나묫엇고 여거面目업소이다。』하는것은 翁의謙讓…………

昨年度엔 皇軍慰問品으로 金一千圓을 北支戰線에 보내엇고 今年에들어선 朝日小學校와 興進學院에 莫大한 金額을 寄贈하여 兒童敎育에 貢獻한것은 한게 翁의 가륵한뜻을 말하는것으로 一般의 讚賀가 크다

그리고 興南實業界明星部隊의 一人으로 將來의囑望을밧고잇는 저金昊淵君은 바로 翁의 令息이다 君은 일찌기 龍井大成中學을거처 朝窒會社에서 三年間 試鍊을쌋코 現在는 惠山郡洪君里에서 洪君里供給所分店을 經營로 敏腕을發揮하여 商界에大躍進을 보이는 靑年實業家로一般의 期待가큰바 翁이 어린뜻 浚敏한 令息을 가젓다는것은 커다란 자랑이오 기쁨이 아닐수업다 君이 興城에서 닥근手腕을가지고 興南本據로 돌아오는날이면 可謂 衆星無光의 異彩를 發揮할것도 想像無難이다 (寫眞은 金龍洙氏)

親切로奉仕!

ハヤシ商店林成河氏

『ハヤシ』商店하면 洪原商店에 다음가는 一流食料品商으로 家庭用品一切까지 完備되어잇는까닭으로 主婦들은 나도 나도하고 店門을 두다려 우리『ハヤシ』商店의 繁榮을도웁는다 主人은 또主人대로 親切과 奉仕로『ハヤシ』黨에게 갑는다『ハヤシ』商店이 看板을 내건지 不過四年에 群小競爭者를 차치고 悠悠히先陣을차지한 今日의빗나는成功을어든것은 모도이때문이어 틀림업다

主人 林成河氏는 原籍을洪原에두고昭和六年度에來興하여 快浩氏의配下에서 商業을擔當하고 手腕을 發揮한지 무릇五年만에 事業의修業을 마치자 드디어 直主俳氏의配下를떠나 一千圓의 資金으로 獨立한것이곳 今日의 ハヤシ商店이다 年取引高가 五萬餘圓이라하니 놀랍지안흔가 氏의 年紀 이제겨우 二十五歲라하나 그前途의 洋洋하기란 이를데업다하리라.

敎育界의先覺者

實業家 金道善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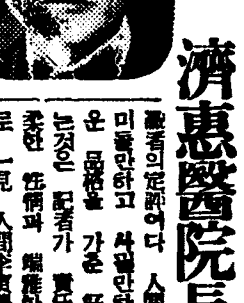
快活하고 씩씩하고 大膽한氏는 分明히 興南市民社會의 一異彩이다。氏는 理解가빠르고 同情心이 만키로도 有名하야 氏에게對한 一般邑民의 敬服과信賴는 相當히크다。特히 敎育事業家로서의 氏의地位는 燦然한바 엿스니 內湖東振學院을 비롯하야 西湖東光學園 厚濟三成學院等 各私設學院에 對한氏의 寄附는 相當히 多額에 達하야氏의 이方面에의 남다른 熱誠을 엿보게한다。特히 子弟敎育에 對한 氏의 宏壯한熱意는 屢聞에有名하야 一般의 稱頌이 자자하다

그리고 一般社會事業에도 多大한關心을 가지고잇스니 氏와 가튼이는 實로社會의 模範이오 國家의 模範이라고할만하다。興南社會에서 氏의地位가 重要한 所以를 가지게될을 이까닭이다。

氏는 本籍을 本郡連浦面에두고 來興하기는 自今十一年前으로 東朝鮮醸酒所出張所를 經營하게된것이 어곳實業界에 氏가因緣을맷게된 緣由라한다。爾來氏의非常한努力에依하여 一躍興南天地에 爐燃酒二白의 貴金時代를 演出하는이라는 實業家로서의 氏의力量도 新然斯界하다하게하다。(寫眞은金道善氏)

興南醫療界至寶

濟惠醫院長 李寅穆氏



興南醫療界에잇서서의 우리濟惠醫院의 存在는 燦然한 바가잇와갓고 부드러운 春風과가트다 可히 울워마실만하고 可히 가슴을 헤치고 마저드림직하다 어 얼마나 무서운 그리고 어루만지운 魅力이냐

濟惠醫院에 비저내는 雰圍氣그안에서하고 은寂하고 悄然하고 고요한 그리하여 즐거운休息조차 맛보게하는 그雰圍氣가 大膽 어데로부터오는것일까? 院長 李寅穆氏의 人間으로의 香氣가 풍기는까닭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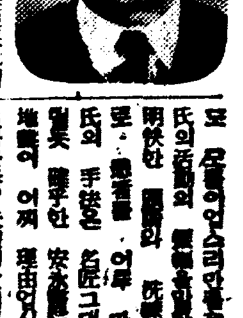
技術家李寅穆氏에게 開業醫로의 一流水準을許하는것은 一般患者의 定評이다 人間李寅穆氏가 미쁘만하고 사랑만하고 하튼다운 品格을 가즌 好個의紳士라는것은 記者가 責任지다 그하朱한 性情과 端雅한風貌은 實로 一見 人間李寅穆氏와 같을 規定하게한다 同時에 어것은 者李寅穆氏의 絶對한 好條件이 아닐까 여기에 濟惠醫院의 魅力이잇고 繁盛의가잇는것이다

氏는 일직이 滿州中原을거처 세브란스醫專을 卒業하기는 昭和六年 하면뒤 母校에서 研究를 거듭하고 昭和七年에 來興하여 當時 咸興濟惠醫院의 分院이던 興南濟惠醫院을 引繼經營하게된것이 開業醫로의 첫出發로 오늘에 이르렷다한다

氏에게 交友가 만흔도 注目할만한 事實이다 이는 氏의 多情한 性格을 보이는 一面이리라 아모리나 興南에 氏가 계시다는것은 限업시 든든한일이다『善隣으로 오래오래 살아지이다』(寫眞은 李寅穆氏)

醫療界의奇才

安永醫院長 安永徹氏



興南醫療界一方의 雄 安氏의 活動은相當히 精力的이어서 中堅部隊의 存在를如實히 말하는듯하다. 安永醫院하면 三尺童子라도 알것이리만큼 有名하다 氏의活動의 範圍를 알만하다

明快한 頭腦와 敏捷한 技能으로 患者를 어루맛저가는 氏의 手法은 名匠그대로다。저말로 聰子한 安永醫院 今日의 隆盛이 어찌 理由업시 이루어진다하리? 失敗의 苦杯를마시는 初期의 苦鬪는 相當히 悲壯한 것이엇고 精進이엇든까닭이리라

氏는 일찌기 總督中學을거쳐 세브란스醫專을 卒業하기는 昭和七年, 興南에 安永醫院을 設立하고 醫界에 進出하기는昭和十年부터이다

氏가 어제 一萬三千餘圓의巨金을 드려 新院舍를 計畫中이라하니 어는 氏의 어만저만이아닌實力과 希望에 활용을 말하는것으로 氏의存在가 興南醫療界에잇서서는 絶對的이란것을 否定하기도어렵다(寫眞은安永徹氏)

木材商界의巨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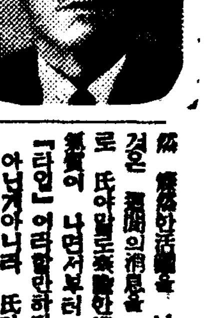
丸都木材店 李次龍氏

標榜하는 大興南의 發展을마저 幸運萬里一騎當千의 勢勢를 자랑하는이는 眞實로 우리丸都木材店의 젊은主人公 李次龍氏임에 틀림업다 年紀 이제겨우 二十七歲! 그러나 年賣上高十餘萬圓을 헤아리는 大木材店의經營主로 經濟興南에 隱然한勢力을 扶植하고잇다는것은 分明히 한驚異가 아닐수업다 奇才이잇서 그러한가 快腕과 敏務力과 精勤誠實한 執務力과 奇才縱橫의 商略우에 豪膽明朗한 社交性을 더하엿스니 可謂범에 날개라氏의今日이 저러틋 華麗하고 저러틋殷盛하얏도 決코 偶然이아닐것이다 今日의 成功으로부터 明日의 成功을向하여 三段跳的飛躍을 꾀하는 氏의 存在야말로 商業興南의 花形임에 틀림업다

氏는 本始咸州郡下岐面西上里 出生으로 일지가 咸興郡樂淵商店에서 實際商業道의 秘術을硏磨하가 무릇 六七年間 여에한개의 確乎한信念에이르자 昭和十年度에 飄然히 來興하여丸都木材店을經營한것이 今日의成功을거두게되엇된略歷이라한다 大興南의實業界가 靑年을中心으로 움지기고잇다는것은 氏의存在로도 넉넉히 立證이된다할것이다 우리는 氏의보담더큰成功을爲하여 一路邁進하기를 바라는同時에 注目重目을하게 마지안는다

請負業界의覇者

豪膽沈勇한 李起台氏



位가 얼마나 훌륭하고 잇는 存在이는것은 어떠 우리들의 常識이어든다 그리고 어 大興南建設에 一翼的任務를 遂行하고잇는 興南請負業界에 新興的步的地位를 擁하고엇는 氏의 姿勢야말로 英雄的이라하지안흘수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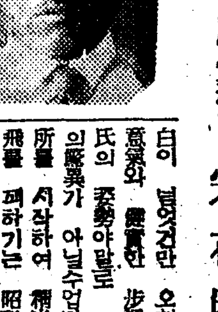
快刀로亂麻를버이는듯한 決斷力과 淸濁을 한꺼마시는 大膽度를가지지안코는 저러케 잇슬수어려운것이지만 氏가 界에서斷호고잇다 로 氏야말로 天稟의 性品 沈勇한 氣魄이 나면서부터 請負業者的『타입』이라할만하다.

아닌게아니라 氏가 請負業에 從事하기는 무릇二十年間 自今 十二年前 朝窒會社가 創設되는해이라한다 그리고보면지난十三年間의 土木工事를바라볼때 東洋西海岸日이 업던그동안 氏의 活動을헤아리기에 足하지안흘가

氏는 本是京城出生으로 都市『興南』으로부터 年條를가치하느니만큼 只今은市民의 一重鎭으로 一般의信望을 한몸에모호고잇다 (寫眞은 李起台氏)

實業界의元老

寬厚仁慈한 宋在明氏



興南 元老格의한분으로 寬厚한風格과 仁慈한性品은 邑民의 尊敬과信賴의 對象이되어엇다 老少를가리지안코 淸濁을끄러지안는點에서 氏의存在는 實로 四面春風的이라고할만하다 거기에匹敵한 事業慾과 그事業慾을 達成하기에足한 手腕을가추고잇느니만큼 氏는 興南實業界에 엇서서도 斷然 優秀한 地位를 確保하고잇다。靑年實業家群의 龍跳頭逐인 興南에서 班白이 된것만 오히려 所謂 意藉와 健實한 步調를 보이는 氏의 姿勢야말로 一의異彩의驚異가 아닐수업다 德興精米所를 시작하여 精米業界에 雄飛를 꾀하기는 昭和九年부터요 西松組配給所를 마러 一般活躍을보이기는 昭和十一年부터라한다 그러나 氏를 보는 角度를實業界에限하는것은크게不當하다. 淳厚하고 圓滿한人格의힘을通하여 氏의存在는 어데까지 全興南的이여 全社會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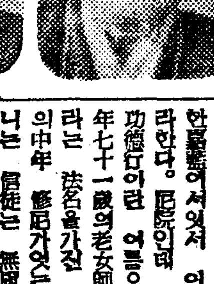
市民的의 會合이 잇슬때마다 흔하 代表者的地位가 氏에게로가는것으로보아도 足히 世間의消息을 짐작할만하다. 우리는 興南社會의健全한 發展을爲하여 氏의健鬪를빈다。(寫眞은 宋在明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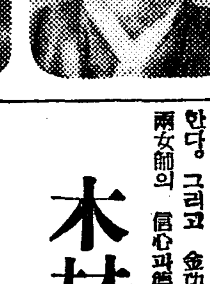
興南鑛業界에獨步

永興鑛業所主 朴熙善氏

무어니 무어니해도 가장男性的인事業을 든다면 亦是鑛業이 아닐까. 어적게까지 보따리를들려메고 고무신을 질질끌든사내가 하로밤사이에 一躍千萬長者로發轉하여 自家用自動車를 화물이 長安大路上을 내天地로활보할수잇다는것은 正히한개의壯絶한 痛快味가 아닐수업다. 한데 世上에 이런일을 可能케하는 機緣은 오즉鑛山業이 잇슬뿐이아닌가. 그러라 男兒로 한番할만한일임에 틀림업스리라. 한데 우리 興南에는 이러한事業에 敢히발을 드려놋는이가 몃히드문것하다 鑛業興南의 榮冠이란 實로 넘무여처구니업서 어땡에도 사내가 잇는가를 疑心케 한다. 하나퇴맹기다리라, 鑛業興南의 孤城에依據하여 十五年을 하로가치 큰旗를 지키고잇는이가잇스니 우리永興鑛業所의 主人公朴熙善氏가 바로그분임에틀림업다. 氏의存在야말로 興南最大의異彩가 아니어서는 안될것이다. 無數히 反復되는 成敗속을 通하여 鑛業家一流의 興奮속에

서 五十고개를 맏복넘어선 朴熙善氏 氏의 얼굴에서는 언제나 明朗한 우숨이 자최를 감출줄모르니 어는 여마도 氏의 鑛業家로서의 저 大成功을 表證





하는것이 比較的危險律이 만타는 鑛山業도 氏의 境地에이르고보면 벌서 安全코스, 다못오늘의成功에서 明日의成功을 向하야跳躍이 잇슬뿐이다.

氏는現在 永興郡仁興面永興里에 二國의直營鑛區를 가지고잇스니 永興鑛山 伏見鑛山이 곳 그것이다. 成績은 어떠냐고 물엇드니 아직은 發表하고십지안노라고하면서도 明朗한 우숨의表情을 감추지못하다. 아모튼 興南에 中堅

校하나세우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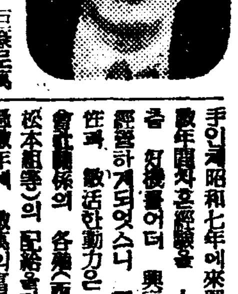
어야기는 暫間 딴갈래로 뼤는다.

九龍里에 이르면 절스(寺洞) 이라는 마을이 잇는데 여마을지나 山언덕미트로 조그마한觀音寺에서 이튼하여觀音寺라한다. 庵室인데 여절에는 金功德이라는 어릉으로通하는 속年七十一歲의老女師와 金海蜂이라는 法名을가진 當年四十五歲의中年 修道尼가잇는데 이절에단니는 信徒는 無慮八百餘名이라한다. 그리고 金功德行, 金海蜂 兩女師의 信心과德望은 道內에 노파一般의尊敬을밧는다고한다.

헌데이金功老女師야말로 우리의 鑛山王 朴熙善氏의 母堂이며이를 唱업고 金海蜂女師는 氏의 先室이오 觀音寺는 距今十二年前에 氏가單獨으로 巨金을 내여 經營하엿다하니 이런小說以上의 奇異한 實話가 또다시어데잇슬꼬? 그立信의 經路를 一一이적는다면 그야말로 純正宗敎心理의一面을 엿보기에足하지마는, 도어찌生覺하면 讀者의想像에맛기는것이 보담더 含蓄이잇슬성도하여 여에省略하거니와, 이事는 興南에가진 千古의美談으로

木材商界의權威

箕斗木材商會 金斗鍾氏



興南 實業界一方의 巨擘으로 萬斤의무게를 진이고잇는이는 무를것도업시 우리箕斗木材商界의 第一人者로 例의 旺盛한 活動力과 正確한商略은 戰必勝攻必取의偉力을 發揮하여 斷然大興南實業界를 制壓하는氣勢를보인다 氏는本籍 咸州郡下岐川出生으로 實業家로의 天才的素質을 갓추엇스니만큼, 識眼에 오래머물러잇기를 주저하지안엇슬것은 當然하기에 어쩌지안타.

手인게昭和七年에來興하여 爾來數年間에 木材商經營을 十萬圓으로 때마츰 材木商이더 興南木材商會를 經營하게되엇스니 輕快한 社交性과 敏活한活動力은 드디어朝鮮會社關係의 各方(西松組,間組,松本組等)의 配給을맛게되어 不過數年에 數萬의富를 이루게되엇스니 氏의 實業家로서의 手腕과 아울로 幸運을 짐작할만하다.

昭和十二年八月 咸興에合同木材株式會社가 創設되자 氏는欣然히 同社에 加入하여 一翼의 任務를 다하엿스나要하는 時勢는 드디어 氏로하여금 行動의 自由를 要求하는바잇게되어 어에同社에서 同社와의 關係를淸算하고 單獨으로 箕斗木材商會를 經營하게되엇스니 그것은 實로 數個月前의 일이다 이로써可히 商略에잇서서의 伸縮自在한 氏의機敏한 姿勢를엿볼만도한다

氏는도 敎育事業에도 多大한 興味를가지고잇스니 年前實振三成學院設立時 多額의 寄附로學院建築에대하여진것은 아직도 一般의 記憶에 새로운바며 昭和十一年以來 東振學院理事로 同校經營에 誠心誠意하고잇다는것도 特記할만한 事實이다.

以上事實은 氏의地位의 社會的意義를 表徵하는것으로 벌써 氏의存在는 一個實業家에限할것이아니라 全興南的으로 多大한 意義를 要求한다할것이다 (寫眞은金斗鍾氏)

鐵工業界第一人者

京興鐵工所 金喜容氏

工業都市興南에서 鐵工業界의 王座를 占領하고잇는이가 金喜容氏라면 누구든지 氏의地位에 對한 羨望을 보내지안코는 못견디리라. 朝鮮人側鐵工業界에 잇서서의 氏의地位는斷然獨步的이어서 規模로나 設備로나 技術로나우리京興鐵工所에 匹敵할아모이를도 우리는發見하지못한다 여기에 金喜容氏의 誇與가잇고 勝利가 잇고 자랑이잇다. 그러면 이大工業都市의 鐵工業界를 完全히 制壓하고잇는 幸運의人 金喜容氏는 어떠한분인고

氏의本籍은 京城이다. 來興하기는昭和四年 朝窒會社 工作所에드리가 技術을 練磨하여 무릇五年間, 氏의 卓越한 技術은 所內의 評判을獨占하다시피엿다. 그러나 氏는언제나 남의게매여지낼한개의 凡凡한技術人은아니엇다. 獨擧의 建設 어겨이야말로氏의 雄圖이엿고 못잇는 念願이엇든것이다. 드디어 꿈은 實現되어 京興鐵工所를 이르킨지도 이미五年이라한다. 只今은 一流技術者 十五人이 不撤晝夜하고 作業에精進中인데 여거서맨들어내는鐵工品은 捲揚機, 精米機, 玄米機, 製麵機, 建築鐵物, 鎔接物製作, 鎔接一式 其他라한다 한테 一流技術者들이 責任製作을 하느니만큼 그製品의 完全性은 斷然他의 追隨를許지 안는것이어 우리 京興鐵工所의 자랑이라한다

그리고 氏는도 食料品商으로도 相當한地位를 가지고잇다 氏의 活動의 多面性을 엿볼만하다.

興南寫眞界異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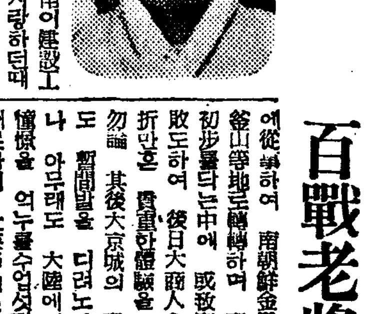
本一寫眞舘 朱雲鶴氏

氏는 實로藝術家적인 靑年寫眞師로 그技術의 優秀한點에서 도한 그志操의 아름다운點에서 斯業界의 異彩로 그前途는 자못囑望된다

氏는 元來 咸興出生으로 來興하기는 昭和四年 數年間 朝窒會社에 勤務한일도 잇엇스나 元來가 藝術的才分을 多分타고난 氏의일이라 그乾燥無味한工場生活이 氏의 脾胃에 맛지안헐슬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이에 氏는 趣味의世界를 차저 寫眞術硏究에 몸을드려노케되엇스니 때는 昭和七年, 爾來四五年間을 一路精進한 結果 技術의 進步는 놀라운만큼 進境을보여 昭和十二年에이르러 드디어 開業하게되엇다 開業二年間에 一般의好評어지자 하엿슴은 勿論이나 또 이큰 氏는 이로서滿足치안코 昭和十四年에 渡東하야『오리엔달』寫眞學校를 優秀한成績으로 卒業하엿는데 在學時 數次의展覽會에 入選의 榮을보앗것이다. 完熟의 域을보앗슬것이다 하자從前대로 興南大會場에 一寫眞舘을 經營中인데 氏는特히 肖像畫에 興味를 느끼며 將次로 方面의研究를거듭하며 아라하니氏의前途는크게 기대된다

商業界의巨擘

百戰老將 申應潤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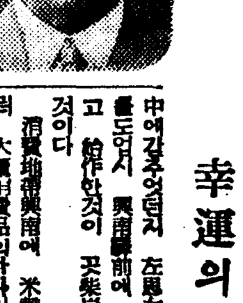
昭和四年이라면 興南이建設工事로한창 好景氣를 자랑하던때이다。이해에 野衣破笠으로 飄然히 興南驛頭에나타난 一位中年紳士가잇섯스니 그때에萬一는지업는!!스리!!君이 그의紙匣을失脫햇다면 그는一金十四錢也의絶財産에 잠을을커라 말리엿슬것이다 그러데 野衣의 中年紳士야말로오늘날興南商業界一角의雄인 實力의人 申應潤氏어다 氏는原來慶北安東出生으로 少時부터 商界에從事하여 南朝鮮金泉, 大邱, 釜山等地로轉轉하며 商業技術의 初步를닥는中에 成敗富도하고失敗도하여 後日大商人으로의 曲折만흔 貴重한體驗을 쌋엇슴은 勿論 其後大京城의 商業舞臺에도 暫間발을 디려노아 보앗스나 아무래도 大陸에의 불타는 憧憬을 억누를수업섯던지 南滿洲로하여 上海等地로 遊歷하는 동안에 成功도만코 失敗도 만핫스니 氏야말로 商界에잇서서는 山戰水戰을 다겪근百戰老將이라할수잇다

氏의 細密精緻한 謀略과 堅忍不拔의 性情은 여기서 오것이라하겟다

氏가 오늘날 數萬의富를이루엇다하나 이것은 다만古物商만으로 이루어진것이아니오 興南本來의 複雜微妙한 商略의現實에서 臨機應變으로 朝計夕成의快腕을 發揮한 結果이어 다름업는것이니 가령時局의 影響으로 한때黃金時代를 謳歌하던 古物商界가 戰線의 擴大를 보이자 斷然히 營業戰線을 擴大하여 運搬業方面으로 巨步를 옮기고잇는것으로도 世間의消息을 짐작할수잇다 氏의抱負를들으면 將次 運搬業方面에 積極的으로進出하여 所期의成果를 거두고야 마리라한다. 氏는또한 社會事業에나 敎育事業에도 相當한理解를가지고잇스니 氏의存在는 여러가지意味에서 興南에잇異彩라할만하다

柴炭商界의巨豪

幸運의人 姜文求氏



어제로부터 十二年前이면 바로興南에朝窒會社가 創立되던그어름해이다 이때 南北朝鮮各地로부터 어大工場新設地帶인 興南을向하여 물밀든野心과 抱負를안고 달려온者 그數헤 어기에겨를이 엇던程度엿스리라는것은 想像하기에도 어렵지안흘일 그中의한분이 곳우리 姜文求氏엿든것이다

氏는 原籍地洪原으로부터 飄然히 來興하자 勝算은이미 胸中에감추어던지 左思右想할 겨를도업시 興南驛前에 根據를잡고 始作한것이 곳柴炭商이엇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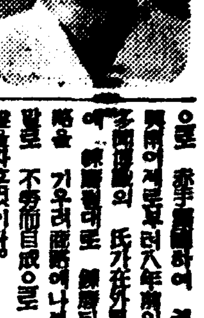
消費地帶興南에 米穀商도더부러 大量消費品의하나인 柴炭業에 着眼하엿다는것은 氏의 前望을 말하는것으로 氏의 明眼이 着着的中하여 不過幾年에 興南柴炭商界의 王座를 차지하게되엇스니 이는專혀 氏의 非凡한 手腕과 機敏한活動의 結果이며 幸運이겟지만은 또한 幸運의人이라 하기를 躊躇치 안흘것이다.

이미 致富 數萬, 今年드리서도 本島打의 大記錄을 氏훔로 獨占하고잇스니 氏의 나즈막한 키 方正한얼굴에서 恒常 微笑의그늘을 찾게될도 어더고이라하거든 짓궂다 할리야 업을것이다。

氏는또한 人品이 溫厚篤重하고 誠實忠直하여 興業舘聞에 信望이 두터운바 昭和十二年度에 興南에 柴炭商組合이 創立되자 氏는 곳理事로 被任되어 例의 機敏한手腕으로 組合의 完成을 爲하여 盡瘁하엿스니 興南柴炭商組合 今日의基礎는 全혀 氏의힘이라하여도 過言이아니다。어리하여 氏의令名은 어머南北柴炭商界를 風靡하고 밝엇스니 例의手腕과 活動과 信用은에 名聲을더한氏의 將來야말로 洋洋하다할것이다。(寫眞은 姜文求氏)

興南社會의重鎭

金熙根氏



高雅淸寧한 人格의人인 氏는 本是本籍을 永興郡橫川面에두고 少時에 滿洲에移住하여 爾來十年間에 巨萬의富를 이루엇다가 滿洲事變이 突發하자 興南으로 옴기어 名하게된것이다.

氏는 往年東滿在留時에 新興學校를 設立하야 敎育事業에 盡力하엿고 今日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有名하야 그 名聲이 자자하다.

으로 赤手로 成功하여 八年間 興南에 자리를 잡은뒤로 多面的方面에 公益事業에 盡瘁하야 그러하여 氏는 只今도 오히려 例의 精力的手腕을 發揮하여 이러한 貢獻을 거듭하고잇스니 그 年紀 五十이 넘엇스나 氏야말로 興南社會에 對한 功勞者이다。(寫眞은 金熙根氏)

興南九龍里 雲興精米所 李豹林

興南邑九龍里 西湖津驛入口 八千代食堂 林淸三郞

興南邑九龍里 靑龍自轉車店

興南邑新上里五六 慶興古物商店 韓斗學

興南內湖 ミナト時計店 鄭承煥

興南邑新上里六 食料 玩具商 雜貨 光成商店 朴長壽

興南驛前 食料品 果物商 東興商店 金濬根

興南邑內湖 醬油商 金培根商店

內湖市場 雜貨商 金昇祐商店

內湖市場 雜貨商 日興商店 金永喆

內湖市場 眼鏡·時計·金物商 高雲煥商店 支店 九龍里市場

興南邑九龍里 金龍海

興南邑九龍里 金尙德

興南驛前 第一冷麵屋 韓昌實

興南邑九龍里 寫眞機械 寫眞材料販賣 寬興商店

興南驛前 時計 貴金屬 ラヂオ 蓄音器 印章 東洋時計店 韓虎京

興南邑松ケ枝町 料理業 咸新舘支店

中部版

金浦郡各農家의輕擧
家畜을廉價로亂賣
飼料價暴騰이主要原因

【金浦】 김포지방은 금년의흉작으로인하여 일반농가에서는 소 도야지 닭 기타가축등의 사료문제가 크게곤란하여 갑시싸고 비싼것을 롱게하고 함부로팔아버리는자가 속출하는 현상이다 군당국의 가축증식 장려계획도 결국수포로 도라가게 되엇다만 일이와가튼 현상이 계속된다면 명춘까지 소 도야지가 얼마나 남머잇게될는지 농가의 일대문제이다 소가업스면 농사도못할 것이다 이어려운 곤경을참아서 명춘까지만 가지고 잇다면 그때가격도 훨신올라갈것이요 또는농사짓는데도 한걱정을 면하게될것이다 목전의 곤란만생각지말고 장래의일을 잘생각하여 주기를 일반지식자측에서는크게 유감으로 생각하야 가축의매각을 말리는 중이다

殊常漢을檢束 判明後에釋放

【金浦】 김포경찰서에서는지난십오일부터 연말경계를시작하엿다 함은 본보에보도한바어니와 종래대로 경계를 엄중해오던중 그다지 지장이를 보이지아니하엿스나 요지음강도사건이계속발생할때를따라 그경계를더욱엄하게하게되엇다 경찰측원은 물론 군내각경방단 각지주재원등을총동원시켜가지고 부락부락이 철옹성가튼경계망을 놓이고잇다 중에 통행하는사람은 반다시수하신문을하는동시에 안면없는일 아지못하는자에게는 경찰서또는 주재소로 다려다가 신분이판명될때까지 검속하기로되엇다 일반은 자숙자계하야 이경계망에 걸여들지안토록 주의하기를바란다고한다

江華京城間의 自動車時間變更

【江華】 지난이십일부터 삼신자동차노선이 경성철도회사로 팔려넘어가자 종래의 발착시간을변경하여 왕복회수도 느럿다는바 개정된 발착시간은다음과갓다

江華發京城行 午前八時 午前十一時 午後一時三〇分 午後四時三〇分

京城發江華行 午前九時 午前十一時三〇分 午後一時 午後三時

"森信"의意思暗示로 再燃된江華中學
적어도五萬圓寄附를期待

【江華】 삼신운수주식회사의 사업선로인 경성 강화간 자동차선로를 경춘철도회사에 팔고나 대한 이익을본 이기회에 강화주민의 기대에 버서지지안을정도의 사업을하게다는 의사를지난십구일 동사사장 유진식(兪鎭植)씨가 발표한사실이 잇섯다 함은 기보한바이어니와 지난이십일 동사의 전무취체역 김종섭(金鍾燮)씨는 재차 성명하엿다 그러나 사업그내용은 아직도 알수업다 파연김종섭씨는 인천방면에 학원등을 경영하여 적지안흔 교육사업을 하고 잇는만큼 이번에도 동사선로매각시 십이만팔천원에서최대의 희생을하여 강화중학기성회에 기부하리라고추측된다 그러나 기부액의 정도에 잇서는 매도가격의약반분 아니면최소한도로오만원정도에서 기부를하게되리란다 강화드미의 이가튼사업신에의 성의와신중하다면 이사업주한문제가구가지로 이기회에강화중학문제 체전으로 지처되리라고하여 일반의기대는자못 크다고한다

"코떼인豆腐商"
일전씩올렷다가 내려

보내종로일정목 한성두부상업조합(漢城豆腐商協同組合)에서는 저간 조합원 이십여명이모여 두부한모에 육전씩 밧자고 협정가격을 정하엿섯스나 그후 석탄과 콩갑시 실제에잇서서는 공정가격보다 비싸젓스므로 지난십일월일일 회의를열고 두부한모에 일전씩을 올렷던 사실이종로경찰서경제계에 탄로되어 이십일 조합장최귀만(崔貴萬)씨가 호출을바다두부갑을 종전대로 육전식밧게되엇다

煉炭까쓰中毒에 女子一名絕命

연탄"까쓰"에 중독되어 여인도한사람이 죽엇다— 창신정(昌信町)삼백사십번지의 사호 황회한(黃晦漢)의집 세방에들어잇는 장회형상 거기거(金基哲)의 안해 이씨(李氏)(二〇)는 이십일오전열시 삭일부잘때밧에 피어들여노흔 연탄까쓰에 중독되어 이십오원서 사반맛사망하엿다한다

至毒한담배! 두生命을切斷

【江華】 강화군 불은면 백운흑 (江華郡佛恩面白雲谷) 박연흑

仁川은詐欺쟁이요 서울은橫領꾼이라
十一月中京畿道犯罪統計에나타난珍現象

금번십일월중 경기도내의 범죄상황을보면 총건수는 삼천삼백구십구건으로 작년십월보다 일천구십일건의 증가를 보엿다 이가치 범죄건수가 느는하면검거도 늘엇스나 발생하는건수에 마주어 검거가안된편이다 그런데 이번집계중 특이한점을보면 경성은 횡령이 삼배칠십구건으로 작년동기 사십오건에비하면 약팔배나되며 인천은 사기(詐欺)만이 오백이십구건으로 작년동기 칠십팔건에비하면 약칠배나되엇다 이것은 물론작년보다 검거율이 만큼 인천에는사기죄가만타는것이 판명되엇다

志願兵募集 協議會를開催

【元山】 육군특별지원병모집에관한협의회는 이십이일 오후한시반부터 원산부청 회의실에서관계각당면 인사와 각면장각학교

退潮에明太豊漁
이틀동안에五千餘

【退潮】 약진발전하여가는 퇴조(退潮)는 동해안에명태의 특산지로유명한 어항으로 초회출회에 일일평균수양사천여태를 돌파한 이래 태풍관계로 출어도작업을 못하여 업자들은 비명중에잇든바 근일에와서는 태풍이좀흘니는듯하더니 작십이일부터 어선들이총출동하여 일야이천여태를 수양시키고 금이십일 일에는 삼천여태 작금양일간에 오천여태를 돌파하엿는데 가격으로본다면 전고미문의 고가로 일태에 최하가팔십이원 최고팔십육원의한금천까지하엿스니 양일간에 사십삼만여원의 거금이퇴조항에 쏘더저 업자들의 희색은 만면하다 그리고 원산 근방에서도 이와가티 소남이 풍어를 예상할수잇는바 업자들은 일반어민들의 대활약을기대하고잇다

痘禍가再次猖獗
咸興에서또一時五名이나發生
벌서 一五七名의多數

【咸南文社發】 함흥서관내의천연두는 밀사전발생으로 이십일일에는 겨우 한명의 신발생이 잇섯는데 이십일일에는 아연재엽되어서 일시에 시내에명 시외방면의합으명이나 발생되엇다 이로서 천부는합계백오십칠명의다수가되엇다 그리고 이십일일에는 마침 장날임으로 부외에서 드러오는 네판은에 모두 검문 지안코서 미종두자는한명도 빠짐업시 종두를하여 미종두자들은 방역경관들이 화물자동차에잔뜩실코서 함흥서로다려다가 강제종두를 시켯다 이날 종두를한것도 약 천여명의 다수가 되엇스며 시내는 뻐른의검문소 팔에다가 완장(腕章)을 부치저 사북경관들로서 방역일색으로화하엿다

洪原서도防疫

【洪原】 두마(痘魔)가 드디어홍원군까지 침범하엿다 수일전 홍원군 홍원면 남산리(洪原郡洪原面南山西里)사십사번지 김득현(金得鉉)의 삼녀 정순(貞淳)(七)이가 천연두에걸려 알코 잇는것이 발견되어 응급대책을 강구하는한편 홍원서에서는 조의생계주임(趙衛生係主任)을 선두로 물샐틈업시 방역진을 펴고잇는데 일반은 시징시 종두를 마저주기 바란다고한다

九·一八價格無視
亞鉛板을二次나密賣
元山五大鐵物商이違反送局

【咸南文社發】 원산부내의 큰철물상들이 판게된 중중위범(重重違犯) 죄수조의위반사건검거된 사람은 그부본정오정목 일백사번지(本町五丁目一一〇)금물상 소목증미사랑(小木曾彌三郞)(三五) 그점원오십천청(五十川淸)(三六) 점원 장승경(張承慶)(三五) 여신철물상 황인백(黃仁栢)(二六) 박명원(朴明源)(二〇)으명인데 그범죄내용을보면 소목증은 지난시월 이십구일아연철판(亞鉛板) 오십매를 그점원 오십천장의 두사람을 시커서황인백에게 파는데 구일팔(九一八)가격을 일약이원오십전으로 팔정씩 초과되게 파럿는데 다시 그것을산 황인백은 이것을바 로다시 일매이원오십이전의 높은 값으로 한매상원오십전으로 파럿다

雇傭者申告督勵

【咸南文社發】 함흥부에서는 부내공장종업원의 고입제한령(雇入制限令)의실시로 종업원의 공용해고에는반드시신고하게되어잇는데 업자들은 조금도지키지안코서 여전종업원쟁탈전을 계속하고잇다 그리하여 이십이일부에서는 부내십사개공장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할것을 경고하엿는데 금후위반자는 엄벌에처하기로되엇다고한다

汝海津으로부터 三防峽까지
各驛에서種痘檢問!

【元山】 도의생과에서는 이십일도령으로서 기차려객의 종두여하검사를한다는 공시를 하엿는데 도판내 여해진(汝海津)에서 삼방협(三防峽)까지 각역마다 저사복경관이 일행식 타고서 그다음역을 지날때까지 려객을 검사하게 되엇다고한다 미종두자는 하차시켜서 모두종두를 시키기로되엇다 또한각어항에서는 출어선박의 선원어부들 모두검사하고서 강제종두를 시행할것을 공포하엿다

江陵商工業者 經濟報國宣誓

【江陵】 강릉읍내의 상공업자경제보국선서식은 지난이십일오전열시에 예정과가치 강릉상영회(江陵商榮會)의주최로 강릉신사서전에서 다수업자맛수십의편민 태비참열하에 거행되엇다

蔓延하는痘禍

【元山】 천연두의만연으로공포에떨고잇는 원산항은 위생당국의 적극전방역에도 불구하고 날마다환자가 속발하여 이십일일에는다환자가 속발하여 이십일일에는 태를일우어 부내에서 한계십칠명이나되엇다 더욱이 열차내에서 이동되는환자가 종종발견되는중 이십일에는 경원선열차에 지난경성행열차안에서 함경선이원에서탓다는 경남출생 박성필(朴成八)(四七)이 지성천연두환자 인것이 발견 되어 차내를 대소독하는동시 그차에 탓든 승객삼백오십명에 전부 종두를 넛는등 대소동을 일으켯다는바 이십일일에도 원산서방역반은 원산역전차중의 환자일명을 해화병원에 수용하는등천

惡德古物商에鐵槌

【元山】 원산부중리 사동고물상전홍철(全弘哲)(四七)은근하(困根夏)(二一)등 소년절도 세명을 지기집에 숙박을시키면서 밤마다 등기라 흥천으로 물건을 싸게사든 것이 발각되어 원산서에서 목하 엄중취조중이라는바 그들을사속하여 산물건이 이십이건에오백원에달한다는바 동서에서는금후 차종악덕상을 철저응징하리라 한다

濁酒通帳制廢止

【寶城】 전남보성(寶城)에서도양조미절약정책에대하여 탁주판매의현금제와 통장제메지등을실시하고잇다고한다

阿片密賣黨
咸興署에서支那人四名檢擧

【咸南文社發】 연말경계가진에 일단 오명의 아편밀매범들이 붓잡혀 취조를받고잇는데에 이십이일오전에는 또다시부내모처를 형사대가습격하여 일당사명이지나인남녀의 아편중연밀매당을 일망타진하여 취조중이다 그들은이시 대대적으로 아편밀매어자를과 련락하여 오지 대 아편밀매어자를

牙山郡各警防團 親睦會를組織

【牙山】 충남아산군경방단(警防團)에서는 지난이십일일 오전열시부터 아산군내경방단장과 부단장 부장들이 경찰서연무장에 집합하고 친목회를 조직하는동시에 죽전(竹田)서장은훈화하여 이에 대한 효지가잇섯스며 뒤를이어 훈련도 잇섯다고한다

冰上選手登場

【會寧】 전조선도시대항빙상경기선수로 출장할이래의오명은 황남순(黃南俊)씨호원으로 본월십사일부터 함속하면서 연습하여 이십사일에 출발상경하기로되엇다 참가선수는 황남순씨가전담하엿다고한다

金三峰 洪得祿 申東安 尹子敬 林虎碌

年末年始警戒

【平康】 강원도 평강경찰서에서는 지난이십일부터 이십일간을 내각수재소와 각경방단을 총동시켜 년말년시를경게한다고한다

國語普及에邁進
十五歲로부터卅歲까지未解得者
卅五萬名의七割에講習

【咸南文社發】 함경남도에서는 십육세부터 삼십세까지 국어미해득자 오개년계획으로 십이만명에게 국어보급 강습을시키기로 결정하고서 실시하여오든바 다시국에 방추어서 십오세부터 삼십세까지 국어 미해득자 이십사만육천육백명 국어를 해득하게하기로 계획을 확장키로되어 다고한다 그 리하여서는 간이국어학교 사립학교 서당 학술강습소를 총개방하여서 이개년동안의 강습기간을 정하고서 학교직원중심으로 을 총동원시켜서 강습시키기로 되엇다

강습은 간이국어외에 또초보의산술 생활에필요한간이지식 공민으로서의훈련 라디오 체조동의 신지식도 너어주는데 계몽운동으로 회기적큰계획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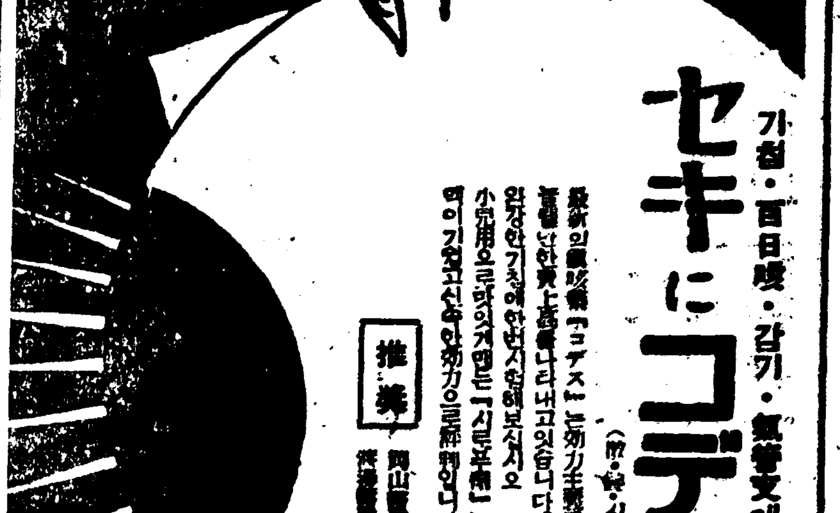
男女夜學開始

【安岳】 양악에서는 농한기를이용하여 지난십이월일일부터 군하오시개부락에 야학회를 개최하엿는데 강습은 팔시칠인에수강인원은 남자일천육십사인 여자칠백사십이인나 일일평균출석은 삼십이명이나 된다고

獻金美談一題

【寶城】 음성내에서 선일여관(鮮一旅館)을 경영하는권선옥(權仙玉)씨는

湖岩全集 (第三卷發賣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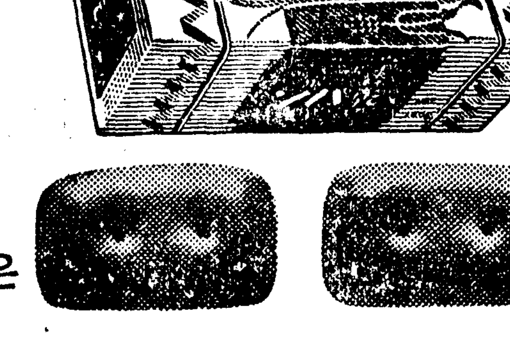
耳 サン鼓膜
サンセイ商會

求職案內

藥은滋味나는토모오기
製藥士 養成講義
무슨藥이라도自由로製造
◇立身成功의門
(入學案內無代進呈)
日本通信製藥學校
東京市芝區·新橋·六ノ四八

모루히네 其他塩類中毒에
福モナール
(文獻進呈)
順天堂醫化學研究所
田邊五兵衛商店

KP—1214



長篇小說

사랑의 水族館 〔113〕

金南天 作 鄭玄雄 畵

魚形水雷(十)

가는데―

송현도와 반도『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갈라진 이경히는 그길로 장곡천정을 다녀서 조선은행에 들렷다.

거기서 소절수를 현금으로 바꾸어 갓고 그는 처의양장점 강현순이 하례 전화를 걸엇다.

강현순이는 눈오는날 저녁에 양장점을 그만두어 달라는 경히의 간청을 바든채 아직도 그냥 가게에 출근하고 잇섯다. 몇번 더 재촉해 보앗스나 애매하게 대답하면서 지금까지 현순이는 양장점을 그만두지안는 것이엇다.

『현순씨유? 나 경히야 웅 그래. 바뻐? 나좀 수 업지? 그럼―저어 내 아파―트로좀 갈께 그러서요 면지? 네시 반? 내 그럼 그 시각에 야마도 아파―트로 들리께. 아따 미안하긴 무에 미안하우. 그때까지 나는 어떠케 시간을 보내겟느냐구? 거야 집을 다녀 나오던가 책방을 순례하던가 백화점을 오르내리던가……호호호, 네, 그럼 내 그 시각에 갑니다.』

전화를 걸고 박그로 나왓스나 사실 네시반까지 무엇을 하기다릴것인가? 하고 잠시를 생각해본다.

그러나 이내 그는 사진구경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사진관 아페서 『푸로그람』을 물끄러미 처다 보앗다. 유명하다는 양화나 그런건 업는것 갓고 오래간만이니 아무게나 보자고 그는 표를 사가지고 안으로 들어갓다.

구라파전쟁의 『뉴―쓰』는 재미잇섯고, 양화는 미국오락영화에서 그저 그러그러 하엿고, 일본영화는 통속소설을 영화화한 비극이어서 경히도 한두대목에서 눈물을 짯다. 눈물은 흐르는 옹만한 이야긴 아닌것가터서 자꾸만 재자신에 경멸이가고, 마즈막엔 이도록 눈물을 요구하여 마지안는 영화에 대하여 다소 분한 생각도 들엇다.

그러나 눈물을 흘려 버린뒤이라 상설관을 나온뒤의 그의 다음은 가볍고 어딘가 상쾌한 기상까지 느껴지는것가탓다.

그는 그길로 전차를 타고 죽첨정에 잇는 『야마도아파―트』로 갓다.

저한 시각은 되엇는데 현순의 방은 잠을쇠가 잠겨서 아무리 『녹크』를 하여도 대답이 업섯다. 그는 복도에 서서 기다리려 햇스나 엽방 사람이 내왕하는데 우두머니 서잇기가 무엇해서 그대로 아레칭으로 내려와버렷다. 그러는데 현순이가 가방을 들고 현례 벌떠어리며 「아파―트」의 정문을 들어왓다.

『많이 기다리섯지?』

『아뇽 지금 금방 왓는데』

『전차가 자꾸 만원이어서 노리까에 할쩍마다 실는가까이 지체를 하는구먼 글세.』

이러케 현순은 지각의 발명을 말하면서 층게를 걸어서 삼층에 잇는 제방앞까지 왓다.

열쇠로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와다. 양실로 된 상당히 깨끗한 방이엇다.

들어서면 「타일」을 깔은 현판이잇고, 거기서 시발을 바꾸어 「스립파」로신고 올라서면, 외편한쪽에 제판에 부튼채 양복장이잇고, 그다음이 침대로되어서 두터운 「커―틴」이 드리어잇다. 바른편 창문미트로 「스팀」 그여페 「테―불」과 응접의자가 두개, 서편 현판이된 절반이 화장대와 수도, 그리고 취사장이되어잇섯다.

『다른게 아니라……』

둘이 마주 안젓슬때 경히는 이러케 말을시작햇스나 물론새삼스럽게 『다른게아니라』하고 시작할 이야기도 아니엇다.

『오늘 은행에서 우리 시찰갈여비두 차자왓는데 인제는 참말 양장점을 그만두시고 형편만 조호시다면, 내일이래두 곳떠나도록 하십시다.』

벌써부터 졸라오던 경히의 요구다.

양장점일이 따라 놓키기만하셔서 ……이것이 현순이가 거절하고 여기해오던 표면의 이유엿다. 그러나 세말도 가까워서 그는 아직도 이러한 이유를 내세우고 경히의의 약속을 작꾸만 천연시키러 햇다.

경히는 현순의 얼굴을 처다보앗스나 현순이는 고개를 딴데로 돌어트리고 어내 대답지 안햇다.

『어째서 그러우? 무슨 불만이 잇서서 그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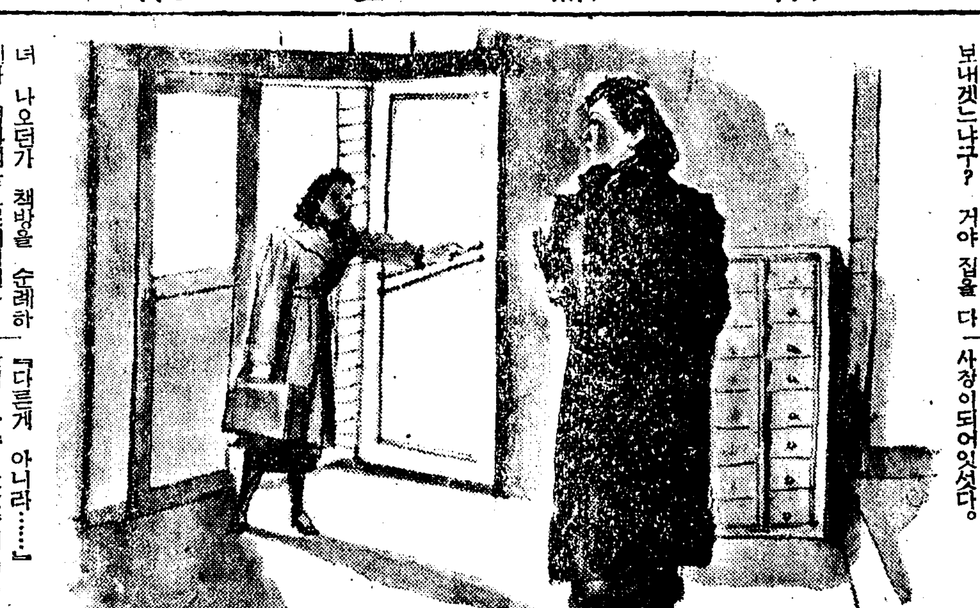
현순이는 머리를 흔들엇다.

『그런두어유? 아직일이 바빠?』

그래에 현순이는 머리를흔들엇다.

『아무래도 락아소의 일은 내의 천분에 맛지 안는것 가든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거유』

이러케 이야기를 시작하엿다.



趣味 娛樂

任東爀君入賞曲 AK에서國際放送

동경일일(東日)음악『콩쿠―르』에 입상한 작곡가 임동혁(任東爀)군의 입선곡 『세도시의 인상』은 다른입상곡과 함께이 십오일오후세시부터 동경(東京) 방송국(JOAK)에서 국제방송을하리라한다

라디오 二十四日(日)

▲午前七時五十分 宮城遙拜(第一放送에依함)
▲同七時五十一分(東)라디오體操
▲同十一時五十分 氣象通報
▲正午(東) 時報오늘의레코―드
▲零時五分 新民謠 (레코―드)
▲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名曲鑑賞 (레코―드) 一、歌劇『이고―르公』中舞曲 二、歌劇 ... 綜合曲 ... 解說 任…
▲同四時 뉴―스
▲同六時 名作이야기 크리스마쓰·캐롤 (디큰스原作尹享水編案)尹享水童話作化金相變
▲同六時二五分 日語講座 ... 뉴―스
▲同六時三五分 修養講話『道德에對하여』 權相老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一、童話遊戱 1、짝짝궁2、어디게서요3、꼬끄랑4、호랑5、손벽치기 安國幼稚園園兒 伴奏와指導 趙錦子 二、이야기 "家庭讀本" 宋今璇 三、童話劇 "興夫傳―燕美妹脚色" 配役 興夫 金尙權 妻 金蓮仁 惡童(그의아들)金鎬鉉 銀順(그의딸)朴恩蓮 제비 蔡貞姬 제비王 沈泰鎭 解說宋아나운써―
伴奏京城放送管絃團 編曲과指揮洪蘭坡 四、수수꺼끼 어린이係 四、童話『말하는눈사람』朴仁範 六、獨唱 一、자장가 슈―베르트作曲 二、자장가 洪蘭坡作曲 柳恩卿 伴奏 京城放送管絃團 七、옛날이야기『설날까지』 申鼎言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明日番組
▲同一〇時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第一放送

▲午前九時三〇分(東) 實況(解說附) ▲午後〇時三〇分 뉴―스 ▲同一時(東) 一、落語 二、講談 三、漫才 四、浪花節 五、歌謠曲 ▲同二時五九分(東) 國內아나운서 ▲同三時(東) 歌謠 安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名手大棊戰

黑『丑의七』天厄星照臨 蜂衙守備에注力

觀戰記 權秉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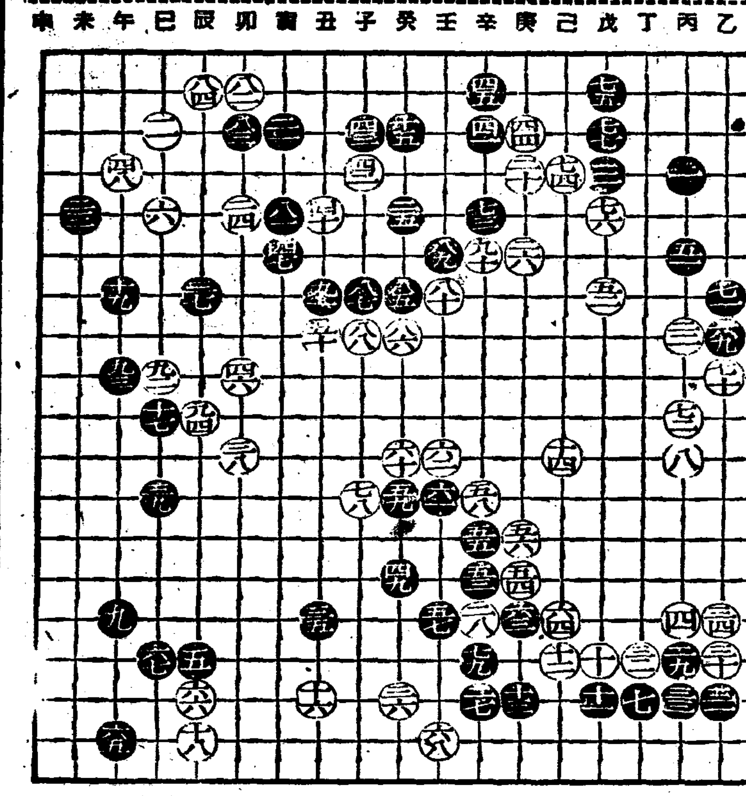
碁館에背輪一子언정 勿失先手라하엿스니 可不愼哉아 黑八五가癸의七은 截進함과 白이또 同線八에 封鎖함은 彼此間그럴듯하나 黑이子의七로 八五를 順順이나가니 白은 勿論堅壁不出을 하게되엇다 이로써 黑의 稱倫은 모두 저ㅡ 泡花影裡로 도라가고말진저! 黑이 만약 王의七을 切斷하엿스면 白이 어떠케할것인가 左로버더저나가면 右로 몰아들어가고 또辛의七로 自備하면 白一石은 自然捕虜가되지안흘까 아모리硏究하여도 조흔機會에 逸手가 分明하다 以下 黑, 王의六으로 白九〇까지는 安全을어들것……

黑이 漸漸萎縮을 당하섯이다 黑이 또 九一을 丑의七에두니 이는 有何曲折인고 名手의 高見으로는 變通無路라 안할수업다 그러치안흐면 아마도 天厄星의비치 다 다른듯, 大事休矣라 白은乘勝長驅의姿勢로 先手를빼서 巳의九로 도루侵蝕을꾀하니 黑은無可奈何로 午의九에應對하다 白九四는辰의一〇으로 潛聞이 風雲을다시일으킬 變化點인저 讀備하기를마저안는다 現局勢를본다면 白의中央이 벌집처럼東西左右에빼곰빼곰하든거슬 모두 守備에注力하여와다 이제

【9】

●八五 癸의七 ○八六 癸의八 ●八七 子의七 ○八八 壬의八 ●八九 辛의六 ○九〇 丑의六 ●九一 丑의七 ○九二 巳의九 ●九三 午의九 ○九四 辰의十

白 韓相龍 ★ 黑先 初段 金東熙 (四目半出)



ぢに アルコン

マルビーロ印 新發賣品

アルコン型 肛門部에 挿入하면脫出할念慮업시挿入時니키어려운일은絶對로업도록 苦心한것이 アルコン坐薬의特長이옵니다

包裝 坐藥 五個入 一〇個入 五〇個入 軟膏 一〇瓦入 二五瓦入 一〇〇瓦入 五〇〇瓦入

製造發賣元 大日本製藥株式會社 本店 大阪道修町 支店 東京本町

(全國有名藥店에有함)

寒氣에対한 抵抗力强化

絶對不可缺한榮養素인 體蛋白의補給이不充分하면 身體가 虛弱해치며 氣候의變動에對한 抵抗力이衰退됩니다. 그것은 人體의大部分이 蛋白質로構成되여있으며 體蛋白의消耗에依하야 사람이健康과生命을 維持하고있는까닭입니다. 그런데 이體蛋白이라는것은 飮食物中에含有된蛋白質이胃腸에서消化되여 아미노酸으로變하야 吸收同化되는것임으로 아모리蛋白質이豊富한飮食物이나 所謂『補藥』을먹더라도 그것을消化시킬胃腸이不健하면 何等의効驗도없을것은必然의結果입니다. 그러므로

吸收完全胃腸强化의二大特徵을가진 强壯劑인 『포리타민』이 널니賞用되고있읍니다. 本劑『포리타민』은牛乳蛋白을體內의消化作用과꼭같은方法으로消化식혀서맨든 綜合『아미노酸』을主成分으로하고 『비타민』B를添加한것입으로 아모리胃腸機能이 衰退된분이먹더라도 完全히 吸收同化되여 피가되며 살이될뿐만아니라 同時에胃腸機能을强健化식혀 積極的으로 食慾을增進케하고 食物의消化, 吸收를完全케하는 卓越無比한補血强壯劑입니다. 이와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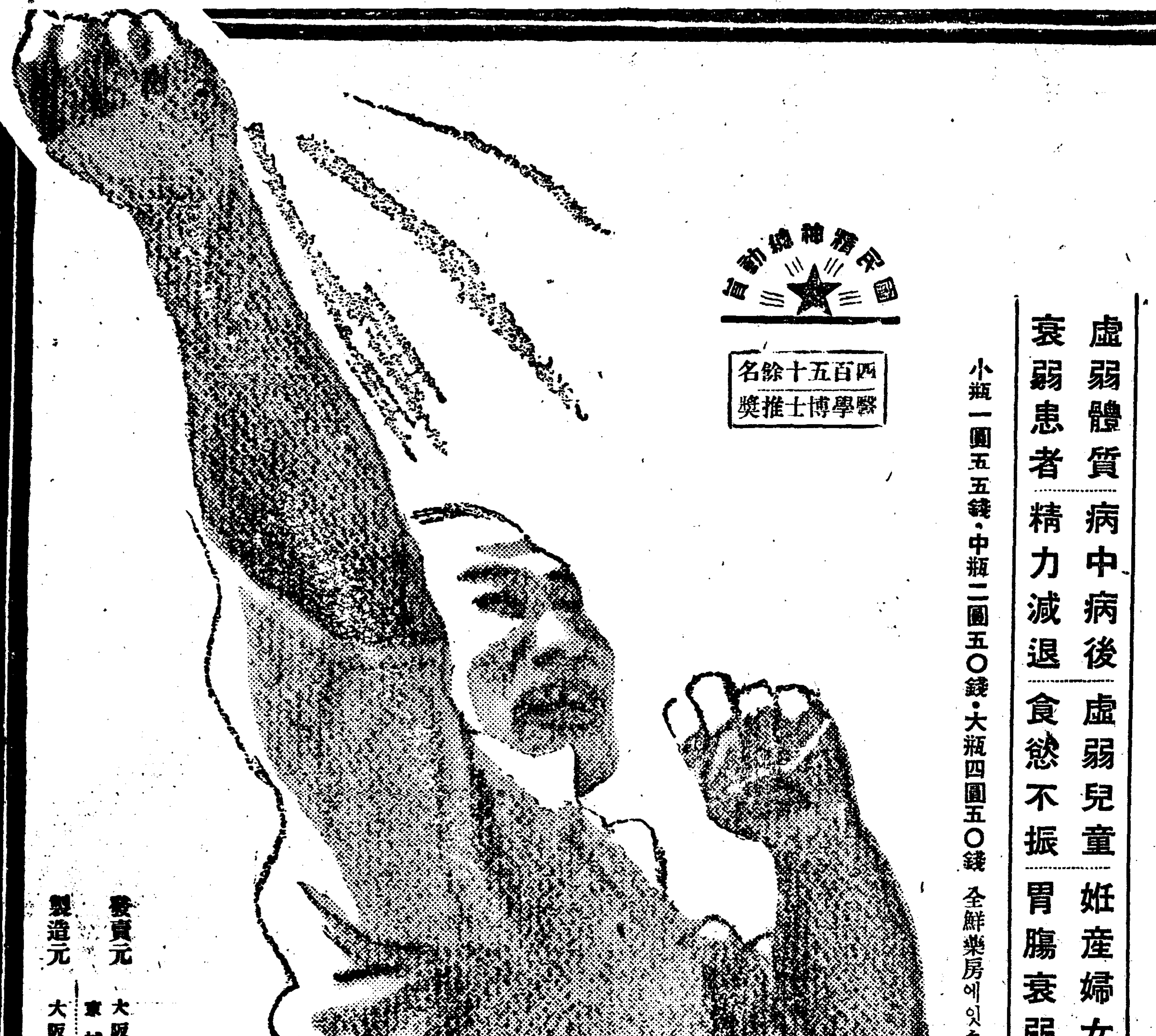
全身機能을旺盛케하는作用을가진 『포리타민』은 또한 꿀과같이달어서 어린애들이라도 먹기좋아하며 『홀몬』을形成하는同時에 榮養을良好케하고 體重을增加하며 細胞를賦治하야 病患에對한抵抗力과治癒力을 强化시킴으로 다음과같은경우에愛用됩니다.

虛弱體質 病中病後 虛弱兒童 姙産婦女
衰弱患者 精力減退 食慾不振 胃腸衰弱

小瓶一圓五五錢・中瓶二圓五〇錢・大瓶四圓五〇錢 全鮮藥房에잇습

國民精神總動員

四百五十餘名 醫學博士推奬



補血 强壯 ポリタミン

포리타민

武田發賣

發賣元 大阪市道修町 株式會社 武田長兵衛商店 京城出張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〇六
製造元 大阪市堀上通 武田榮養化學株式會社

39(1)755

大陸劇場

19日より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1・00	2・50	6・45
家庭日記(前)	11・28	3・18	7・13
家庭日記(後)	12・27	4・17	8・12
テキサス人	1・16	5・06	9・01

次週 グレートワルツ 中鏈續大多入實施

黃金座 日活映畫

十二月二十六日マデ 十二月二十一日ヨリ七日間

夢に共と醉風	11・00	2・35	6・20
泥	12・30	4・05	7・50
ニュース	1・25	5・00	3・45
明有明無(後)	1・35	5・10	8・55

午中前入場者 30セン均一

明治座 松竹映畫

12月18日より上映時間表

暖流 前篇	10・00		
ニュース	11・35	3・05	6・40
愛染かつら豫告篇			
眞人間	11・35	3・27	7・03
暖流 前篇	1・30	4・57	8・40

京劇 新興

二十日ヨリ上映番組 第一回十一時半 第二回二時半 第三回六時半
新興東京十大スター競演 夢ならぬ戀
新興 後篇 愛の巻 演藝部
選拔漫才・二ノ替り
新興京都特作 佐竹競艶錄 大谷・大友・吉井・梅村

若劇

12月21日より上映時間表(早朝割引)

ニュース		12・25	3・40	7・00
親爺三重奏	9・20	12・35	3・50	7・10
ニュース	10・30	1・45	5・00	8・20
二年ごろ	10・40	1・55	5・10	8・30

次週上映(丹下左膳餘話眼帯卷)(君を呼ぶ歌)

第一劇場

十二月廿二日ヨリ 超特作 炎え上るバルカン Wトウルヤンスキー 監督 ブリギッテホルナイ主演 グスタフフレーリッヒ ロゼシュトラドナイ エリノアボウエル エデイシ ... 踊るホノルル 全新キネマ時代劇作品 天草四郎 谷幹一 主演 闘十郎の勝 午前十一時半ヨリ二回 ...

桃花劇場

十二月廿二日ー廿四日 毎日晝夜二回 一時 七時 料金 大衆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大毎ニュース 松竹大船特作 子をめぐる二人の女 監督 蜷川伊勢夫 主演 坪内美子 坂本武 小林十九二
FOX社超特作 闇の狂人 監督 ブルスハムバ ストン 主演 ボリスカロフ ワナオランダ
東寶社超特作 江見家の手帖 監督 矢倉茂雄 主演 佐伯秀男 英百合子

劇團 青春座送年特別大公演 十二月二十四日晩부터 金健 力作 『보리밧』 四幕 七場 滿天下팬―諸氏의健康을祝하오며올해도덜마남지않은―달력에 장수는애석한드시나흘거리고잇습니다借送하는意味로저의靑春座 東劇을사랑하시는마음으로만히와주십시요 新銳? 金健氏의心血을다한最近의보기드문傑作? 廻轉舞臺裝置며衣裳配役의다른點이만흐니다꼭오세요(六時三十分開幕이옵시다當劇이업고幕數가긴關係로定刻前에오서야처음부터끗까지다보십니다)

東洋劇場 電話光二一五四番 四四九五番

新富座

十二月廿二日ー廿四日 毎日晝夜二回一時七時 大衆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松竹大船超特作 文豪片岡鐵兵原作 名匠島津保次郎監督 朱と綠 前後大會 主演 高杉早苗 上原謙 高峰三枝子 佐分利信
新興京都作品 龍虎日本晴 監督 押本七之助 主演 大友柳太郎 尾上榮五郎 美鳳鳥子 羅門光三郎
次週 陽氣な姫君 愛の要塞 やくざ魂 豫告 火星地球を攻撃す 新しき出發

優美館

十二月廿三日より公開 大衆席料金二十錢均一 廿世紀フォックス社日本版 大學三人男 リッツブラザース主演
コロムビア特作全發聲 怪奇の殺人 チャルス スタルト 主演
新興特作時代劇 叫ぶ野武士 大友柳太郎 主演 高山廣子 助演
東日、大毎ニュース班 特輯 支那事變戰捷ニュース